

KLIPS User's Guide 2006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User's Guide

목 차

1-7차년도 release 자료의 특징	0
I. 한국노동패널(KLIPS) 소개	1
1. KLIPS 조사개요	1
2. 현장실사 및 면접방식	5
II. 표본설계 및 가중치	18
1. 표본설계방법 및 표본추출과정	8
2. 가중치 부여방식 및 사용방법	22
III. 자료의 주요 특성	27
1. 설문지 구성	2
2. 자료 구성	3
3. 조사내용	3
IV. 변수 가이드	43
1. key변수의 이해와 이용	44
2. 오픈 코드(open code)	65
V. 주제별 가이드	63
1. 가구자료	6
2. 개인자료	7
3. 신규자료	9

4. 직업력 자료	9
5. 부가조사자료	12
<부록 1> KLIPS 자료를 이용한 문헌 목록	108
<부록 2> FAQ	130
찾아보기	186

표 목 차

<표 I-1>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7
<표 I-2> 각 연도별 대리응답 비중	7
<표 I-3> 각국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9
<표 I-4> 1-7차년도 조사결과 비교	10
<표 I-5> 7차년도 비성공 가구의 지역별 분포	11
<표 II-1> 최종 추출된 조사구와 조사가구	11
<표 II-2> KLIPS 1차년도 조사가구 개요	12
<표 II-3> 가구가중치의 특성	12
<표 II-4> 개인가중치의 특성	12
<표 II-5> 1-7차년도 가중치 변수	16
<표 III-1> 1-7차년도 KLIPS 설문지의 구성	18
<표 III-2> 일자리 지속을 통한 유형설문의 판별	19
<표 III-3> 1-7차년도 KLIPS 자료의 구성	19
<표 III-4> 1차년도(1998년) 조사 내용	23
<표 III-5> 2차년도(1999년) 조사 내용	33
<표 III-6> 3차년도(2000년) 조사 내용	43
<표 III-7> 4차년도(2001년) 조사 내용	53
<표 III-8> 5차년도(2002년) 조사 내용	63
<표 III-9> 6차년도(2003년) 조사 내용	73
<표 III-10> 7차년도(2003년) 조사 내용	83
<표 IV-1> 가구의 고유번호	11
<표 IV-2> 각 연도별 조사 응답여부 판별 key 변수	11
<표 IV-3> 1-7차년도 성별 변수	14
<표 IV-4> 1-7차년도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	14
<표 IV-5> 1-7차년도 연령 변수	14

<표 IV-6> 1-7차년도 개인용 혼인상태 변수	05
<표 IV-7> 1-7차년도 학력 변수	05
<표 IV-8> 1-7차년도 취업/미취업 여부 변수	35
<표 IV-9> 1-7차년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구분 변수	45
<표 IV-10> 1-7차년도 종사상 지위 변수	55
<표 IV-11> 1-7차년도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변수	65
<표 IV-12> 1-7차년도 근로시간 형태 변수	65
<표 IV-13> 1-7차년도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	75
<표 IV-14> 1-7차년도 현재(최종) 일자리의 직업코드 변수	06
<표 IV-15> 1-7차년도 현재(최종) 일자리의 산업코드 변수	16
<표 IV-16> 학과 관련 변수들	2
<표 V-1> 1-7차년도 가구원 정보 변수	56
<표 V-2> 1-7차 가구소득 관련 변수	76
<표 V-3> 1-7차년도 가구소득 세부항목	86
<표 V-4> 1-7차년도 가구소비 관련 변수	07
<표 V-5> 2-7차년도 부동산 관련 변수	17
<표 V-6> 2-7차년도 금융자산 관련 변수	27
<표 V-7> 2-7차년도 가구부채 관련 변수	27
<표 V-8> 1-7차년도 주거지 관련 변수	37
<표 V-9>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 조사내용	5
<표 V-10> 평소의 경제활동관련 변수	8
<표 V-11> 1-7차년도 구직활동 관련 변수	97
<표 V-12> 1-7차년도 근로계약 관련 변수	08
<표 V-13> 비정규직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B
<표 V-14> 1-7차 근로시간 관련 변수	38
<표 V-15> 1-7차년도 임금근로자의 임금관련 변수	48
<표 V-16> 1-7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관련 변수	58
<표 V-17> 1-7차 직업훈련 관련 변수	68
<표 V-18> 자격증 관련 변수	6
<표 V-19> 1-7차년도 사회보험 관련 변수	78
<표 V-20> 5차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관련 변수	8

<표 V-21> 1-7차년도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 변수	9· 8
<표 V-22>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9
<표 V-23>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9
<표 V-24> 조직몰입도의 측정 변수	9
<표 V-25> 1-7차년도 기타 변수	29
<표 V-26> 개인자료에 포함된 신규자료의 변수들(7차년도 기준)	39
<표 V-27> 직업력 자료의 변수	9
<표 V-28> 3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4
<표 V-29> 4차년도 부가조사 -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4
<표 V-30> 6차년도 부가조사 -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4
<표 V-31> 7차년도 부가조사 -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4

그림목차

[그림 I -1] KLIPS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1· 1
[그림 I -2] KLIPS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수	2· 1
[그림 I -3] 7차년도 비원표본 가구 수	3· 1
[그림 I -4] 신규조사자의 특성(2-7차년도)	4· 1
[그림 I -5] 비성공 사유	71
[그림 IV-1] 개인의 고유번호	64
[그림 IV-2] 경제활동상태의 구분	35
[그림 IV-3] 산업코드 및 직업코드 대분류	95
[그림 V-1] 직업력 자료의 구조	79

FAQ 목차

FAQ. 노동패널자료 잘 쓰는 방법?	10
Q1. 노동패널자료를 좀 더 빨리 사용할 수 없을까?	2
Q2. SAS나 SPSS 파일을 다른 통계패키지 파일로 바꾸고자 할 때	31
Q3. 신규자료를 꼭 써야하는 이유, 그리고 개인자료와 신규자료 합치기	2
Q4. 개인자료와 부가자료 합치기	16
Q5. 가구자료와 개인자료 합치기	18
Q6. 직업력자료에 개인의 성별, 연령 붙이기	9
Q7. 원가구와 분가가구의 차이	11
Q8. hhid~hhid04 중에서 어떤 것을 가구 id로 사용해야 할까?	2
Q9. 15세 이상 가구원 수, 15세 미만 가구원수 구하기	41
Q10.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 추출하기	4
Q11. 가구자료에서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추출	2
Q12. 사교육 자녀번호와 엄마번호 사용하기	12
Q13. 사교육 이용기관의 변동사항 : 연도별 차이	6
Q14.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방법	17
Q15. 연평균가구소득과 지난 한달간 소득의 차이점	6
Q16. 생활비 항목에 대한 설명	11
Q17. 금융자산과 부채 변수 구성하는 방법	12
Q18. 부동산 자산의 시가 관련 문항의 구조	6
Q19. 2, 3차년도 가구자료의 주택종류와 평수에 결측치가 많은 이유	6
Q20. 지니계수 구하기	17
Q21.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구하기	6
Q22. 개인의 인적특성(성별, 연령, 학력) 변수들이 필요할 때	1

Q23. 종사상 지위, 임금/비임금 근로 구분의 기준	11
Q24. 경제활동상태 변수 만들기	13
Q25. 노동패널자료의 정규/비정규직 비중은 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보다 낮을까?	15
Q26.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변수에 결측치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18
Q27. 임금 및 소득 변수의 평균값 추이가 들락날락하고, 너무 큰 값이 나올 때	21
Q28. 개인자료에 부업 관련 정보를 붙이고자 할 때	28
Q29. 부모님의 학력,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28

1-7차년도 자료의 주요 특징

노동패널 1-7차년도 release 버전은 자료의 구조상 몇 가지 점에서 개선사항이 있다. 이용자들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료를 이용하기 바란다.

1. 개인자료와 신규자료의 통합

이전 KLIPS의 개인자료를 이용하실 때는 신규자료의 관련 변수 값을 일일이 붙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개인자료와 연결될 수 있는 신규자료상의 해당 관측치들을 통합시켰다. 그러나, 신규조사자에게만 묻는 설문(만14세 당시 성장지, 부모님의 교육수준, 직업, 종교, 군복무 등)은 이전과 같이 신규자료에서 해당 변수들을 추출하여야 한다. **관련 설명 : 본문 34, 103 페이지, FAQ Q3**

2. 혼인상태 가공변수 제공

KLIPS에서 개인의 혼인상태를 묻는 문항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었으므로, 연구자들이 직접 혼인상태를 통일시켜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부터는 보다 간편하게 혼인상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혼인상태를 1. 미혼 2. 기혼 3. 별거 4. 이혼 5. 사별의 값을 갖도록 가공하였다(변수명 : 각 연도별로 p_mar98~p_mar04). 이와 함께 초기 조사에서 발견되던 에러들에 대한 클리닝 사항도 반영하였다. **관련설명 : 본문 54페이지**

I. 한국노동패널(KLIPS) 소개

1. KLIPS 조사개요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노동시장도 질적·양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올바른 노동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통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지속적인 것도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을 관찰할 필요성이 생긴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8차 조사(2005년)까지 완료되었다. 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동일한 조사를 반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매우 중요하다. KLIPS의 각 조사년도별 조사결과 및 표본 유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LIPS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2차년도(1999년) 88%, 3차년도(2000년) 81%, 4차년도(2001년) 77%, 5차년도(2002년) 76%, 6차년도(2003년) 77%, 7차년도(2004년)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 원표본 가구 탈락율은 1-2차 12%, 2-3차 7%, 3-4차 4%, 4-5차 1%로 안정화되다가 6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성공률이 오히려 1% 포인트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

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 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동패널 표본에 처음으로 편입된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한 신규 조사자용 자료는 개인용 자료의 모든 정보와 함께 1차 조사 당시 파악했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추가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회고적(retrospective) 일자리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토대로 구성된 직업력 자료는 기업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 업종과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임금 및 소득 등 개인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부가조사는 한해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3차, 4차, 6차, 7차년도에 각각 조사되었다. 우선 3차년도에는 만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 부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4차년도에는 만4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은퇴 부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5차년도에는 별도의 부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6차년도에는 만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부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7차년도에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라 응답자들의 근로시간 변화와 여가사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 연도별로 부가조사에서 다루었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차년도 청년층 자료는 학력, 자격증, 재학 중 직업훈련, 재학 중 취업 경험, 졸업 후 첫 일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4차년도 건강과 은퇴 자료는 건강상태, 장애/장해 여부, 질병, 의료기관 이용, 부양과 피부양, 건강상의 문제와 근로, 은퇴와 노후 생활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는 은퇴상태의 판별, 은퇴시기, 은퇴사유, 은퇴계획, 정년관련 사항,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취업기간, 직장규모, 근로시간, 정년, 그만둔 사유, 임금(소득), 만 45세 당시의 일자리 특성, 현재의 소득원천, 연금 및 보험 납부액, 자녀 수,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가족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 부모님 부양 주체, 이웃과의 교류, 여가활동, 건강상태 등을 다루고 있다. 7차년도 근로시간과 여가 자료는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평일근무 기준 세부조사)과 휴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임금/비임금 공통)를 조사하였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를, 모든 응답자에 대해서는 생활시간표 등의 내용도 조사하였다. 또한, 모든 응답자에 대해 여가의 내용, 소요시간, 지출 경비, 독서, 종교 활동 등도 조사하였다.

KLIPS 자료를 통하여 기대되는 바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고용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 결정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자료의 유형으로는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와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 등이 있다. 횡단면 자료란 일정한 시점에서 각각의 표본들이 어떤 값을 갖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미시적인 경제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시계열 자료는 주어진 표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을 갖는지에 대한 동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한편 패널 자료는 노동시장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횡단면 자료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횡단면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관측할 수 없는 개인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를 통제함으로써 시간의 경과 혹은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해나가는지에 관한 동태적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횡단면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간 변이과정(transition between states)을 분석할 수 있다.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 특정연령효과(age specific effect), 그리고 동시생태효과(cohort effect)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패널 자료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패널자료의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석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LIPS 자료는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KLIPS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예로는 학교를 졸업한 개인이 최초의 직장으로부터 전직·이직 과정을 거쳐 은퇴하기까지 생애에 걸친 직업경로에 대한 이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 개인이 교육, 훈련,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쌓아가는 과정과 이것이 일자리 진입에 미치는 영향, 실업자 재취업훈련 등 정부의 고용정책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KLIPS 자료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한 주제들이다.

KLIPS는 다른 일회성 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의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3,000여 명의 개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과정과 자료생산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표본 추출, 설문지의 구성 등과

같은 조사설계(survey design)가 결정되면 조사가 진행되는 한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본 추출, 설문 설계 등과 같은 사전 준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본 조사 이전에 철저한 예비조사(pilot survey)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조사 대상인 표본이 결정되면 패널 조사가 진행되는 한 동일한 표본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즉 매년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응답거부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이사 또는 분가 등의 이유로 표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표본유지 및 관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셋째, 설문 내용이 방대하며 내용 또한 개인의 소득, 고용상태 등 민감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사과정에서 면접원들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매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조사된 자료는 원자료 형태가 아닌 클리닝(cleaning)과정과 가공과정을 거쳐서 제공되기 때문에 KLIPS 1개년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총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KLIPS 자료의 학문적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 현장실사 및 면접방식

2.1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2.1.1 가구용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가구용 조사 대상은 KLIPS의 원표본 가구인 5,000가구와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 분가가구이다.
- 설문은 반드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면접원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개인용 설문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개인용 설문 대상은 각 연도별 조사대상 가구에 소속된 만15세 이상의 개인이다.
- 이중 1차년도 조사당시 원가구원들이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추적조사한다.

•분가가구원의 조사추적 원칙

- 반드시 추적해야 하는 가구원 - 원가구원(1998년 조사 가구원과 그 자녀)
 - 예) 1998년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원가구로 선정되어 조사됨
 - 2000년 12월 형과 아우가 같이 대전으로 분가하여 나왔음
 - 2001년 3월(4차년도 조사일 이전) 형이 또 부산으로 분가하여 나감
 - 이 경우 대전에 살고 있는 동생은 물론 부산으로 분가한 형도 추적조사해야 함
 - 또한 형은 대전에 살고 있는 동생가구(신규가구)의 분가 가구원이 됨
- 추적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원 - 원가구원이 아닌 경우
 - 예) 1998년 서울에서 사는 한 가구가 원가구로 선정되어 조사됨
 - 2001년 12월 가구주의 아들과 며느리가 잠시 함께 살게 됨(1998년 당시 따로

살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가구원이 아님)

→ 2002년 3월 가구주의 아들과 며느리가 분가하여 나감

→ 이 경우 아들과 며느리는 원가구원이 아니므로 추적조사하지 않음

□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실시되는 기간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 → 직접조사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 → 전화조사

•면접이나 전화조사가 어려우면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 대리응답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 → 대리 응답

•면접이나 전화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

- 예 :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 소년원, 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

→ 개인용 설문지의 응답대상에서 제외 (단, 이들의 인적사항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함)

□ 질문형태는 면접원이 설문문항을 응답자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한다.

□ <표 I -1>은 이러한 조사원칙이 각 연도별로 실제로 어느만큼 지켜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차년도에는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7%나 되었지만, 7차년도에는 1.8%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 그러나, 전화조사는 1~7차년도 기간 내내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다른 조사방식들에서도 거의 마찬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표 I-1>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개인응답자수(신규 포함)	13,321	12,042	11,206	11,051	10,966	11,543	11,66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면접	64.4	77.7	83.0	83.7	83.8	86.3	88.0
(2) 유치	21.7	7.6	5.1	3.3	2.6	1.7	1.8
(3) 전화	1.5	7.4	5.3	4.6	3.9	3.8	4.1
(4) 면접+ 전화	2.6	4.7	3.8	4.9	6.4	5.7	3.7
(5) 유치+ 전화	3.7	2.5	1.4	1.2	1.0	0.9	0.4
(6) 면접+ 유치	2.6	0.0	0.9	1.8	1.0	1.3	1.6
(7) 면접+ 유치+ 전화	0.0	0.0	0.2	0.5	1.3	0.4	0.5

□ <표 I-2>는 대리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 1차년도 조사당시 대리 응답의 비중은 19.7%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약 9.7%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주요 대리응답 사유로는 조사대상자의 귀가가 너무 늦어 면접 자체가 힘들거나, 혹은 수험생을 둔 부모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녀의 면접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I-2> 각 연도별 대리응답 비중

(단위 :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개인응답자수(신규 포함)	13,321	12,042	11,206	11,051	10,966	11,543	11,66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본인	74.0	88.6	88.3	83.3	83.8	83.1	85.7
(2) 대리인	19.7	11.3	8.1	11.0	9.8	11.2	9.7
(3) 본인+ 대리인	0.4	0.0	3.6	5.5	6.4	5.8	4.7

2.1.3 신규조사자용 설문대상과 조사방법

□ 신규조사자란, KLIPS에 처음으로 조사된 개인을 의미한다. 신규조사자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조사방법은 개인용과 동일하다.

- 대상 1 : 작년까지는 만14세였다가 올해 만15세가 된 개인
- 대상 2 : 전년도에 조사대상이었는데 군복무 등의 이유로 조사를 하지 못한 개인
- 대상 3 : 분가로 발생하게 된 신규가구원 중 만15세 이상인 개인

2.2 실사 개요

- 한국노동패널의 현장 실사는 전문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가 1차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약5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연인원 100여명 정도의 전문 면접원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된다. 면접원 교육은 매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지역별로 설문지의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투입되는 면접원의 수는 실질적으로 조사수행에 필요한 면접원수보다 20-30%가량 많은데, 그 이유는 교육을 받은 면접원 중에서 20-30%가량의 면접원이 패널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 탈락하기 때문이다.
- 7차년도 실사에 최종수행한 면접원은 서울지역 23명, 부산 15명, 대전 8명, 대구 15명, 광주 11명으로 총 72명이다. 7차년도 실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성공 사유로는 강력거절이 47.3%이며, 이사/추적 불가가 29.8%, 접촉안됨이 18.7%이다. 면접원이 이들 성공하지 못한 가구를 방문한 횟수는 1회가 가장 많은 22.5%이며, 3회 이상 방문한 횟수가 전체의 60%를 상회하였다.
-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회수된 설문을 모두 재검토한 후,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지나친 무응답, 응답 간 논리적인 오류 등을 체크하여 담당 면접자에게 다시 재설문하도록 하였다.

2.3 조사결과

2.3.1 조사결과 개요

- <표 I -3>은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의 표본유지율과 KLIPS의 표본유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동일한 조사를 반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원표본 가구유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 7차년도까지 KLIPS의 표본 유지율은 77%로 미국의 PSID나 독일의 GSOEP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대우패널은 6차년도에 표본유지율이 44%까지 하락하여 조사가 종료되었다.

<표 I-3> 각국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미국 PSID	독일 GSO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2차 년도	89% (1969)	90% (1985)	88% (1991)	79% (1994)	88% (1999)
3차 년도	86% (1970)	86% (1986)	83% (1992)	66% (1995)	81% (2000)
4차 년도	84% (1971)	85% (1987)	79% (1993)	59% (1996)	77% (2001)
5차 년도	81% (1972)	81% (1988)	75% (1993)	56% (1997)	76% (2002)
6차 년도	79% (1973)	79% (1989)	74% (1994)	44% (1998)	77% (2003)
7차 년도	76% (1974)	78% (1990)	71% (1995)	종료	77% (2004)

주: 영국의 BHPS는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임.

□ 1차년도 조사결과

- 1998년에 실시된 1차년도 KLIPS는 원표본 5,000가구 총인원 17,505명이다.
-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중에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17명이다.

□ 2차년도 조사결과

- 1999년 2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379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7.6%이며 분가표본 130가구를 포함하여 2차 KLIPS에 조사된 총 가구수는 4,509가구이다.
-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제2차 조사는 1차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17명 중에서 11,237명을 재조사하는데 성공하여 84.4%의 원표본가구원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3차년도 조사결과

- 2002년 3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분가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3차 KLIPS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267가구이다.

- 3차 조사의 총 응답 가구원은 11,206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0,740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다.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17명 중에서는 10,540명을 재조사하는데 성공하여 76.2%의 원표본가구원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4차년도 조사결과

- 2001년 4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248가구이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865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4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1,651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0,607명,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다. 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10,332명이며 신규조사자 중 원가구원은 240명이다.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중에서 10,332명을 조사하여 72.4%의 원표본가구원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5차년도 조사결과

- 2002년 5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298가구이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798가구로 76.0%의 표본유지율을 보인다.
- 5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0,966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0,563명, 신규 조사자는 402명이다.

<표 I-4> 1-7차년도 조사결과 비교

	조사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표본 유지율 ³⁾	분가 가구수	가구원 수 ⁴⁾	실사 기간
1차조사('98)	5,000	5,000	100.0	-	13,321	6월~10월
2차조사('99)	4,509	4,379	87.6	130	12,042	7월~12월
3차조사('00)	4,267	4,045	80.9	222	11,206	5월~10월
4차조사('01)	4,248	3,865	77.3	383	11,051	5월~10월
5차조사('02)	4,298	3,798	76.0	500	10,966	4월~9월
6차조사('03)	4,592	3,862	77.2	730	11,543	4월~9월
7차조사('04)	4,762	3,863	77.3	899	11,661	4월~9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가구 중 유효표본가구 + 조사성공 분가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당시 원표본 5000가구 중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임.

3)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중 해당년도에 조사 성공한 유효표본가구의 비임.

4)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 6차년도 조사결과

- 2003년 6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592가구이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862가구로 77.2%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6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0,1543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0,985명, 신규 조사자는 55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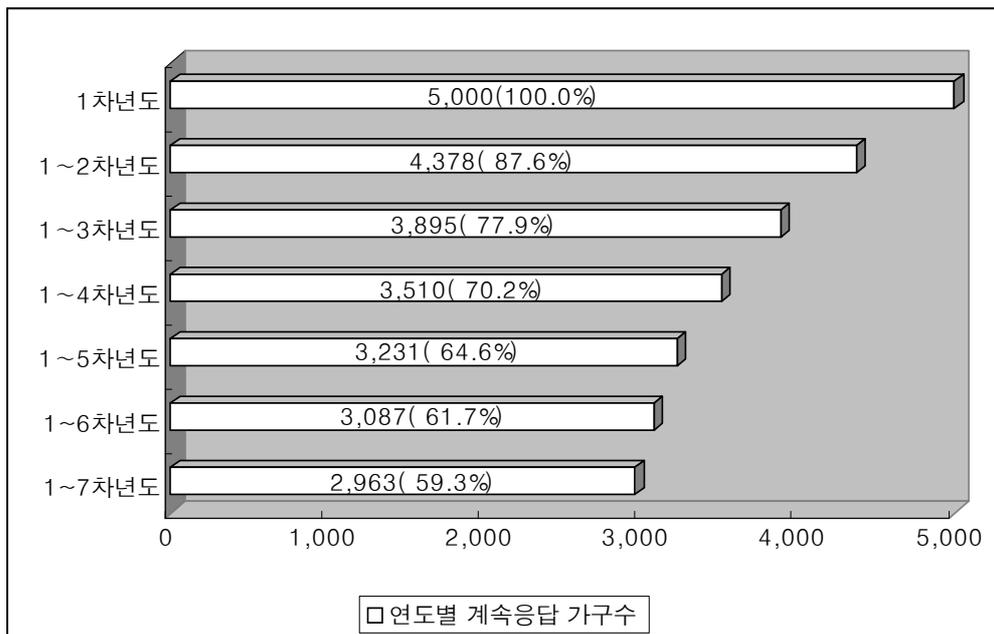
□ 7차년도 조사결과

- 2004년 7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762가구이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863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7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1,661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1,217명,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다.

2.3.2 계속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비중

[그림 I-1] KLIPS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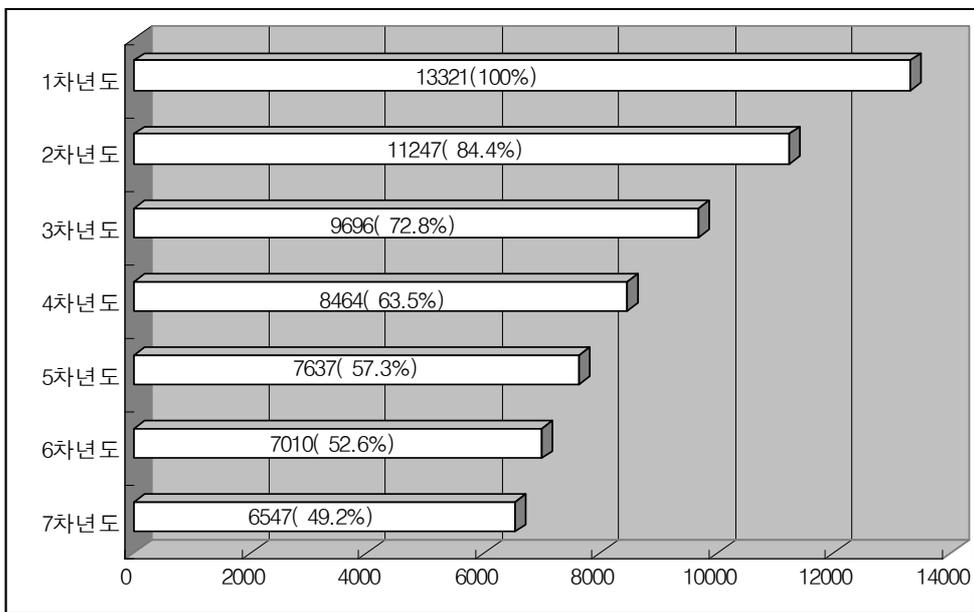
(단위 : 가구, %)



□ [그림 I-1]은 KLIPS 조사 연도별로 계속응답 가구수의 비중이다.

- 1~7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2,963가
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59.3%에 이르고 있다.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표본 비중이 2차년도의 경우 87.6%를 보여주었으며 3
차년도에 77.9%, 4차년도에 70.2%, 5차년도에는 65.1%, 6차년도에 61.7%를 보여
주고 있어 매년 원표본 비중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2] KLIPS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수



□ [그림 I-2]는 계속응답 가구원의 비중이다.

- 1차년도 총 조사 성공가구원 13,321명 중 84.4%인 11,247명이 2차년도 조사에 응
답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는 전년도보다 11.6% 포인트, 4차년도에는 9.3% 포
인트, 5차년도에는 6.2% 포인트, 6차년도에는 4.7% 포인트, 7차년도에는 3.4% 포
인트가 감소한 6,547명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 이처럼 1~7차년도 기간동안 계속응답가구원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소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3 분가가구 및 신규조사자

□ 분가가구란 원표본가구인 5,000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혼인 등의 사유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신생 가구를 의미한다.

- 분가가구에는 원표본가구원이 1인이라도 포함된 경우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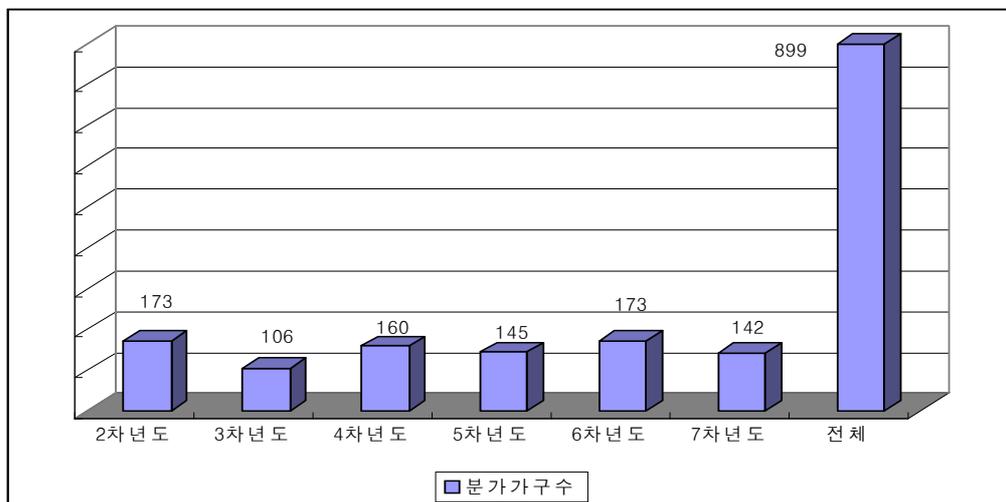
□ 분가가구 실사 결과

- KLIPS 7차년도 조사성공가구(4,762가구) 중에는 원표본 3,863가구 이외에 1차년도 조사당시 원표본가구는 아니었지만, 2차년도 이후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에 진입한 비원표본 899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 이들 분가성공가구 중 2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73가구이며, 3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06가구, 4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0가구, 5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45가구, 6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73가구, 7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42가구로 나타났다.

[그림 I-3] 7차년도 비원표본 가구 수

(단위: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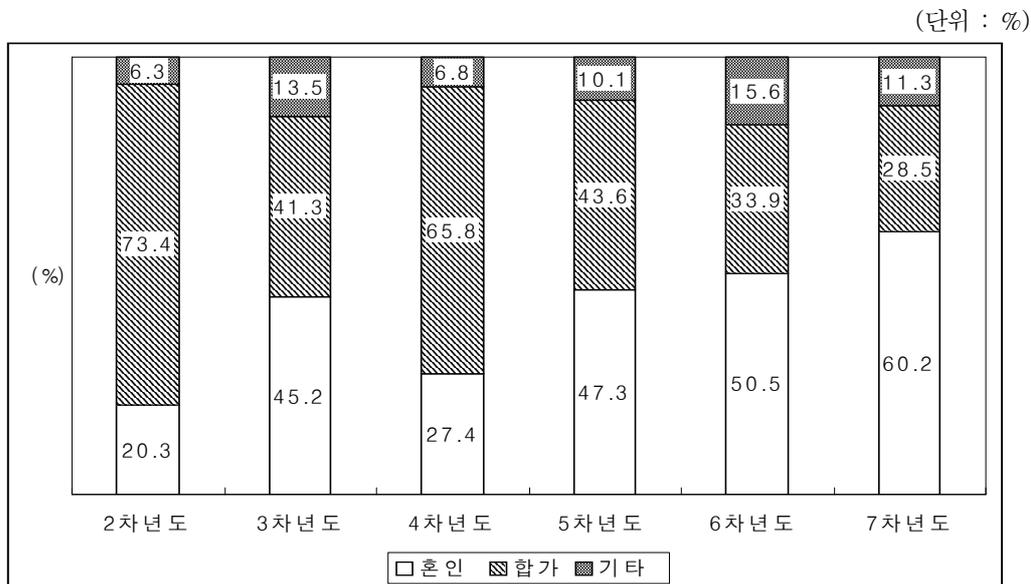


□ 신규조사자란 KLIPS에 처음으로 조사되는 개인으로서, 만15세가 되어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되었거나 전년도에 조사되지 못하여 처음으로 조사된 개인 혹은 분가 등의 사유로 처음으로 조사된 개인을 의미한다.

□ 신규조사자 실사 결과

- 7차년도 KLIPS의 신규 조사자는 444명으로 이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242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조사된 가구원은 202명이다. 신규 조사자의 진입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 번째는 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들은 1-6차 조사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7차년도 조사당시 만 15세가 되어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두 번째는 비표본가구원의 진입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비표본 가구원이 새롭게 15세가 되는 등의 이유로 처음 개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와, 혼인이나 합가로 인해 7차년도에 새롭게 조사대상자로 추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조사자 123명 중에서 혼인이 74명, 합가가 35명, 기타 1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I-4] 신규조사자의 특성(2-7차년도)



- [그림 I -4]를 통해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추가이유 중 혼인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합가로 인한 추가는 감소하고 있다.
- 먼저 혼인의 경우 2차년도에는 20.3%에 불과하였으나 4차년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차년도에는 60.2%를 차지하였으며, 반대로 합가는 1차년도에 73.4%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7차년도에는 2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4 비성공 가구의 특성

- 7차년도까지 파악된 전체 조사대상가구는 모두 6,382가구이다.
- 이중 비성공가구는 2003년에 신규로 분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120가구와 기존 조사대상이면서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1,402가구를 합해 1,522가구로 집계되었다.
- <표 I -5>는 7차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지역별로 비성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8.5%)이었으며, 다음으로 비성공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31.4%), 대구(31.4%), 충북(30.1%) 지역으로 나타났다.
 - 원표본 4,950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도 비성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3.8%)이며, 다음으로 다음으로 대구(29.8%), 충북(29.8%), 서울(2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7차년도 비성공 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수, %)

비성공 이유	전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사례수	1535	486	121	125	38	86	37	20
강력거절	43.9	36.0	57.0	50.4	60.5	38.4	62.2	55.0
이사/추적불가	27.8	29.6	30.6	23.2	15.8	30.2	13.5	30.0
접촉 안됨	17.3	24.5	3.3	17.6	13.2	14.0	18.9	0.0
사망	0.7	0.2	1.7	0.0	2.6	0.0	0.0	0.0
이민	1.2	0.4	1.7	0.8	0.0	1.2	0.0	0.0
병환	0.1	0.0	0.0	0.0	0.0	1.2	0.0	5.0
합가	1.2	0.8	1.7	0.0	0.0	0.0	0.0	0.0
기타	1.3	1.4	0.0	0.0	0.0	5.8	0.0	0.0
분가미조사	6.5	7.0	4.1	8.0	7.9	9.3	5.4	1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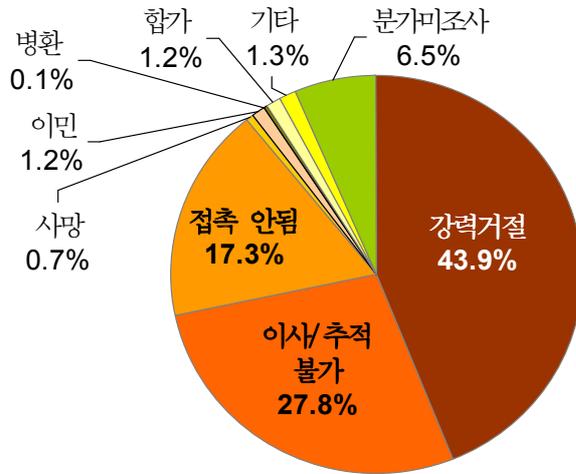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비성공 이유
262	65	43	26	56	31	64	72	1535	사례수
36.3	38.5	65.1	84.6	48.2	38.7	48.4	51.4	43.9	강력거절
26.7	44.6	11.6	11.5	32.1	32.3	28.1	29.2	27.8	이사/추적불가
24.8	9.2	9.3	0.0	10.7	16.1	10.9	2.8	17.3	접촉 안됨
1.1	0.0	2.3	0.0	0.0	0.0	1.6	1.4	0.7	사망
1.5	0.0	4.7	0.0	1.8	0.0	3.1	2.8	1.2	이민
0.0	0.0	0.0	0.0	0.0	0.0	0.0	0.0	0.1	병환
1.1	0.0	0.0	0.0	5.4	9.7	3.1	1.4	1.2	합가
1.9	3.1	0.0	0.0	0.0	0.0	0.0	1.4	1.3	기타
6.5	4.6	7.0	3.8	1.8	3.2	4.7	9.7	6.5	분가미조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 [그림 1-5]는 7차년도 비성공가구의 비성공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강력거절’은 43.9%로 지난조사보다 약 2.7% 포인트정도 하락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사를 하였으나 연락처나 주소를 알수 없어서 추적할 수 없었던 ‘이사/추적불가’가 27.8%, ‘접촉안됨’이 17.3%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민과 합가가 각각 1.2%, 사망이 0.72%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림 1-5] 비성공 사유

(단위: %)



II. 표본설계 및 가중치

1. 표본설계방법 및 표본추출과정

1.1 표본틀과 모집단

□ 표본틀

- KLIPS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이하 97고특)에서 사용한 1995년 인구주택총 조사의 10%표본조사구인 전국의 21,938조사구 중에서 제주도의 263조사구를 제 외한 21,675조사구를 1차대상으로 했다.
- 이 중에서 군부지역(2,650조사구)을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시의 동부 17,353조 사구와 시의 읍면부 1,672조사구)의 19,025조사구가 KLIPS의 표본틀이다.

□ 모집단

- KLIPS표본의 모집단은 전체 도시 조사구(시의 동부+ 시의 읍면부)에 거주하는 가 구이다.

1.2 표본추출과정

□ KLIPS의 표본추출방법은 1단계에서 조사구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가구를 선정하는 2단계화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다.

- 이를 위해 먼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만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 내에서는 97고특의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5가구를 무작위 추 출(random sampling)하는 원칙을 정하였다.

□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1차 층화 과정으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동일지역 내에서는 1997년 고용 구조 특별조사의 층화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등 15개로 구분하였으며, 이렇게 구분된 지역 내에서 97고특의 층화방법을 이용하여 조사구를 층화하였다.
- 둘째, 1단계 조사구 추출 과정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경우 층화된 조사구들을 인구주택총조사 10%표본조사구에서의 전국도시조사구(19,025개) 대비 해당 지역의 도시조사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출할 도시조사구수를 결정하였다.
- 셋째, 2단계 가구추출 과정으로 추출된 조사구 중에서 97고특에서 조사에 성공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의 읍면부 지역에서는 6가구, 기타지역은 5가구를 추출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추출하여야 할 조사구수보다 97고특에서 사용한 조사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조사구에 비해 1가구를 더 추출하였으며, 경기도의 동부의 4개 지역에서 5가구 대신 6가구를 추출하였다.

□ 최종적으로 추출된 KLIPS의 5,000가구는 시의 동부 4,582가구 + 시의 읍면부 416로 구성된다. 그러나 표집단계를 거친 목표조사가구는 실사과정에서 표본 조정을 거친다.

<표 II-1> 최종 추출된 조사구와 조사가구

	전체 모집단		10%표본조사구		표본		추출률(%)	
	조사구	가구수	조사구	가구수	조사구	가구수	조사구	가구수
전국 시부	190,250	11,100,320	19,025	1,110,032	951	5,000	0.4999	0.0450
시의 동부	173,530	10,098,910	17,353	1,009,891	871	4,582	0.5019	0.0454
시의 읍면부	16,720	1,001,410	1,672	100,141	80	418	0.4785	0.0417

□ 2단계에서 추출한 목표표본가구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구별로 접촉한 가구수는 5가구~20가구이다. 목표표본가구 중에 11.3%인 563가구는 이사를 하였으며, 이중 40.1%는 추적 조사에 성공하였다.

※ 최초 표본 추출 단계에서 군부는 제외되었으나, 이후 이사가구 추적 조사 과정에서 군부로의 이주 가구가 발생하여 최종 표본에는 군부지역 가구가 포함되었다.

□ 최종단계에서 대체되어 설문에 응답한 표본은 전체 조사가구의 24.5%인 1,227가구이다. <표Ⅱ-2>는 대체과정을 거친 조사구별 최종 응답가구의 가구수와 가구비율이다.

<표 Ⅱ-2> KLIPS 1차년도 조사가구 개요

	총접촉 가구수	최초접촉 가구수	최초성공 가구수	대체가구 접촉수	대체성공 가구수	최초성공 가구비율	대체성공 가구비율
서울	2,109	1,362	954	747	408	70.0	30.0
부산	600	485	391	115	94	80.6	19.4
대구	452	320	239	132	81	74.7	25.3
인천	414	295	226	119	69	76.6	23.4
광주	197	160	134	37	26	83.8	16.3
대전	188	155	127	33	28	81.9	18.1
울산	150	120	100	30	20	83.3	16.7
경기	1,217	853	617	364	236	72.3	27.7
강원	200	130	94	70	36	72.3	27.7
충북	145	110	86	35	24	78.2	21.8
충남	152	125	107	27	18	85.6	14.4
전북	273	200	151	73	49	75.5	24.5
전남	164	125	101	39	24	80.8	19.2
경북	356	270	205	86	65	75.9	24.1
경남	359	290	241	69	49	83.1	16.9
전국	6,976	5,000	3,773	1,976	1,227	75.5	24.5

2. 가중치 부여방식 및 사용방법

2.1 1차년도 가중치 부여

2.1.1 가중치 부여방법

□ KLIPS는 패널조사이나 1차 조사는 횡단면조사이므로 1차년도의 가중치는 일반적인 횡단면 조사에서의 가중치부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차년도 이후에는 횡단면가중치(cross-sectional weights) 뿐만 아니라 종단면가중치(longitudinal weights)가 필요하기 때문에 1차년도 횡단면가중치를 부여할 때 2차 웨이브 이후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횡단면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과정을 거친다.

- 1단계 : 표본추출확률(selection probability) 계산
 - 대부분의 횡단면조사는 표본추출확률이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표본추출확률을 계산한다. 이 때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부분포함(incomplete coverage)문제도 동시에 고려된다.
- 2단계 : 무응답(nonresponse) 조정
 - 무응답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변수, 예를 들면 표본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료를 통해 표본을 분할하는 방법, 모든 표본의 알려진 성질을 이용하여 회귀분석(또는 로짓분석)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KLIPS에서는 응답가구원과 무응답 가구원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을 설정하여 응답확률추정치(fitted probability)를 구하였다.
- 3단계 :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 사후층화과정은 표본 데이터의 한계분포를 모집단의 한계분포와 같게 조정하는 과정이며, 표본들의 과소 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2.1.2 표본추출확률의 계산

□ 표본조사구 추출확률

- 지역별 도시조사구의 추출확률은 지역별 전체조사구 중에서 도시조사구의 비율을 이용하며, 도시조사구중에서 표본조사구로 추출될 확률은 도시조사구 중에서 표본조사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지역별 표본조사구 추출확률
 - ① 서울 및 6대 광역시 : $0.1 * (\text{해당 시의 표본조사구수} / \text{해당시의 조사구수})$
 - ② 도의 동부 : $0.1 * (\text{해당 도의 동부 표본조사구수} / \text{해당 도의 동부 조사구수})$
 - ③ 도의 읍면부 : $0.1 * (\text{해당 도의 읍면부 표본조사구수} / \text{해당 도의 읍면부 조사구수})$
- 최종표본가구 추출확률 = 총접촉시도가구/조사구내 97고특응답가구수
- 가구추출확률 = 조사구추출확률 × 최종표본가구 추출확률

2.1.3 응답률과 면접확률의 계산

□ 일반적으로 응답률조정을 위해서는 무응답가구에 대한 특성과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KLIPS 1차년도 조사의 경우 무응답가구의 지역(광역시 또는 기타 도의 동부 및 읍면부) 또는 ED(Enumeration districts : 조사구)를 이용하여 응답률을 계산할 수 있다. KLIPS 1차웨이브의 응답률은 ED내에서 응답자와 무응답자의 특성이 같다는 가정 하에 ED내에서의 응답률을 면접확률로 이용하였다.

•응답률 = 최종조사가구수/ED내 총접촉가구수

2.1.4. 1차년도 가중치의 계산

□ 추출확률과 응답확률을 모두 고려한 가구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서울 및 6대 광역시 : $0.1 * (\text{표본조사가구수} / \text{도시조사가구수}) * (\text{ED내 접촉가구수} / \text{ED내 고특조사 가구수}) * (\text{최종 성공가구수} / \text{ED내 접촉가구수})$

•도의 동부 : $0.1 * (\text{표본조사가구수} / \text{해당 도의 동부 조사가구수}) * (\text{ED내 접촉가구수} / \text{ED내 고특조사가구수}) * (\text{최종 성공가구수} / \text{ED내 접촉가구수})$

•도의 읍면부 : $0.1 * (\text{표본조사가구수} / \text{해당 도의 읍면부 조사가구수}) * (\text{ED내 접촉가구수} / \text{ED내 고특조사가구수}) * (\text{최종 성공가구수} / \text{ED내 접촉가구수})$

□ 추출된 가구에서는 모든 가구원이 응답하였으므로 동일 가구내에서는 가구가중치와 가구원가중치는 동일하게 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감안하면 특정한 가구의 가중치는 가구추출확률과 가구가 속한 지역의 응답률의 곱의 역수로 나타나게 된다.

2.2. 2차년도 이후 가중치 부여

2.2.1. 종단면조사에서 가중치 부여시 고려사항

□ 종단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표본탈락(panel attrition)이 발생한다. 표본탈락은 가구

차원에서 발생하거나 개인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도 발생할 수 있다. 항목무응답의 경우는 가중치부여 방법보다는 보정(imputation)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 결혼, 이민 등으로 인해 표본가구에 새로운 개인이 포함되거나 탈락하기도 하며, 표본가구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구원인 비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종단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가구원 구성이 달라지게 되어 종단면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구의 개념이 모호해진다.

2.2.2 종단면 가중치 부여 방법론

- KLIPS의 경우, 미국의 PSID와 동일한 추적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PSID와 동일하게 Duncan(1995)의 가중치 부여방법을 따르고 있다. Duncan(1995)의 가중치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조사년도에서 가구차원의 가중치를 구한다.
 - 이 때 표본추출과정에서 사용된 상이한 추출확률을 감안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상이한 응답률로 보정한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집단의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비율조정(ratio estimating procedure)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이 과정은 횡단면조사의 가중치 부여방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최초 조사년도에서 작성된 가구가중치를 연령이나 응답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원의 가중치로 사용한다.
- 2차 조사 이후부터는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한다.
 -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모두 이용한다. 예를 들어 응답여부를 나타내는 로짓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을 추정한 후 이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들의 응답확률을 추정하며, 이 응답확률의 역수를 최초 개인가중치에 곱하여 2차 조사에서 무응답조정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한다.
 - 이 때 2차 조사에서는 존재하지만 1차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았던 비표본가구원(non sample adults)이나 1차 조사 이후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의 경우는 개인차

원의 무응답조정과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2차 조사에서 산출된 가구원 가중치의 평균을 이용하여 2차 조사의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 평균을 구할 때는 원시가구원의 가구원가중치의 합을 전체 가구원수(비표본가구원+표본가구원)로 나누어 계산한다. 원시표본가구원과의 결혼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한다. 새롭게 태어난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가중치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이들이 응답대상 가구원이 되었을 때는) 이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가구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 이러한 가중치부여과정을 거치게 되면 가구 차원의 무응답조정가중치가 산정되며 최초 조사에 존재했던 가구원(즉 원시표본가구원)의 개인차원의 무응답조정가중치가 산출된다. 비표본가구원의 경우는 0의 개인가중치를 가지며 새롭게 태어난 가구원의 경우에는 이들이 태어난 조사년도에서의 가구가중치를 개인가중치로 부여받게 된다.
- 3-7차 조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한다.
 - 1차 웨이브를 기준으로 3-7차 조사에 존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진입과 탈락을 반복하는 원시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 가능하며,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당해 조사년도의 가구가중치의 평균을 부여받게 된다.
- 가구차원의 분석은 가구가중치를 사용하며, 개인차원의 분석은 개인가중치 또는 가구가중치를 사용한다.

2.3 가중치의 스케일 조정

□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쳤다.

-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스케일 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2000-2005)의 5년간 총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KLIPS 1차년도 가중치합계에서부터 매년 곱해주어 산출하였다.

-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농가 생산가능인구 (1998-2002)의 5년간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가중치 합계에 평균증가율을 매년 곱해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 이러한 계산과정을 거친 최종 가중치 값은 <표 II-3> 및 <표 II-4>와 같다.
- <표 II-3>을 통해 가구가중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 당시 1가구당 평균적으로 2,255가구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차년도 이르면 1가구당 평균적으로 약 2,599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응답 패턴에 따라 상이한 가중치들이 부여되므로 조사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표준편차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 가구가중치의 특성

(단위: 명)

	사례 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1차년도	5,000	11,276,899	2,255	415
2차년도	4,508	11,453,518	2,541	575
3차년도	4,266	11,632,899	2,727	721
4차년도	4,247	11,815,100	2,782	850
5차년도	4,298	12,000,165	2,792	946
6차년도	4,592	12,188,092	2,654	1,001
7차년도	4,762	12,378,982	2,599	1,063

- <표 II-4>에서는 개인 가중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각 연도내에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의 평균값은 동일하다. 또한, 각각의 가중치가 복원하는 모집단의 수(아래 표에서의 합계치)는 동일하다.
 - 그러나,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의 표준편차는 서로 다르며, 횡단면 가중치보다는 종단면 가중치의 변동성(표준편차)이 더욱 크다. 예컨대, 원가 구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횡단면 가중치 값을 가지지만, 종단면 가중치는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종단면 가중치의 분산이 더욱 크다.
 - 가구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개인 가중치의 분산(표준편차) 역시 조사차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표 II-4> 개인가중치의 특성

(단위: 명)

	개인 사례 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횡단면	종단면
1차년도	13,321	30,039,370	2,255	416	-
2차년도	12,039	30,503,448	2,533	577	676
3차년도	11,205	30,974,696	2,764	726	879
4차년도	11,051	31,453,224	2,846	854	1,056
5차년도	10,966	31,939,145	2,913	964	1,215
6차년도	11,543	32,432,573	2,810	1,029	1,314
7차년도	11,661	32,933,624	2,824	1,117	1,446

2.4 가중치 변수명 및 제공형태

□ 1-7차년도 가중치의 변수명은 다음과 같다.

- 7차년도 release 이전에는 KLIPS 홈페이지를 통해 가중치를 제공해 왔으나, 이
번부터 해당 데이터 셋에 통합되어 제공된다.
- 가구가중치는 각 연도별 가구데이터에, 개인가중치는 각 연도별 개인데이터에
각각 <표 II-5>에 제시된 것과 같은 변수명으로 제공된다.

<표 II-5> 1-7차년도 가중치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가구 가중치	w1_h	w2_h	w3_h	w4_h	w5_h	w6_h	w7_h
개인 횡단면 가중치	w1_p	w2_pc	w3_pc	w4_pc	w5_pc	w6_pc	w7_pc
개인 종단면 가중치		w2_pl	w3_pl	w4_pl	w5_pl	w6_pl	w7_pl

Ⅲ. 자료의 주요 특성

1. 설문지 구성

- KLIPS의 설문지는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나뉘어진다. 개인용 설문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용 설문지로 나뉘어지며, 취업자용 설문은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으로 나뉘어진다.
- 1998년 1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설문과 개인용 설문으로 나뉘고, 개인용 설문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2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조사와 개인용 설문, 신규용 설문으로 구성되며 개인용 설문은 유형설문과 개인공통 설문으로 구성된다. 2000년 3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개인용, 신규용, 부가조사(청년층)로 구성되며, 개인용 설문은 유형설문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설문으로 구성된다. 2001년 4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개인용, 신규용, 부가조사(건강과 은퇴)설문으로 구성되며 개인용 설문은 유형설문과 취업자, 미취업자 설문으로 구성된다. 5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개인용, 신규용 설문으로 구성되며, 개인용 설문은 유형설문과 취업자, 미취업자 설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5차년도 조사에서는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6차년도 조사는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단, 6차년도에는 ‘중고령자 부가조사’ 설문이 추가되었다.
- 1999년 2차년도 조사부터 개인의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 및 이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자리별 유형 설문을 개발하였다. 유형설문은 지난 조사시의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지속여부를 토대로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가구설문이 가구에 관한 정보를 담고 개인설문이 개인 정보를 담고 있다면 유형설문은 개인이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응답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일자리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표 III-1> 1-7차년도 KLIPS 설문지의 구성

구 성	
1차년도(1998)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임금근로자 개인 비임금근로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2차년도(1999)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유형 ①~⑧ 개인공통
	신규용 설문
3차년도(2000)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유형 ①~⑧ 임금근로자 개인 비임금근로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신규용 설문
	부가조사 설문(청년층)
4차년도(2001)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유형 ①~⑧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신규용 설문
	부가조사 설문(건강과은퇴)
5차년도(2002)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유형 ①~⑧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신규용 설문
6차년도(2003)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유형 ①~⑧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신규용 설문
	부가조사 설문 (중고령자 부가조사)
7차년도(2004)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유형 ①~⑧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신규용 설문
	부가조사 설문 (근로시간과 여가)

□ <표 III-2>는 일자리 지속을 통한 유형설문의 판별 방법이다.

- 지난 조사시 보유하고 현재에도 지속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 ①,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③의 설문을 받는다.
- 지난 조사시 보유하고 현재는 지속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②,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④의 설문을 받는다.
- 지난 조사 이후 시작되었고 현재도 지속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⑤,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⑦의 설문을 받으며,
- 지난 조사 이후 시작되었고 현재 조사 이전에 끝난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⑥,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⑧의 설문을 받는다.

<표 III-2> 일자리 지속을 통한 유형설문의 판별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여부	종사상 지위	현재 계속 여부	유형
있었다	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①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②
	비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③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④
있었다	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⑤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⑥
	비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⑦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⑧

●User notes : 유형 설문지는 개인단위가 아닌 일자리 단위로 성립되는 설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일자리 경력에 따라 복수의 유형 설문이 가능하며, KLIPS에서는 한 개인에게 한 유형 당 최대 3개까지의 유형설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유형설문의 내용 중 현재 지속되는 주된 일자리의 정보는 개인 데이터의 '주된 일자리'에 수록되며, 유형설문의 모든 내용은 직업력 자료에 수록된다.

□ KLIPS는 3차년도 조사부터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3차년도에는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이동을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청년층’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4차년도에는 만4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사항과 은퇴와 노후 생활을 파악하고자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 6차년도에는 만 5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노동시장활동과 은퇴, 그리고 노후생활 및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는 ‘중고령자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 7차년도에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 구성

□ KLIPS 조사는 설문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 구성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가공)하였다. 이중 가구용, 신규조사자용, 부가조사자용 설문지와 가구용 자료, 신규 자료,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은 원래의 설문지와 그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개인용 설문(유형설문과 개인공통 설문)의 내용은 개인용 자료와 직업력 자료에 담겨져 있으며, 유형설문의 내용이 별도의 자료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 KLIPS의 각 연도별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구자료 : 모든 조사년도별로 만들어지며 가구조사용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된다.
- 개인자료 : 모든 조사년도별로 만들어지며, 유형설문지,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설문지 등을 토대로 구성된다.
- 신규자료 : 2차년도 이후부터 만들어지며, 신규조사용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된다.
- 부가조사자료 : 3차년도 자료와 4차년도 자료, 6차년도 자료, 7차년도 자료에 포함되며, 부가조사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된다.
- 직업력자료 : 직업력 자료는 유형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개인의 모든 직업력(work history)를 누적한 형태의 자료이므로 다른 자료들과는 달리 연도별 자료

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자료만이 존재한다.

※ 1-7차년도 Release 자료에서 개인자료는 신규응답자들을 포함하는 케이스들이다. 즉, 신규자료로 제공되는 케이스들은 개인자료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 14세 당시의 성장지 등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자료 분석시 개인자료와 신규자료를 merge할 필요가 없다.

<표 III-3> 1-7차년도 KLIPS 자료의 구성

		1차년도 (1998)	2차년도 (1999)	3차년도 (2000)	4차년도 (2001)	5차년도 (2002)	6차년도 (2003)	7차년도 (2004)
가구용 자료		KLIPS01H	KLIPS02H	KLIPS03H	KLIPS04H	KLIPS05H	KLIPS06H	KLIPS07H
개인용 자료		KLIPS01P	KLIPS02P	KLIPS03P	KLIPS04P	KLIPS05P	KLIPS06P	KLIPS07P
유형 ①~⑧		×	○	○	○	○	○	○
개인 공통	취 업 자	임금 근로		○		○	○	○
		비임금 근로	○	○	○	○	○	○
	미취업자	○		○	○	○	○	○
신규용 자료		×	KLIPS02N	KLIPS03N	KLIPS04N	KLIPS05N	KLIPS06N	KLIPS07N
부가조사 자료		×	×	KLIPS03Y	KLIPS04A	×	KLIPS06A	KLIPS07A
직업력 자료		KLIPS07W						

3. 조사내용

3.1 조사내용

□ KLIPS는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이므로 기본적으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설문 질문이 반복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만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조사년도별 조사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 <표 Ⅲ-4>는 1차 조사 내용을 설문지 구성별로 정리한 것이다. 1차년도 설문은 가구용, 임금근로자용, 비임금근로자용, 미취업자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4> 1차년도(1998년) 조사 내용

설문지 구성	조사내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의 인적 사항 ▪가구원의 지난 1주간 활동 ▪자녀 보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상태 ▪가구의 소득 ▪최근의 경제위기(IMF)에 관한 견해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지 및 성장지 ▪직업 및 산업과 일자리 형태와 규모 ▪일자리의 근무 형태 및 규모 ▪일자리의 근로시간 ▪직무 만족도 ▪주된 일자리의 임금관련 사항 ▪노동조합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일자리 취업방법과 취업경로 ▪부업/아르바이트관련 사항 ▪이전직장관련 사항 ▪현재 직장 지속여부와 희망하는 일자리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정규교육관련 사항 ▪경제위기 후 변화사항
비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지 및 성장지 ▪일자리의 근로시간 ▪창업 방법 ▪이전 직장 관련 사항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경제위기 후 변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및 산업과 일자리 규모 및 매출액과 소득 ▪직무 만족도 ▪부업/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현재 직장 지속여부와 희망하는 일자리 ▪정규교육관련 사항
미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상황 ▪구직활동관련 사항 ▪이전직장 및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자리 관련 사항 ▪만 15세 이후 일자리 경력 ▪정규교육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하는 일자리관련 사항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경제위기 관련 사항

□ 2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유형관별을 위한 예비조사, 유형, 개인용 공통, 신규조사자용으로 구성되며 설문지의 구성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Ⅲ-5>과 같다.

□ 3차년도 조사내용은 <표 Ⅲ-6>, 4차년도 조사내용은 <표 Ⅲ-7>, 5차년도 조사내용은 <표 Ⅲ-8>, 6차년도 조사내용은 <표 Ⅲ-9>, 7차년도 조사내용은 <표 Ⅲ-10>과 같다.

<표 III-6> 3차년도(2000년) 조사 내용

설문지 구성	내 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사항 ▪주거관련 사항 ▪자녀교육관련 사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겪는 항목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중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 ~ 유형⑧	유형 ①,②, ⑤,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 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관련 문항 ▪근로시간관련 사항 ▪임금관련 사항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일자리의 노동조합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구직활동 관련 사항
	유형 ③,④, ⑦,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일자리의 근로시간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구직활동관련 사항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상태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관련 사항 ▪직무만족도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구직활동,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인 사회계층 소속감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결망 	
비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상태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직무만족도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구직활동 및 구직 시 어려움,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사회보험 수급관련 문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인 사회계층 소속감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결망 	
미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결망 	
청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의 유형 ▪재학 중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실습 유무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졸업(중퇴)이후 구직활동 및 취업 관련 사항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산업, 직업 및 일자리 형태와 규모 ▪첫 일자리의 소득 및 근로 시간,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첫 일자리 이후 구직활동 및 취업 여부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설문지의 모든 내용 + 회고적 일자리 	

<표 III-7> 4차년도(2001년) 조사 내용

설문지 구성	내 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의 인적 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사항 ▪주거 관련 사항 / ▪자녀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사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 유형② 유형⑤, 유형⑥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관련 변경사항 ▪일자리 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관련 사항 ▪근로시간관련 사항 ▪임금관련 사항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일자리의 노동조합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구직활동 관련 사항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관련 변경사항 ▪일자리 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관련 사항 ▪근로시간관련 사항 ▪임금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일자리의 노동조합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구직활동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관련 변경사항 ▪일자리 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관련 사항 ▪근로시간관련 사항 ▪임금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일자리의 노동조합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구직활동 관련 사항 		
유형③, 유형④ 유형⑦, 유형⑧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일자리의 근로시간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사업체 시작 동기 및 창립시기, 시작할 당시의 총 자본금 ▪창업훈련 경험 유무 및 창업 당시의 어려움 ▪사업체 운영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인 목표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조사 항목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구직활동관련 사항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일자리의 근로시간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사업체 시작 동기 및 창립시기, 시작할 당시의 총 자본금 ▪창업훈련 경험 유무 및 창업 당시의 어려움 ▪사업체 운영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인 목표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구직활동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일자리의 근로시간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사업체 시작 동기 및 창립시기, 시작할 당시의 총 자본금 ▪창업훈련 경험 유무 및 창업 당시의 어려움 ▪사업체 운영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인 목표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구직활동관련 사항 		
취업자 개인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상태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정규교육 관련 사항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관련 사항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상태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정규교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관련 사항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상태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정규교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관련 사항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미취업자 개인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정규교육 관련 문항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정규교육 관련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정규교육 관련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건강과 은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건강상태와 일자리 관련 사항 ▪장애/장해 관련 사항 ▪장애를 제외한 질병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이용 경험 ▪흡연, 음주 여부 등 기타 건강 관련 사항 ▪은퇴 여부 및 은퇴 계획 ▪은퇴 준비 여부 및 은퇴 이후의 변화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경험 ▪건강 관련 보험 및 보험료, 의료비 관련 사항 ▪부양 또는 피부양 여부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 시기 및 은퇴 당시의 자산규모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경험 ▪건강 관련 보험 및 보험료, 의료비 관련 사항 ▪부양 또는 피부양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 시기 및 은퇴 당시의 자산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경험 ▪건강 관련 보험 및 보험료, 의료비 관련 사항 ▪부양 또는 피부양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 시기 및 은퇴 당시의 자산규모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설문지의 모든 내용 + 회고적 일자리 		

<표 III-8> 5차년도(2002년) 조사 내용

설문지 구성	내 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인적 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 ▪ 주거 관련 문항 ▪ 자녀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문항 ▪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중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 유형② 유형⑤, 유형⑥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근로계약관련 문항 ▪ 근로시간관련 문항 ▪ 임금관련 문항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 일자리의 노동조합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구직활동 관련 문항
유형③, 유형④ 유형⑦, 유형⑧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관련 문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현재 하는 사업의 가치(금액으로 환산) ▪ 사업체의 장기적 전망 ▪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의사 ▪ 사업체 시작당시 비용 혹은 투자액 ▪ 사업비용 조달방법 ▪ 창업과정의 어려움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근로시간관련 사항 ▪ 직무만족도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사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미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문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설문지의 모든 내용 + 회고적 일자리

<표 III-9> 6차년도(2003년) 조사 내용

설문지 구성	내 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인적 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 ▪ 주거 관련 문항 ▪ 자녀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문항 ▪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 유형② 유형⑤, 유형⑥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일자리의 노동조합 ▪ 근로계약관련 문항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근로시간관련 문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임금관련 문항 ▪ 구직활동 관련 문항
유형③, 유형④ 유형⑦, 유형⑧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현재 하는 사업의 가치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사업체의 장기적 전망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의사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사업체 시작당시 비용 혹은 투자액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사업비용 조달방법 ▪ 구직활동관련 문항 ▪ 창업과정의 어려움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근로시간관련 사항 ▪ 직무만족도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사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미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문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중고령자 부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상태의 판별, 은퇴시기, 은퇴사유, 은퇴계획 ▪ 현재 취업유무, 현재일자리의 정년유무, 정년시기 ▪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 및 만 45세 당시의 일자리 특성 ▪ 현재의 소득원천, 연금 및 보험 납부액 ▪ 자녀 수,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가족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 ▪ 부모님 부양 주체, 이웃과의 교류, 여가활동, 건강상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설문지의 모든 내용 + 회고적 일자리

<표 III-10> 7차년도(2003년) 조사 내용

설문지 구성	내 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인적 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 ▪ 주거 관련 문항 ▪ 자녀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문항 ▪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 유형② 유형⑤, 유형⑥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일자리의 노동조합 ▪ 근로계약관련 문항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근로시간관련 문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임금관련 문항 ▪ 구직활동 관련 문항
유형③, 유형④ 유형⑦, 유형⑧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관련 문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현재 하는 사업의 가치 ▪ 사업체의 장기적 전망 ▪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의사 ▪ 사업체 시작당시 비용 혹은 투자액 ▪ 사업비용 조달방법 ▪ 창업과정의 어려움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근로시간관련 사항 ▪ 직무만족도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사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 차별여부 및 위협에 대한 태도
미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문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 차별여부 및 위협에 대한 태도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평일근무 기준 세부조사)과 휴가 ▪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주5일제 시행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조사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임금/비임금 공통) ▪ 여성의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 생산시간표를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누어 조사(모든 응답자) ▪ 여가의 내용, 소요시간, 지출 경비, 독서, 종교활동(모든 응답자) ▪ 미취업자의 여가계획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설문문의 모든 내용 + 회고적 일자리

3.2 변경사항

□ 2차년도(1999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가구용 설문

- 추가 : 지난 조사 이후 변동가구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 분가, 사망한 가구원 관련 사항, 가구의 자산 및 부채
- 삭제 : 자녀교육관련 사항

•개인용 설문

- 구조변경 : 일자리의 지속여부와 임금/비임금 여부를 기준으로 8개의 유형 설문 구성 임금, 비임금, 미취업자 개인에 관한 자료를 '개인용 공통'으로 통합함.
- 추가 : 사회보험급여수급 관련 사항
- 삭제 : 출생지 및 성장지, 정규교육

•신규용 설문 추가

□ 3차년도(2000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가구용 설문

- 추가 : 자녀교육관련 사항, 가구단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항목

•개인용 설문

- 구조변경 : 개인용 공통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설문으로 나눔.
- 추가 : 근로계약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유형설문)
고용상의 특성
- 파견 근로, 관리 감독 여부, 승진경험과 가능성, 부가 급여 및 복리후생(임금근로자용)
주관적인 계층 소속감,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줄망(임금, 비임금 공통)
- 삭제 : 부업과 직업훈련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부가조사

- '청년용' 부가조사 실시
- 부가조사는 3차년도 조사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년도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차년도(2001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가구용 설문

- 추가 : 가족관계 및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와 저축액
- 삭제 : 건강상태

•개인용 설문 :

- 구조변경 : 임금·비임금용 설문 → 취업자 공통으로 통합함. 따라서 개인용 설문은 취업자 설문과 미취업자 설문으로 구성됨.
- 추가 : 정규/비정규직 여부, 변경여부 및 변경 시기, 사업체명 및 위치(유형 1,2,5,6). 사업체 시작 동기 및 창립시기, 시작할 당시의 총 자본금, 창업훈련 경험 유무 및 창업 당시의 어려움, 사업체 운영에 대한 평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유형3, 4, 7, 8)
졸업한 학교명, 입학 및 졸업년월, 학교유형, 소재지 등 정규교육과 관련된 항목 직업훈련 및 자격증에 관한 항목(취업자공통)
- 삭제 : 전근에 관한 사항, 주로 일하는 장소, 근로계약 갱신/연장 혹은 계속근로 여부(유형1, 2, 5, 6) 주로 일하는 장소, 연간매출액(유형3, 4, 7, 8)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부사조사 :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 실시

□ 5차년도(2002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가구용 설문

- 추가 : 비동거 이유, 가구소비 항목 중 '용돈' 추가
- 삭제 :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관계

•개인용 설문 :

- 추가 : 교대제 관련 문항, 실업급여 관련 문항, 현 사업체의 자산 및 사업의 장기적 전망(유형3, 4, 7, 8), 업체 시작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항목들(비임금근로자), 수능점수 관련 항목, 비정규직 판별을 위한 항목추가
- 삭제 :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사업체 시작당시 상황(유형 7, 8), 현재까지 다닌 모든 정규교육 항목 삭제(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만 조사)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 6차년도(2003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가구용 설문

- 추가 : 생활비 항목중 '피복비', 보험 종류 중 건강보험 추가
- 변경 : 자녀의 교육 종류별 수업료 항목에서 자녀 1인당 수업료로 단순화
- 삭제 :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 기관 종류, 이용횟수 등 삭제

•개인용 설문 :

- 추가 : 임금근로자의 유형 1, 3설문 중 기업체 규모(본사, 지점 등 포함)이외에 사업체 규모 측정항목 추가, 취업자/미취업자 설문 중 연간 근로소득을 세전과 세후로 나누어 조사, 평생학습, 고등학생의 성적과 진학, 아르바이트 경험 등에 관한 항목 추가, 형제자매의 수
- 삭제 : 비임금 유형3설문의 현재 사업가치 및 장기적 전망, 취업자/미취업자 설문의 대학입학 수능(학력고사) 시험여부와 시험점수 등 삭제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부가조사 : '중고령자' 부가조사 실시

□ 7차년도(2004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가구용 설문

- 추가 : 분가이유에 '유학'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생활비에서 기존에 '기타'로 처리되었던 항목 중 '헌금 및 각종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대중교통비' 등이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에 대한 문항에서도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이 추가
- 변경 :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의 보기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19개로 조정
- 삭제 :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 기관 종류, 이용횟수 등 삭제

•개인용 설문 :

- 추가 : '차별 관련 문항' 및 위험에 대한 선호도와 경제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에 대한 태도'문항 추가

- 변경 :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1,2,5,6의 기업형태 설문에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추가, 교대제형태에 ‘4조2교대’를 추가
- 삭제 : 국민연금가입여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성적 삭제
-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 부가조사 :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실시

●User notes : 각 조사년도별 조사 내용뿐만 아니라 설문 구조에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개인용 설문의 구조는 1차년도에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개인으로 구성되었고, 2차년도에는 경제활동상태별 구분 없이 개인용 공통으로 통합하여 구성되었다. 3차년도에 개인용 설문은 다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개인 설문으로 구분되며 4차년도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 개인과 미취업자 개인 설문으로 구성된다.

참조 : FAQ Q23, Q24

IV. 변수 가이드

- KLIPS 자료의 변수들은 대부분 설문지의 문항 변수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핵심이 되는 변수들을 추가로 가공하여 제공된다. 또한 실사과정에서 ‘문자’로 조사된 정보들은 모두 ‘숫자’형태로 전환되어 제공된다.
- KLIPS 자료의 변수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키(key)변수 : KLIPS는 매년 동일 가구와 동일 개인을 반복 추적조사하기 때문에 패널구성원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key변수가 부여된다. KLIPS 자료는 여러 가지 자료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간 연결을 할 때 key변수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key변수의 예로 hhid, pid 등을 들 수 있다.
 - 그 외의 주제별 변수 : 키변수와 구성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로 설문지의 내용을 반영한 변수들이다.

●User notes : KLIPS 자료의 변수명은 자료별로 다음과 같은 고유의 영문 이니셜을 갖고 있으며, 영문 이니셜 뒤에는 일련의 숫자로 구성된다.

v___ : 가구자료 p___ : 개인자료
n___ : 신규자료 j___ : 직업력 자료
a___ : 부가조사자료(단, y___ : 3차년도 청년용 자료)

1. key변수의 이해와 이용

- KLIPS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ey변수를 포함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각 자료별 key변수를 고유번호와 그 외의 key변수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의 key변수들로는 자료를 사용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구성변수와 인구학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KLIPS의 key변수들은 해당 년도마다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것도 있지만, 조사 년도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띠는 변수들도 있다. 따라서 주요한 인구학적 key변수들의 1-7차년도 변수명을 정리하고 이 변수들의 이용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1 가구용 key변수

1.1.1 가구의 고유번호

- KLIPS 가구용 자료에 담겨 있는 가구의 고유번호는 7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hhid04, hhid03, hhid02, hhid01, hhid00, hhid99, hhid이다.
 - hhid는 처음 조사가 시작된 년도의 가구 번호(즉 원가구번호)를 의미하며 나머지 가구의 고유번호는 해당 년도의 가구번호를 의미한다.
 - KLIPS 조사의 응답 가구는 매년 고정적이지 않으며, 분가 혹은 합가 등의 이유로 새로운 가구가 생성되거나 혹은 기존의 가구가 소멸되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
 - 따라서, 가구번호가 missing인 경우는 당해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가구를 의미한다. 단, hhid의 경우에는 분가가구가 분가이전에 어떤 원가구에 소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응답여부에 관계없이 값이 입력되어 있다.

<표 IV-1> 가구의 고유번호

KLIPS01H	hhid						
KLIPS02H	hhid	hhid99					
KLIPS03H	hhid	hhid99	hhid00				
KLIPS04H	hhid	hhid99	hhid00	hhid01			
KLIPS05H	hhid	hhid99	hhid00	hhid01	hhid02		
KLIPS06H	hhid	hhid99	hhid00	hhid01	hhid02	hhid03	
KLIPS07H	hhid	hhid99	hhid00	hhid01	hhid02	hhid03	hhid04

1.1.2. 그 외의 key 변수

□ KLIPS의 가구용 자료에는 가구의 고유번호 외에 key가 되는 구성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유번호 외에 key가 되는 변수는 hwave01, hwave02, hwave03, hwave04, hwave05, hwave06, hwave07, hwaveent, sample98 등이다.

- 여기서 hwave는 각 해당년도의 응답여부를 의미한다. 즉 hwave01은 KLIPS 1차년도(1998년) 가구의 응답여부이며 hwave02는 KLIPS 2차년도(1999년) 가구의 응답여부이다. 그 외의 가구용 구성변수와 그 의미는 다음의 <표 IV-2>와 같다.

□ KLIPS 가구용 자료는 당해년도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한번이라도 응답한적이 있는 가구라면 가구용 자료상에 하나의 case로 입력된다.

- 예컨대, 7차년도 가구용 자료는 총 6,057가구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7차년도에 응답한 가구는 4,762가구(hwave07=1)이다.

<표 IV-2> 각 연도별 조사 응답여부 판별 key 변수

hwave01	hwave02	hwave03	hwave04	hwave05	hwave06	hwave07	sample98
1차 조사 응답여부	2차 조사 응답여부	3차 조사 응답여부	4차 조사 응답여부	5차 조사 응답여부	6차 조사 응답여부	7차 조사 응답여부	원가구 여부

1.2 개인용 key변수

1.2.1 개인의 고유번호

□ KLIPS 개인용 자료에 담겨 있는 개인의 고유번호관련 변수는 다음의 <표IV-3>과 같다. 개인용 자료에서는 key변수로 개인의 고유번호인 PID와 각 해당년도의 가구번호와 가구원 번호가 있다. PID는 KLIPS 응답 대상인 개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년도와 상관없이 불변하는 번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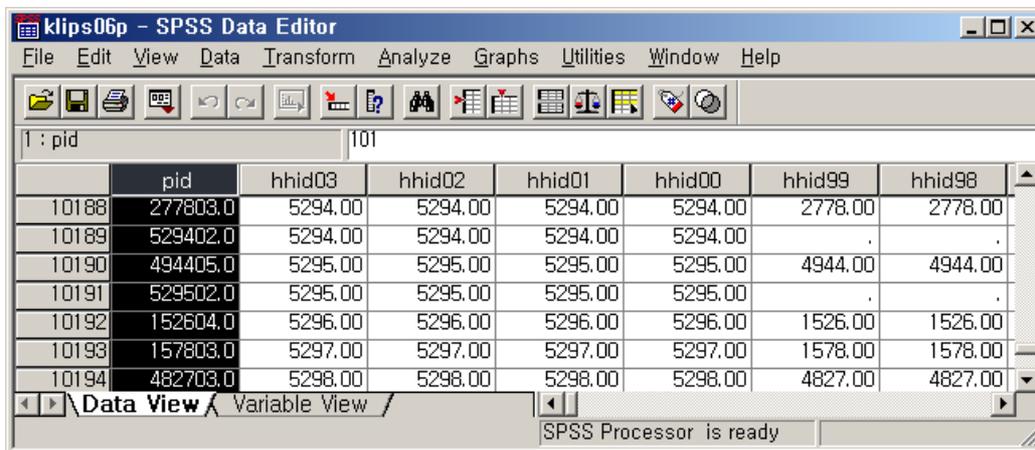
- PID는 개인이 처음으로 응답한 해의 가구번호와 그가구에서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즉,

$$\text{PID} = \text{개인이 처음으로 응답한 해의 가구번호} * 100 + \text{몇 번째 가구원}$$

이다. 예컨대, 아래 그림에서 PID = 494405인 개인은 현재 5294번 가구에 소속되어 있지만(hhid03= 5294) 1차년도에 처음 응답할 당시에는 4944번 가구에 소속되었던 5번째 가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PID = 529502인 개인은 5295번 가구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3차년도(hhid00=5295)부터 노동패널 조사대상으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개인의 고유번호



	pid	hhid03	hhid02	hhid01	hhid00	hhid99	hhid98
10188	277803.0	5294.00	5294.00	5294.00	5294.00	2778.00	2778.00
10189	529402.0	5294.00	5294.00	5294.00	5294.00	.	.
10190	494405.0	5295.00	5295.00	5295.00	5295.00	4944.00	4944.00
10191	529502.0	5295.00	5295.00	5295.00	5295.00	.	.
10192	152604.0	5296.00	5296.00	5296.00	5296.00	1526.00	1526.00
10193	157803.0	5297.00	5297.00	5297.00	5297.00	1578.00	1578.00
10194	482703.0	5298.00	5298.00	5298.00	5298.00	4827.00	4827.00

●User notes : 가구 및 개인의 고유번호는 자료간의 연결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KLIPS자료의 자료간 연결은 다음의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자료간의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의 연결 : 해당년도의 가구번호를 통해서 두 자료를 연결한다.

ex) 6차년도 가구와 개인 자료의 연결시 hhid03을 이용

나. 가구자료의 시계열 연결 : hhid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한다. 단, 이경우 분가가구는 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작이 필요하다.

다. 개인자료의 시계열 연결 : pid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한다.

라. 개인자료와 개인자료(부가자료)의 연결 : pid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FAQ Q4, Q5, Q6, Q8참조 .

1.2.2 그 외의 key 변수

□ 개인용 자료의 고유번호 외의 key가 되는 변수로는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1차 원가구원 여부, 취업상태, 고용형태, 근로시간형태, 종사상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자료의 사용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변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 성별

- 1-7차년도의 성별 변수는 다음의 <표 IV-4>와 같으며, 자료값의 1은 남자 2는 여자를 의미한다.

<표 IV-3> 1-7차년도 성별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1=남자 2=여자	P01555	P02001	P03001	P04001	P05001	P06001	P07001

◎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구자료에서 파악되지만 자료상으로는 개인자료에 key변수로 들어가 있다.
- 이때 가구주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가구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다른 가구원이 가구주로 대체된다. 따라서 가구주와의 관계의 변수값은 조사 년도에 따라 동일개인에 대하여 고정적이지 않다.
- KLIPS자료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변수를 통하여 한 가구의 가족 구성형태 및 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는 <표 IV-4>에 제시되어 있으며 변수값은 코드북의 open code를 참조하면 된다.

<표 IV-4> 1-7차년도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open code	P01557	P02002	P03002	P04002	P05002	P06002	P07002

◎ 연령

- KLIPS 자료에서 연령을 구성할 수 있는 변수로는 생년월일을 이용하는 방법과 만나이를 이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생년월일은 지난 조사시 응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을 거쳐 자료가 구성된다. 연령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생년월일과 만나이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단 만나이의 응답 기준은 공통의 시점이 아닌 조사에 응답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표 IV-5> 1-7차년도 연령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생년월일	양(음)력 여부	P01558	P02003	P03003	P04003	P05003	P06003	P07003
	생년	P01559	P02004	P03004	P04004	P05004	P06004	P07004
	생월	P01560	P02005	P03005	P04005	P05005	P06005	P07005
	생일	P01561	P02006	P03006	P04006	P05006	P06006	P07006
만나이		P01556	P02007	P03007	P04007	P05007	P06007	P07007

● 혼인상태

- 혼인상태는 3차년도를 제외하고는 개인 및 신규설문 모두에서 조사되었다. 하지만, 3차년도의 경우에는 신규자료에서 물어보았고, 개인용 설문의 경우에는 변경여부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차년도의 개인자료의 경우 이전조사의 혼인 변수와 연결하여 현재의 혼인상태변수를 구성하여 사용해야 했다.
- 그런데 7차년도 자료부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1-7차년도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된 혼인상태 변수가 별도로 제공된다. 또한 혼인상태의 변화내용과 변화시기가 보정된 변수도 함께 제공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적절한 변수를 선택 사용하면 된다.
- 1차년도의 경우 혼인상태는 P01521-P01528의 8가지의 변수로 구성된다. 1차년도에는 현재의 혼인상태뿐만 아니라 최초로 결혼한 시기 등 혼인력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다.
- 2차년도의 경우 혼인상태는 P02185-P02202의 18개의 변수로 자세하게 구성된다. P02185는 현재의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최초로 결혼한 시기와 전체 결혼 횟수 등이다.
- 3차년도의 경우 개인용 설문에서 현재의 혼인상태에 관해 묻지 않았다. 다만 혼인상태와 관련하여 지난 조사 이후 혼인상태의 변화여부와 변화횟수, 변화내용, 변화 시기 등의 변수가 있다. 따라서 3차년도 개인 자료에서 혼인상태를 구성하려면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자료에서 혼인상태를 구성하여 3차 자료에 연결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7차자료부터는 가공된 형태의 혼인상태 변수(p_mar00)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 이용상 불편을 감소시키고 있다.
- 4차년도의 경우 개인의 혼인상태는 설문지상 가구용 설문지에 한 문항으로 존재하며, 자료상에는 개인용 자료에 가구원 정보로 담겨 있다. 이때 다른차수와는 달리 5개 항목이 아닌 3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묻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4차 변화상태 및 1-3년도 혼인상태를 이용하여 혼인상태를 구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7차년도부터는 p_mar01 변수를 사용하면 이와같은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5-7차년도의 경우 개인의 혼인상태는 개인용 및 신규용 설문지에서 최종혼인상

<표 IV-6> 1-7차년도 개인용 혼인상태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년도
원자료	변수명	P01521	P02185	P03159- P03166	P04013	P05331	P06335	P07310
	변수값	1=미혼 2 = 결혼 하고 있거나 결혼 한 적 있 음	1=미혼 2=기혼 유배우 3=별거 4=이혼 5=사별	-	1=미혼 2=기혼 유배우 3=기혼 무배우	1=미혼 2=기혼유배우 3=이혼 4=별거 5=사별		
가공자료	변수명	p_mar98	p_mar99	p_mar00	p_mar01	p_mar02	p_mar03	p_mar04
	변수값	1=미혼 2=기혼유배우 3=별거 4=이혼 5=사별						

태 및 혼인상태의 변화여부에 대한 문항이 조사되었다. 이 경우에도 전년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만든 p_mar02와 p_mar03, p_mar04변수가 추가되었다.

● 학력

- KLIPS의 학력 변수는 설문지상 가구용 조사에서 질문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에서 모두 제공된다. 학력변수는 학교, 이수여부, 학년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므로 범주형과 연속형 변수로의 구성이 모두 가능하다.
- 학력 관련 변수는 년도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1, 2차년도에는 학교, 이수여부, 학년, 전공계열의 네 가지 변수로 구성되었으나 3, 4차년도에는 전공계열 변수는 삭제되었다. 대신 4차년도 개인용 자료부터는 개인의 정규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표 IV-7> 1-7차년도 학력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학 력	학교	P01564	P02010	P03010	P04010	P05010	P06010	P07010
	이수 여부	P01565	P02011	P03011	P04011	P05011	P06011	P07011
	학년	P01566	P02012	P03012	P04012	P05012	P06012	P07012
	전공 계열	P01567	P02013	-	-	-	-	-

●User notes : 학력변수의 구성 예는 다음과 같다.(7차년도 기준)

예1) 연속형(교육년수)

p07010(학력)=5 p07011(이수여부)=4 p07012(학년)=2의 값을 갖는 개인의 학력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따라서 이 개인의 교육년수는 9+2=11이 된다.

예2) 범주형

p07010(학력)=4 p07011(이수여부)=1의 값을 갖는 개인의 학력은 중졸로 연구자
가 임의의 값을 부여하면 된다.

- 1, 2차의 전공 계열의 자료 구성은 약간 다르다. 1차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개인에 한하여 고등학교 전공계열을 조사했으며, 2차년도에는 고등학교와 전문대 이상에 재학중인 개인을 대상으로 전공계열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1, 2차년도의 전공계열의 변수값은 다르다. 또한 1차년도 자료의 학력은 최고 대학원 석사까지 조사하였으나 2차년도부터는 대학원 박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 '학년'은 졸업을 제외한 수료, 중퇴, 재학중, 휴학중인 개인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

● 1차 원가구원 여부

- 1차 원가구원이라 함은 1차년도 표본으로 지정된 가구에 속한 개인을 뜻한다. KLIPS는 원가구로 선정된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개인을 기본적인 조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분가 혹은 혼인 등의 이유로 개인이 탈락 혹은 진입하기 때문에 '비원가구원'이 개인 조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 '원가구원'은 신규용 자료에 응답한 개인 중에도 존재한다. 즉, 1차 원가구원이면서 1차 조사 당시 조사가 누락된 개인 혹은 만15세가 되어 새로 조사된 개인은 원가구원에 속한다. 그러나, 개인자료 내에 신규조사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신규자료를 분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 개인(신규) 자료에서 **원가구원만을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개인'**을 제외하면 된다.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할 때 '비원가구원은 0의 값을 갖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 예컨대, 7차년도 개인 및 신규용 자료의 전체 가구원 11,543명 중에서 원가구원은 'w7_pl = 0'인 가구원을 제외한 10,657명이다.

●User notes : KLIPS는 표본의 대표성을 갖는 동일 가구, 동일 개인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상의 이유로 원가구원 여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분석대상을 원가구원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다. 다만 가중치를 사용할 경우 이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비원가구원에 대해 '0'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한편, 횡단면 가중치의 경우에도 비원가구원은 동일한 가구내의 원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 취업/미취업 상태

- KLIPS 자료에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라 개인의 취업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취업자 : (1) 조사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3)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사고, 휴가 또는 연가, 노사 분규, 조업 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

•미취업자 :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일거리나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지가 사업주인 사업체에서 평소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을 도운 경우를 말한다.

- 각 연도마다 설문지 형태와 자료의 형태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취업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동일하지 않다.

- 1차년도 설문에서는 임금, 비임금, 미취업자로 구분된 설문 중 개인이 어떤 설문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변수(p01573 공통설문종류)를 통해 취업상태가 구분 가능하다.

- 2차년도 설문의 구성은 경제활동상태와 관계없이 개인용 공통 설문으로 통합되어 조사되었다. 따라서 개인용 자료의 취업상태(p02025) 변수를 통해 개인의 취업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즉, 취업자는 p02025=1,2,3인 경우이며, 미취업자는 나머지 모든 개인들(18시간미만 가족종사자 포함)이다.

- 3차년도의 설문문의 구성은 임금근로자용, 비임금근로자용, 미취업자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공통설문종류(p03022)를 통해 변수를 통해 취업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단 취업상태(p03029) 변수를 사용할 경우 p03029의 값이 '3'(가족종사자)인 경우는 p03030을 통해 '1'(18시간 이상)의 값은 갖는 경우만 가족종사자로 보아야 한다.
- 4~7차년도 설문문의 구성은 취업자용과 미취업자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모든 응답자에게 설문한 취업/미취업 여부 변수를 통해 취업상태의 구분이 가능하다.

<표 IV-8> 1-7차년도 취업/미취업 여부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취업 상태	P01573	P02025	P03022	P04028	P05028	P06028	P07028
변수 값	1=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3=미취업자	1=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3=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4=가족종사자 (18시간 미만)	1=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3=미취업자	1=취업자 2=미취업자			

◎ 경제활동상태

- KLIPS의 개인용 설문문항 중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관련된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 분류와 경제활동상태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2] 경제활동상태의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 혹은 육아 -학업 -연로 -심신장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자 		

- 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여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 비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지가 없거나(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 실업자 : 현재 미취업자이면서,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지난 1주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고, 지난 1주 동안 적당한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KLIPS 자료를 통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될 수 있다. <표IV-9>는 각 조사년도별 경제활동상태 구분과 관련된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 취업상태 변수를통해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한 다음, 미취업자의 해당 변수를 통해 실업자를 구분하면 된다.

<표 IV-9> 1-7차년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구분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미취업자		P01573	P02025	P03022	P04022	P05022	P06022	P07021
실업자	지난 1주간 구직여부	P01203	P02059	P03089	P04381	P05376	P06406	P07420
	지난 1개월간 구직여부	P01204	P02060	P03090	P04382	P05377	P06407	P07421
	취업 가능성 여부	P01205	P02061	P03091	P04383	P05378	P06408	P07422
비경제활동인구		미취업자에서 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된다. 1, 2차년도 자료에는 종사상 지위변수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3, 4, 5, 6, 7차 자료에서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변수가 구성되었

기 때문에 변수값이 5가지로 구성된다.

-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구성하려면 p01136(유급종업원 유무)와 p01141(사업체 대표) 변수를 이용하면 되고,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구성하려면 p02025(취업상태)변수를 이용하면 된다.

<표 IV-10> 1-7차년도 종사상 지위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종사상 지위	P01026	P02351	P03363	P04746	P05748	P06741	P07736
변수 값	1=상용직 2=임시직 3=일용직	1=상용직 2=임시직 3=일용직		1=상용직 2=임시직 3=일용직 4=고용주/자영업자 5=무급가족종사자			

◎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변수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는 변수이다. 이 항목은 설문지상에는 1차년도에는 존재했고 2차년도에는 전년도와 비교한 변경여부만 묻고 있으며, 3차년도에는 삭제되었다가 4차년도에 다시 조사되었다.

- 자료상에는 3차년도를 제외한 1, 2, 4, 5, 6차년도에 존재한다. 따라서 3차년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구성할 때는 전년도 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연결(merge)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단, 6차년도 정규/비정규 여부 변수는 missing 값이 다른 연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6차년도 조사 당시 새로 시작한 임금일자리, 즉 ‘유형5’에 해당하는 응답 대상자들에게 정규/비정규의 변화여부만 질문한 후 고용형태가 변하지 않은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7차년도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여 코딩한 것이다. 따라서, 7차년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정규/비정규 여부는 missing으로 입력된 것이다.

<표 IV-11> 1-7차년도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1=정규직 2=비정규직	P01019	P02346	-	P04731	P05732	P06813	P07727

◎ 근로시간 형태

-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형태를 묻고 있다.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 전일제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2차년도에는 다른 년도와는 달리 전일제가 '1'로 시간제가 '2'로 코딩되었다는 점이다.

<표 IV-12> 1-7차년도 근로시간 형태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근로시간 형태	P01025	*P02026	P03368	P04742	P05744	P06737	P07735
변수값	1=시간제 2=전일제	*1=전일제 *2=시간제			1=시간제 2=전일제		

2. 오픈 코드(open code)

- 각 변수의 변수값이 너무 많은 경우 모두 코드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코드로 처리하였다. 자료별 오픈코드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가구용 자료의 오픈 코드

- 가구용 자료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오픈 코드로 처리했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구조사에서 파악되며 개인용 자료에도 포함된다. 가구주를 기준으로 (코드값 '10')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를 통한 고유 코드값이 지정되고 이 값들을 각 가구원에게 부여된다.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는 <표 IV-15>와 같으며 오픈 코드는 코드북을 참조하면 된다.

<표 IV-13> 1-7차년도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가구주와의 관계	P01557	P02002	P03002	P04002	P05002	P06002	P07022

2.2 개인용 자료의 오픈 코드

□ 각 년도별 개인용 자료의 오픈 코드는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업종, 직종, 직위, 직업훈련종류, 학과
- 2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업종, 직종, 직업훈련기관, 대리어유, 직위, 자격증 종류
- 3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대리어유, 업종, 직종, 직위
- 4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자격증종류, 직위, 업종, 직종, 대리어유
- 5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자격증종류, 직위, 업종, 직종, 대리어유
- 6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직업훈련기관, 기타 질병, 직업훈련외 교육, 자격증종류, 직위, 업종, 직종, 대리어유
- 7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직업훈련기관, 기타 질병, 직업훈련외 교육, 자격증종류, 직위, 업종, 직종, 대리어유

□ 1-7차년도 개인용 자료에 공통으로 담긴 오픈 코드는 가구주와의 관계, 업종, 직종, 직위이다.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는 가구주('10')와 가구주의 배우자('20')를 중심으로 34종류로 구성된다.

2.2.1 직업코드 및 산업코드

-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입력시 1~5차년도 조사자료의 경우 업종과 직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1991년)와 한국표준직업분류(1992년)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3자리로 코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직위 코드는 649종류로 구성되며 모름/무응답은 '999'로 처리하였다.

- 1-7차년도 개인·신규자료 및 직업력자료는 2002년에 개정된 새로운 표준산업·직업분류로 코드화된 ‘신코드’만을 제공하고 있다.

- ◎ 직업·산업 분류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산업과 직업 코딩 작업은 실사 과정에서 산업과 직업을 전문가가 판별할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산업과 직업 코딩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 첫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원을 대상으로 통계청의 표준분류 전문가가 직·산업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가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 둘째, 실사가 진행되면 면접원은 사업체의 이름, 사업체의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직위·직책을 Open Code로 상세히 조사한다.
 - 셋째, 조사가 완료된 뒤 통계청에서 오랫동안 해당 업무 경험이 있으며 노동패널 직·산업코딩 작업을 계속 수행한 전문가가 Open Code의 내용을 보고 코딩을 부여한다.
 - 마지막으로 전문가에 의해 코딩된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부분을 확인한 후 입력한다.
- 산업과 직업 코딩 작업은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2002)와 한국표준직업분류(2002)를 기준으로 하였다.

산업 코드 : 6 5 1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직업 코드 : 5 2 1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 산업과 직업 코드가 990번 미만의 3자리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산

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3-digit)와 동일한 값이 입력되어 있다.

- 다만 산업의 경우에 농림어업은 다른 대분류와는 달리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앞자리는 0) 자료상으로는 유일하게 2자리로 구성된다.

□ 직·산업 코딩 과정에서 제공된 Open Code의 정보만으로 소분류(3-digit)까지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분류(1-digit)에 해당되는 값만을 부여하였다.

산업 코드 : 6 0 0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직업 코드 : 1 0 0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 산업과 직업 코드 숫자가 표준분류의 중분류 코드 숫자와 다른 경우는 분류 과정에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digit)만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런 경우 산업·직업 코드는 대분류 값에 00 값을 붙여 세 자리 숫자로 맞춘 것이다.
- 대분류로 입력한 경우의 분류코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IV-3] 산업코드 및 직업코드 대분류

산업분류코드	직업분류코드
01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10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00 '광업'	100 '전문가'
150 '제조업'	2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40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00 '사무 종사자'
450 '건설업'	400 '서비스 종사자'
50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0 '판매 종사자'
550 '숙박 및 음식점업'	600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600 '운수업'	7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40 '통신업'	8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50 '금융 및 보험업'	900 '단순노무 종사자'
700 '부동산, 임대업'	950 '군인'
720 '사업서비스업'	995 '무직'
76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9999 '분류불가'(직업력 자료의 경우 999 입력)
800 '교육서비스업'	
85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70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90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95 '산업 없음'	
99999 '분류불가'(직업력 자료의 경우 999 입력)	

□ 노동패널 1-7차년도 자료에서 직업 및 산업코드를 부여받는 변수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최종 일자리의 직업산업 코드, 최초 혹은 변경전 코드, 희망하는 일자리의 코드 등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료상에서도 개인자료, 신규자료, 부가조사자료, 직업력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에 분포되어 있다.

- 여기서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현재(최종)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코드 변수들을 소개한다.

<표 IV-14> 1-7차년도 현재(최종) 일자리의 직업코드 변수

직업코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개인 자료	P01009 P01132	P02333	P03349	P04724	P05724	p06809	P07717
직업력 자료	j620						

<표 IV-15> 1-7차년도 현재(최종) 일자리의 산업코드 변수

산업 코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	6차	7차
개인 자료	P01007 P01130	P02326	P03342	P04723	P05722	p06807	P07718
직업력 자료	j618						

●User notes : 5차 release 이전 버전의 자료는 직업과 산업이 1992년 개정 코드인 '구코드'값으로 입력되어 있다. 따라서, 구버전 자료의 이용자가 직업 및 산업의 구코드를 신코드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패치파일' 메뉴로 들어가면 구코드를 신코드로 전환시켜주는 SAS program file 및 SPSS syntax file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 패치파일 주소 : <http://www.kli.re.kr/klips/>

2.2.2 직업 훈련 및 자격증 코드

● 직업훈련 코드

□ 직업훈련 종류(분야)는 1, 4, 5, 6, 7차년도에 조사되었다. 그러나 직업훈련 종류(분야) 오픈코드의 구성은 1차년도와 4, 5차년도가 다른 코드로 구성되었다.

- 1차년도의 직업훈련종류는 707종류로 구성되며 모름/무응답은 '999'로 처리하였다.
- 4, 5, 6, 7차년도의 직업훈련분야는 최대 163번까지의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모름/무응답은 '999'로 처리하였다.

□ 직업훈련 기관은 2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46종류로 구성된다.

□ 자격증 종류는 2, 4, 5, 6, 7차에 조사되었으며 800종류로 구성된다.

2.2.3 학과 코드

□ 정규교육 관련 문항은 1-7차년도 자료에 모두 산재해 있으나 학과는 1차년도 개인 조사, 2차년도 신규조사자, 3차년도 신규조사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

- 노동패널 자료에서의 해당 변수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6> 학과 관련 변수들

1차년도 개인공통 (KLIPS01P)		2차년도 신규 (KLIPS02N)		3차년도 신규(KLIPS03N)	
P01462	<공통>교육-학교1-학과	N02350	(신규)아7-1 학과 1	N03707	(신규)아2-1 학과 1
P01468	<공통>교육-학교2-학과	N02356	(신규)아7-1 학과 2	N03713	(신규)아2-1 학과 2
P01474	<공통>교육-학교3-학과	N02362	(신규)아7-1 학과 3	N03719	(신규)아2-1 학과 3
P01480	<공통>교육-학교4-학과				

●User notes : 학과 코드의 이용

노동패널의 학과코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과분류코드와 연계시킬 수 있다. 교육개발원의 학과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다섯자리로 구성되며, 노동패널 자료에서 전환가능한 분류는 소분류(2-3자리)까지이다. 학과코드를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직업 및 산업전환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패치파일'메뉴로 들어가면 SAS program file 및 SPSS syntax file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 패치파일 주소 : <http://www.kli.re.kr/klips/>

2.3 부가자료의 오픈 코드

□ 3, 4차년도에 실시된 부가조사 자료의 오픈 코드는 다음과 같다.

- 청년용 자료(3차) : 가구주와의 관계, 자격증 종류, 업종, 직종, 직위
- 건강과 은퇴 자료(4차) : 가구주와의 관계, 병명

□ 청년용 자료(3차)의 오픈 코드 중 가구주와의 관계, 자격증 종류, 업종, 직종, 직위는 개인용 자료의 오픈 코드와 동일하다.

□ 건강과 은퇴(4차)의 오픈코드는 중 가구주와의 관계는 개인용과 동일하며 병명 오픈코드는 지병 종류(a04061)와 병명(a04095)변수에 대한 오픈코드이다.

V. 주제별 가이드

1. 가구자료

1.1 가구자료의 구조

- KLIPS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로 구성되며, 가구자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패널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가 된다. 가구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가구자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가구자료의 주된 내용을 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V. 변수 가이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KLIPS 자료는 key변수,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로 구성되며, 7차년도를 기준으로 가구 자료의 key변수와 주제별 변수는 다음과 같다.
 - key 변수 : hhid, hhid04 hhid03, hhid02, hhid01, hhid00, hhid99
hwave01, hwave02, hwave03, hwave04, hwave05, hwave06, hwave07,
hwaeent
 - 주제별 변수 : key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 7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자료의 전체적인 구조는 key변수,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의 순서대로 구성된다. key변수와 구성변수 다음에 위치하는 주제별 변수는 우선 가구원 모두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가 제시되고 설문지의 흐름을 따라 주제별 변수들이 제시된다.
- 가구용 자료를 분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가구자료는 가구가 기본 분석 단위가기 때문에 가구원에 관한 정보는 한가지 주제에 관하여 변수1에서 변수15까지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7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성별변수는 1번부터 15번

가구원까지의 정보를 담은 v07166 - v07180의 15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3명이라면 가구원의 성별변수는 v07166 - v07180 중 해당되는 세 개의 변수에 유효한 값이 들어있다. 그러나 가구원 정보가 아닌 가구단위의 변수(예를 들어 가구소득, 생활비 등)는 한 가구당 하나의 변수로 구성된다.

●User notes : KLIPS 가구용 자료는 조사된 개인을 모두 자료에 포함하는 개인자료와는 달리 해당 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가구의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한다. 따라서 각 연도의 가구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Hwave**변수를 이용하여 해당년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2 가구자료의 내용

1.2.1 가구원 기본정보

- 가구자료는 가구원들의 개인번호(PID), 성별, 연령, 학력, 분가시기 등의 기본적인 인적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각 년도별 한 가구당 최대 가구원수는 1차년도 10명, 2차년도 11명, 3~7차년도 15명이다.
- 각 조사년도별 가구원 기본 정보 변수는 다음과 같다.
 - 개인 학력 관련 사항 중 전공계열은 1, 2차에만 조사되었고 3차부터는 삭제되었다.
 - 혼인상태의 경우 1, 2, 3, 5, 6, 7차년도에는 개인용 자료에 있으나, 4차년도에는 4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에 모두 담겨 있다.
 - 건강상태는 2, 3차 가구용 자료에 담겨있으며 4~7차 자료에는 가구용 자료에서 삭제되었다.

●User notes : KLIPS자료는 설문지의 구성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료의 구성에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혼인상태는 1~7차년도는 개인설문에 있고 4차년도에는 가구용 설문에 있다. 따라서 혼인상태는 1~7차년도에는 개인용 자료에 존재하며 4차년도에는 개인용, 가구용 자료에 모두 존재한다. 건강상태는 2차년도에 추가되어 2,3차 가구용 자료에 존재하며, 4차년도에는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가 실시되면서 가구용 설문에서 삭제되었다. 전공계열은 1,2차년도에 조사되었고 3차년도 이후에는 삭제 되었다.

<표 V-1> 1-7차년도 가구원 정보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PID	v01031- v01040	v02101- v02111	v03121- v03135	v04121- v04135	v05121- v05135	v06121- v06135	v07121- v07135
성별	v01041- v01050	v02134- v02144	v03166- v03180	v04166- v04180	v05166- v05180	v06166- v06168	v07166- v07168
양력/음력	v01061- v01070	v02156- v02166	v03196- v03120	v04196- v04210	v05196- v05210	v06196- v06210	v07196- v07210
생년	v01071- v01080	v02167- v02177	v03211- v03225	v04211- v04225	v05211- v05225	v06211- V06225	v07211- V07225
생월	v01081- v01090	v02178- v02188	v03226- v03240	v04226- v04240	v05226- v05240	v06226- V06240	v07226- V07240
생일	v01091- v01100	v02189- v02199	v03241- v03255	v04241- v04255	v05241- v05255	v06241- V06255	v07241- V07255
만나이	v01101- v01110	v02200- v02210	v03256- v03270	v04256- v04270	v05256- v05270	v06256- V06270	v07256- V07270
학교	v01131- v01140	v02512- v02522	v03481- v03496	v04481- v04495	v05481- v05495	v06481- V06495	v07481- V07495
이수여부	v01141- v01150	v02523- v02533	v03496- v03510	v04496- v04510	v05496- v05510	v06496- V06510	v07496- V07510
학년	v01151- v01160	v02534- v02544	v03511- v03525	v04511- v04525	v05511- v05525	v06511- V06525	v07511- V07525
전공계열	v01161- v01170	v02545- v02555	-	-	-	-	-
혼인상태	-	-	-	v04526- v04540	-	-	-
건강상태	-	v02556-v0 2566	v03526- v03540	-	-	-	-

1.2.2 가구소득

□ KLIPS에서 가구소득은 다음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작년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4차년도 조사부터는 '지난 한달간 가구소득'이 추가되었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봉급,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한다.
-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한다.
-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을 포함한다.
- 사회보험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 수급액을 포함한다.
- 이전소득 :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 기타소득 :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다.

□ 1-7차 가구소득 항목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난 한해동안의 총 근로소득은 1-3차년도까지 '작년 한해의 월평균소득'으로 조사되었으나 4~7차년도에는 '작년 한해의 연간총소득'으로 단위가 변경되었다.
- 사회보험은 1차년도에는 가구원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가구원 각각의 1회 수급액을 조사했으나, 2,3차년도에는 가구원 최대 3명까지 조사되었으며, 4차와 5차년도에는 4명까지, 6차와 7차년도 자료상에는 최대 5명의 가구원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전소득은 1차년도에는 월평균으로 조사되었으며, 2~7차 조사에서는 연평균으로 조사되었다.
- 기타소득 역시 1차년도에는 지난해의 월평균으로 조사되었으며, 2~7차 조사에서는 연평균으로 조사되었다.

□ <표 V -2>는 1-7차 가구소득 관련변수이다.

<표 V-2> 1-7차 가구소득 관련 변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지난해소득	총근로소득	v01441	v02617	v03802	v04868	v05726	v06633	v07691
	금융소득	v01443	v02619- v02623	v03804- v03808	v04870- v04874	v05728- v05732	v06635- v06639	v07693- v07697
	부동산소득	v01445	v02625- v02627	v03811- v03814	v04877- v04881	v05735- v05739	v06642- v06646	v07699- v07703
	사회보험	v01422-v 01439	v02631 v02633 v02635	v03819 v03821 v03823	v04886 v04888 v04890 v04892	v05744 v05746 v05748 v05750	v06651 v06653 v06655 v06657 v06659	v07707 v07709 v07711 v07713 v07715
	이전소득	v01447	v02637, v02639, v02641, v02643	v03825- v03828	v04894- v04897	v05752- v05755	v06661- v06665	v07717- v07721
	기타	v01449	v02646- v02648	v03831- v03833	v04901- v04904	v05759- v05762	v06674- v06677	v07730- v07733
지난달소득	근로소득	-	-	-	v04907	v05765	v06680	v07736
	금융소득	-	-	-	v04909	v05767	v06682	v07738
	부동산소득	-	-	-	v04911	v05769	v06684	v07740
	사회보험	-	-	-	v04913	v05771	v06686	v07742
	이전소득	-	-	-	v04915	v05773	v06688	v07744
	기타	-	-	-	v04917	v05775	v06690	v07746

□ 가구소득관련 변수 사용 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 KLIPS의 모든 소득항목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가구소득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국내의 통계조사로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가 있다. 이 조사의 경우 소득을 ‘세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반해 KLIPS는 ‘조세’를 제외한 ‘세후소득’을 측정한다.

● KLIPS 가구소득의 추정기간은 이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KLIPS의 가구소득은 조사 년도의 이전 한해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단 1차년도 조사의 경우 응답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 각 연도별 측정의 기간이 동일하지 않다.

- 가구근로소득은 1-3차년도에는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으나 4~7차년도에는 ‘연간 총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이전소득과 기타소득 또한 1차년도에는 월평균으로 조사하였으나 2~7차년도에는 ‘작년 한해’의 소득으로 조사되었다.

◎ 각 연도별 가구소득의 세부 항목은 차이가 있다.

- 1차년도 가구소득은 세부 항목이 없이 한달 평균 액수만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2차년도 조사부터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세부 항목 중 부동산 소득의 ‘토지를 도지 준 것’은 3차년도에 추가되었고, 기타 소득의 ‘증여 및 상속’은 4차년도에 추가되었으며, 부동산 소득의 ‘권리금’은 5차년도 추가되었다.

<표 V-3> 1-7차년도 가구소득 세부항목

	세부항목
금융소득	은행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 사채이자수입,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배당금, 기타
부동산소득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 준 것(3차 추가), 권리금, 기타
사회보험	1회 수급액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타정부보조금,(6차 항목세분) 사회단체 보조금, 친척/친지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증여 및 상속(4차 추가), 기타

◎User notes :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총소득을 산출할 때는 가구소득의 각각의 항목을 합하면 된다. 단 가구소득 각각의 항목을 합할 때는 우선 해당 항목의 소득 유무를 파악하고 소득이 있는 가구만 선택하여 소득액을 합한다. 또한 가구총소득 산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각각의 변수마다 ‘missing’값이 다르므로 코드북을 참조하여 각각의 missing값을 통제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FAQ Q14 참조

1.2.3 가구소비

- KLIPS의 가구소비는 생활비 항목과 저축으로 구성된다. <표 V-4>는 1-7차 가구소비 관련 변수이다. 연도별 가구소비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 1,3차 년도에는 생활비를 세부항목으로 조사하지 않고 월평균 총액만 조사하였고 2, 4, 5, 6, 7차년도에는 총액과 함께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 또한 세부항목 중 ‘통신비’ 항목은 4차년도에, ‘용돈’ 항목은 5차년도에, ‘피복비’ 항목은 6차년도에 각각 추가되었다. 그리고 7차년도에는 ‘헌금 및 각종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등이 추가되었다.
 - 저축은 1, 2, 3차년도에는 월평균 총액만 조사하였고 4, 5, 6, 7차년도에는 월평균 총액과 함께 세부항목별로 조사하였다.

- 가구소비는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단 1차년도의 경우 응답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조사했다.

<표 V-4> 1-7차년도 가구소비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월 평 균 생 활 비	식비 (주식비와 부식비)		v02649		v04919	v05777	v06692	v07748
	외식비		v02650		v04920	v05778	v06693	v07749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v02651		v04921	v05779	v06694	v07750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v02652		v04922	v05780	v06695	v07751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v02653		v04923	v05781	v06696	v07752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v02654		v04924	v05782	v06697	v07753
	경조사비		v02655		v04925	v05783	v06698	v07754
	보건의료비		v02656		v04926	v05784	v06699	v07755
	문화비(TV시청료, 취미·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	v02657	-	v04927	v05785	v06700	v07756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구입비)		v02658		v04928	v05786	v06701	v07757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		v04929	v05787	v06702	v07758
	용돈		-		-	v05788	v06703	v07759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		-	-	v06704	v07760
	현금 및 각종기부금		-		-	-	-	v07761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		-	-	-	v07762
	대중교통비		-		-	-	-	v07763
	기타		v02660		v04930	v05789	v06705	v07764
	월평균 총액	v01454	v02649	v03835	v04918	v05776	v06691	v07747
저 축	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				v04933	v05791	v06708	v07768
	개인연금				v04935	v05793	v06710	v07770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v04937	v05795	v06712	v07772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	-	-	v04939	v05797	v06714	v07774
	계				v04941	v05799	v06716	v07776
	기타				v04943	v05801	v06718	v07778
	월평균 총액	v01454	v02664	v03836	v04931	v05790	v06706	v07766

1.2.4. 자산

- 자산과 관련된 항목은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자산 항목은 1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2-7차에 조사되었다. 자산의 측정은 가구 소비와 가구소득과는 달리 지난 한해가 아닌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표 V-5>는 자산 항목 중 2-7차년도 부동산 관련 변수들이다.

<표 V-5> 2-7차년도 부동산 관련 변수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거주주택 외 부동산	v02701-v02708	v03901-v03908	v04946-v04953	v05805-v05812	v06721-v06729	v07781-v07789
부동산 타인 임대	v02709-v02711	v03909-v03911	v04954-v04956	v05813-v05815	v06730-v06733	v07790-v07793
부동산 임차	v02712-v02719	v03912-v03919	v04957-v04964	v05816-v05823	v06734-v06742	v07794-v07802

- 부동산 관련 변수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다른 자산 항목들과는 달리 시가 총액 또는 보증금 총액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연속형으로 우선 측정한 다음 ‘잘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가구에 대하여 범주형으로 다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범주형의 응답 범주는 2차년도에는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3-7차 년도에는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표 V-6>은 자산항목 중 2-7차년도 금융자산 관련 변수이다. 금융자산 관련 변수 중 기타 금융자산종류는 1, 2차년도에는 별도로 코드화하지 않았지만 3-7차년도에는 별도로 코드화하여 하나의 변수로 포함되었다.

<표 V-6> 2-7차년도 금융자산 관련 변수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은행예금	v02720-v02721	v03920-v03921	v04965-v04966	v05824-v05825	v06743-v06744	v07803-v07804
주식, 채권, 신탁	v02722-v02723	v03922-v03923	v04967-v04968	v05826-v05827	v06745-v06746	v07805-v07806
저축성 보험	v02724-v02725	v03924-v03925	v04969-v04970	v05828-v05829	v06747-v06748	v07807-v07808
아직 타지 않은 계	v02726-v02727	v03926-v03927	v04971-v04972	v05830-v05831	v06749-v06750	v07809-v07810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v02728-v02729	v03928-v03929	v04973-v04974	v05832-v05833	v06751-v06752	v07811-v07812
기타	v02730-v02731	v03930-v03932	v04975-v04978	v05834-v05836	v06753-v06754	v07813-v07814

1.2.5 부채

□ 2-7차년도 가구부채 관련 변수는 <표 V-7>과 같다. 가구 부채에 대한 조사는 조사
년도별로 변동이 있다.

- 1차년도에는 부채의 세부 항목의 구분 없이 부채여부, 총 부채액, 월평균 부채
상환금만을 조사했으나, 2차년도부터는 다음의 총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였으며, 총 부채액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표 V-7> 2-7차년도 가구부채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금융기관 부채	v01451- v01453	v02732- v02734	v03933- v03935	v04979- v04981	v05837- v05839	v06757- v06759	v07817- v07819
비금융기관 부채		v02735- v02737	v03936- v03938	v04982- v04984	v05840- v05842	v06760- v06762	v07820- v07822
개인적으로 빌린 돈		v02738- v02740	v03939- v03941	v04985- v04987	v05843- v05845	v06763- v06765	v07823- v07825
전세금 임대보증금		v02741- v02743	v03942- v03944	v04988- v04990	v05846- v05848	v06766- v06768	v07826- v07828
부어야 할 계		v02744- v02746	v03945- v03947	v04991- v04993	v05849- v05851	v06769- v06771	v07829- v07831
기타		v02747- v02749	v03948- v03951	v04994- v04997	v05852- v05855	v06772- v06774	v07832- v07834

1.2.6 주거지

□ 주거지는 이사여부, 주거지 변동사항, 입주형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거주시작 시기 등에 관하여 조사되었다. 6차년도를 기준으로 주거지의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입주형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주택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 주택의 평수 : 대지면적, 연건평, 실제평수
- 거주시작시기 : 거주시작 년, 월
- 거주지의 시가 혹은 전(월)세금

<표 V-8> 1-7차년도 주거지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사여부	-	v02601	v03601	v04601	v05592	v06592	v07592
변동사항	-	v02602- v02605	v03602- v03605	v04602- v04605	v05593- v05594	v06593- v06596	v07593- v07596
변동종류	-	-	-	-	v05595	-	-
입주형태	v01365	v02606	v03606	v04606	v05596	v06598	v07598
주택종류	v01366	v02607	v03607	v04607	v05597	v06599	v07599
대지면적, 연건평, 평수	v01367- v01369	v02608- v02610	v03608- v03610	v04608- v04611	v05598- v05601	v06600- v06603	v07600- v07603
시가	v01370	v02611	v03611	v04612	v05602	v06604	v07604
보증금 월세	v01371- v01372	v02612- v02613	v03612- v03613	v04613- v04614	v05603- v05604	v06605- v06606	v07605- v07606
거주 시작시기	v01373- v01374	v02614- v02615	v03614- v03615	v04615- v04616	v05605- v05606	v06607- v06608	v07607- v07608

□ 1-7차 주거지 항목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사여부와 주거지 변동 사항은 2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주택의 평수는 1-3차년도에는 대지면적과 연건평을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4차년도 이후에는 대지면적, 연건평, 실제평수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주택 종류는 2차에는 5개의 항목, 3차에는 9개의 항목, 4차에는 5개의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각각의 항목의 내용에도 변동이 있다.

●User notes : KLIPS 가구용 자료의 주거지 관련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2차와 3차 자료에서 입주 형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거주시기는 전년도 조사 이후 이사하였거나 이사하지 않았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3차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관한 분석을 할 때는 전년도 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FAQ Q19참조)**. 그러나 4차년도 자료는 이사한 적이 없더라도 주거지 관련 항목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1.2.7 자녀교육

- 자녀교육은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와 비용’과 ‘탁아모 이용실태와 비용’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고, 2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년도에 조사되었다.
- <표V-9>는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 조사 내용이다. 조사 내용은 차수별로 차이가 있다.
 - 1차에는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로 한정하였으나 3차 이후로는 0세 - 고등학생 이하(재수생 포함)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한편 7차년도 조사부터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조사하였다.
 - 이용기관 종류의 항목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는 3차년도 이후에 조사되었다.

●User notes :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과 관련하여 6차년도 조사 이후 가장 큰 변동사항은 사교육 이용기관 종류별로 조사되었던 항목들이 자녀 당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5차년도 조사에서는 자녀가 2명이면 두 명이 각각 3개씩의 학원에 다닐 경우 그 가구에 대해서는 총 6개의 사교육종류별로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월평균 수업료 등을 질문하게 된다. 그러나, 6차년도 조사이후에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총 2개의 월평균수업료만을 파악하게 된다.

한편 7차년도 조사의 큰 변화로는 대학생이상 자녀의 사교육비를 조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수, 정규학교 등록금, 그 외 지출 비용 등이 조사되었다.

<표 V-9>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 조사내용

조사년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1차년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이용기관 종류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월평균 수업료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0세 ~ 고등학생이하(재수생포함)	이용기관 종류 종류별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종류별 월평균 수업료 가구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6차년도		자녀당 이용여부 자녀당 월평균 수업료 가구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7차년도	0세 ~ 고등학생이하(재수생포함) 대학생 이상 자녀	고등학교이하 자녀당 이용여부 고등학교이하 자녀당 월평균 수업료 대학생이상 자녀당 정규학교 등록금 대학생이상 자녀당 그 외 지출 비용 가구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 탁아모 이용실태의 조사 내용은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유사하여 그 내용은 탁아모 종류, 탁아모 이용 횟수와 시간, 비용, 경제적 부담정도 등이다.
- 탁아모 이용실태는 1차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만을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3, 4차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조사대상으로 확대하였다. 탁아모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정도는 3, 4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그러나, 5차년도 조사부터는 탁아모 이용실태와 관련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 자녀교육 분석에서 유의할 점은 변수구성에 있어서 한 자녀가 이용하는 하나의 기관(혹은 탁아모)단위로 변수가 구성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교육 문항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자녀의 번호와 엄마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자녀번호와 엄마번호는 자녀와 엄마의 가구내 개인번호를 의미한다.
 - 자녀번호를 가구원 정보와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가구번호와 자녀(엄마)번호를 조합하여 merge한다. - FAQ Q12 참조

2. 개인자료

2.1 개인자료의 구조

□ KLIPS 가구용 자료가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고 있다면 개인용 자료는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분석단위로 한다. 개인자료는 가구자료와 동일하게 key변수와 주제별 변수로 구성된다.

□ 7차년도를 기준으로 개인용 자료의 key변수와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는 다음과 같다.

- key변수 : pid, hhid04, hhid03, hhid02, hhid01, hhid00, hhid99, hhid98, hmem04

- 주제별 변수 : key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 주제별 변수는 그 변수가 어떤 설문지에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변수레이블 앞에 ‘(가구정보)’, ‘(공통)’, ‘(취업)’, ‘(미취업)’, ‘(주된 일자리)’라는 라벨이 붙는다.

◎ 주제별 변수의 구성

- (가구정보) : 가구자료에서 조사된 가구원 정보를 개인자료에 연결한 변수이다. 개인의 주된 인구학적 특성을 담고 있다.

- (공통) : 취업자개인과 미취업자 개인 설문 중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한 설문내용에 관한 변수로 각 변수에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의 응답 내용이 들어 있다.

- (취업) : 취업자 설문 중 취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변수이다.

- (미취업) : 미취업자 설문 중 미취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변수이다.

- (주된 일자리) : 취업자가 응답한 유형 설문의 내용 중 ‘주된 일자리’라고 응답한 일자리 관련 변수들이다.

□ 개인 자료에서 변수레이블 앞에 ‘(주된 일자리)’라고 입력된 변수들은 취업자설문과 유형설문을 토대로 별도로 가공된 자료이다. 이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KLIPS는 개인이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유형 설문을 통해 모든 일자리에 관한 응답을 받고 있다. 단 취업자 개인 설문은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받는다.
- 주된 일자리는 현재의 일자리(유형1, 3, 5, 7 설문) 중에서 응답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의된다.

□ 개인용 자료의 (주된 일자리)변수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사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 산업, 직업, 직위
- 기업의 형태 및 규모
- 고용형태와 근로계약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 근로시간, 임금
-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
- 노동조합

2.2 개인자료의 내용

2.2.1 평소의 경제활동

- 평소의 경제활동은 개인용 자료의 (공통)변수로 지난주 주요 활동과 지난주 소득 활동, 지난주 직장유무, 지난주 일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다.
- 평소 경제활동 관련 문항은 1차년도에는 가구용 설문지에 있었으나 자료상에는 가구용과 개인용 모두에 제공된다. 2~7차년도에는 개인용 설문에서 묻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에서 제공된다.

<표 V-10> 평소의 경제활동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평소 활동	-	-	p03024	p04023	p05023	p06023	p07022
지난 1주 주요활동	p01568	p02021	p03025	p04024	p05024	p06024	p07023
지난 1주간 소득활동	p01569	p02022	p03026	p04025	p05025	p06025	p07024
지난주 일자리 소유여부	p01570	p02023	p03027	p04026	p05026	p06026	p07025
지난주 일하지 않은 이유	p01571	p02024	p03028	p04027	p05027	p06027	p07026

2.2.2 구직활동

□ 구직활동은 취업자의 구직활동과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으로 구분된다.

- 1차년도 개인용 자료에서 취업자의 구직활동 관련해서는 희망 종사상 지위, 희망 근로시간, 희망하는 일의 종류, 구직방법, 구직시 어려움, 구직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은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 2차년도의 구직 관련 변수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의 구직 과정 관련 사항과 취업 중 구직활동(on the job search)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3차년도에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의 구직 과정 관련 사항과 취업 중 구직 활동(on the job search)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4, 5, 6, 7차년도의 구직활동 관련 변수구성은 3차와 동일하다. 단 4차년도부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구직 방법 외에 성공한 구직방법과 구체적인 일자리 진입방법 변수가 추가되었다. 또한 구직방법에 대한 세부 항목이 구체화되었다.

<표 V-11> 1-7차년도 구직활동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취업자의 구직활동	p01415- p01439	p02307- p02322	p03304- p03317	p04704- p04719	p05704- p05719	p06704- p06714	p07704- p07714
미취업자 의 구직활동 (비경제활동 인구)	p01206- p01236 (실업자) p01248- p01272 (비경제활동 인구)	p0262- p02094	p03097- p03125	p04381- p04387	p05376- p05382	p06412- p06420	p07426- p07434

2.2.3 고용형태(정규/비정규여부) 및 근로계약

- KLIPS에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의미한다. 정규직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자기 응답식으로 측정되었다. 그밖에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관련 항목은 IV. 변수 가이드의 1.key 변수의 이해와 활용에 제시되어 있다.
-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관련변수는 근로계약기간유무, 근로계약기간, 계속근로가능 여부, 근로계약문서 수령여부, 근로계약갱신여부, 향후근무예상기간으로 구성된다. 근로계약관련변수의 연도별 변화사항은 다음과 같다.
 - 1-5차년도 조사에서 근로계약기간 유무와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 계속 근로 가능 여부는 2차를 제외한 1, 3, 4, 5차에 조사되었다.
 - 근로계약문서 수령여부는 3~7차년도에 조사되었다.
 - 근로계약 갱신여부는 3차, 5차, 6차, 7차 년도에 조사되었다.

<표 V-12> 1-7차년도 근로계약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근로 계약 기간 유무	P01020	P02357	P03369	P04735	P05736	p06730	p07728
근로 계약 기간	p01021- p01023	p02358- p02360	p03370- p03372	p04736- p04738	p05737- p05739	p06730- p06732	p07729- p07731
불규칙적인 일자리 여부	-	-	-	-	P05742	p06735	p07733
근로 계약 문서 수령	-	-	P03375	P04741	P05743	p06736	p07734
근로 계약 갱신 여부	-	-	P03373	-	P05741	p06733	p07732

□ 노동패널조사에서 ‘향후 이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는 1~4차년도 조사까지는 임금근로자의 유형설문에서 조사되어 왔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5차년도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2002년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를 통해 유사한 문항이 설문되었다. 노동패널 조사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5차년도 조사에서부터는 취업자 공통 설문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 이 중 향후 계속 근로가능기간에 대해서도 4차년도 조사에서 ‘1년이상’과 ‘1년미만’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즉, 기간제(단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5차년도 이전 조사에서도 파악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차년도 이후에는 향후 근로가능 기간에 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응답항목을 통일시켜 ‘(1) 1년이하(__개월), (2) 1년~3년 이하 (3) 3년 초과’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 그 외에 호출 근로나 시간제 근로와 같은 형태는 노동패널내의 기존 유형설문에서 판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표 V-13>과 같이 파견/용역근로여부, 독립도급여부, 가내 근로 여부 등에 대해서만 추가로 조사하였다.

<표 V-13> 비정규직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속 근로 가능 여부	P01024	-	P03374	P04739	p05349	p06043	p07032
향후 계속근로 가능기간	-	-	-	p04740	p05350, p05351	p06044, p06045	p07033, p07034
계속근로 불가능이유	-	-	-	-	p05352	p06046	p07035
파견/용역 여부	-	-	-	-	p05353	p06047	p07036
독립도급 여부	-	-	-	-	p05354	p06048	p07037
가내(재택) 근로 여부	-	-	-	-	p05355	p06049	p07038

◎User notes : 비정규직 근로자의 판별(FAQ Q25참조)

5차년도 조사부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2002년)의 내용들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측정가능한 비정규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사상 지위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기준 <표IV-13>을 참조할 것.
2. 주관적 판단에 의한 비정규직 여부 <표IV-11>을 참조할 것.
3.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근로(단기계약,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근로, 가내근로, 시간제 근로)

※ 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근로(alternative work arrangements)'와 관련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변수명
단기계약	p05736(=1) & p05749(=2) & p05350(=1)
호출근로	p05042(=1)
파견근로	p05353(=2)
용역근로	p05353(=3)
독립도급근로	p05354(=1)
가내근로	p05355(=1)
시간제 근로	p05744(=1)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부가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안주엽 외, 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한국노동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2.2.4 근로시간

- 정규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변수이다. 정규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정규근로시간유무여부, 주당정규근로시간 및 일수, 초과근로여부, 주당초과근로시간 및 일수 등을 묻고 있다.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7차 년도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차년도에는 주당정규근로시간과 주당초과근로시간에 관한 변수만 있고 주당정규근로일수와 주당초과근로일수에 관한 정보는 없다.
 - 초과근로일수는 2차년도에는 월평균 초과근로일수로 측정되었으나, 3차년도 이후 주당 초과근로일수로 측정되었다.
- 근로시간관련 변수를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과 근로시간관련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규근로시간의 유무에 따라 근로시간 응답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을 구성할 때는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 1차년도에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일한 달’과 ‘가장 적게 일한 달’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 2차년도에는 지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평상시와 비교하여 어땠는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다.
 - 1-6차년도에는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각 요일별 근무시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3-4차년도에는 근로시간단축 견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표 V-14> 1-7차 근로시간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정규근로시간 유무	P01053	P02363	P03377	P04748	P05750	p06743	p07738
주당정규근로시간 및 일수	P01054	P02366- P02367	P03380- P03381	P04751- P04752	P05753- P05754	p06746- p06747	p07741- p07742
주당 평균 근무시간	P01060	P02364	P03378	P04749	P05751	p06744	p07739
초과근로 여부	P01055	P02368	P03382	P04753	P05755	p06748	p07743
주당초과근로시간 및 일수	P01056	P02369- P02370	P03383- P03384	P04754- P04755	P05756- P05757	p06749- p06750	p07744- p07745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	P01057	P02371	P03385	P04756	P05758	p06751	p07746
초과근로수당 지급방법	P01058	P02372	P03386	P04757	P05759	p06752	p07747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P01059	P02373	P03387	P04758	P05760	p06753	p07748

●User notes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의 유무에 따라 해당 문항이 달라진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할 때는 정규 근로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정규 근로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참조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한다. FAQ Q26참조

2.2.5 임금 및 소득

임금 및 소득과 관련된 정보는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연간매출액과 소득액을 측정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지급주기, 임금결정방식, 임금 수준, 성과급적용여부, 임금내용 등의 자세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임금근로자의 임금관련 변수는 <표 V-15>와 같으며, 임금관련 변수의 년도별 변동 사항과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금수준은 해당하는 임금결정방식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구성과 자료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임금수준의 자료 구성은 1차에는 연봉제, 일당제, 시간급제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었고 2차에는 도급제를 제외한 6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3차에는 도급제와 기타를 제외한 5개의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4차에는 기타를 제외한 6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 임금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구분 여부와 각각의 액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 월평균 임금은 임금유무의 임금 액수로 구성되었다. 7차부터 공제되는 세금액이 추가되었다.

<표 V-15> 1-7차년도 임금근로자의 임금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임금지급주기	p01077	p02374	p03388	p04759	p05761	p06754	p07751
임금결정방식	p01078	p02375	p03389	p04760	p05762	p06755	p07752
임금수준	p01079- p01081	p02376- p02382	p03390- p03395	p04761- p04767	p05763- p05768	p06756- p06761	p07753- p07758
성과급 관련	p01082- p01085	p02383- p02386	p03396- p03399	p04768- p04771	p05770- p05773	p06762- p06765	p07759- p07762
임금내용	p01087- p01089	-	-	-	-	-	-
월평균임금	p01090- p01091	p02387- p02388	p03400- p03401	p04772- p04773	p05774- p05775	p06766- p06767	p07763- p07765

□ 1-7차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관련 변수는 <표V-16>과 같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연간매출액과 월평균 소득으로 조사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1-7차년도 변화사항은 다음과 같다.

- 1,2,3차년도까지 연간 매출액은 개방형으로 측정하였고 모름일 경우 범주형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4, 5, 6, 7차년도에는 개방형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연간매출액의 범주형의 세부항목 중 2, 3차에는 '(14)모르겠다'가 추가되었다.
- 월평균 소득관련 변수는 1-7차년도가 동일하다.

<표 V-16> 1-7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연간매출액	p01144 p01145	p02394 p02395	p03404 p03405	p04776	p05778	p06770	p07769
월평균소득	p01146 p01147	p02396 p02397	p03406 p03407	p04774 p04775	p05776 p05777	p06768 p06169	p07770 p07171

●User notes :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할 때 missing 값이 많은 질문이 많다. 그러나,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응답대상이 아니다. 또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사례들을 통제하고 나면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에도 missing값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AQ Q27참조

2.2.6 직업훈련 및 자격증

- 직업훈련은 3차년도를 제외한 1, 2, 4, 5, 6, 7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조사년도별로 내용의 구성상 많은 차이가 있다. 1-7차년도에 공통된 내용은 직업훈련여부, 직업훈련 시기 및 기간, 직업훈련 종류, 비용부담, 희망하는 직업 훈련 등이다.
- 조사년도별 직업훈련 관련 사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2차년도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직업훈련 한 가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1차년도에는 직업훈련의 개수는 조사되지 않았다.
 - 4~7차년도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직업훈련부터 총 세 가지 직업훈련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응답 기간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1차년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2차년도에는 지난 조사 이후 받은 직업훈련에 한하여 응답받았으며, 4차년도에는 3차년도에 조사가 누락되었던 관계로 1999년 1월 이후에 받은 직업훈련에 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5차년도 부터는 다시 '지난 조사 이후'에 받은 직업훈련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표 V-17> 1-7차 직업훈련 관련 변수

	1차	2차	4차	5차	6차	7차
직업훈련 여부 및 개수						
교육훈련시기 및 기간						
훈련 종류	P01440- P01453	P02095- P02115	P04120- P04191	P05131- P05205	P06116- P06178	P07105- P07173
직업훈련 비용 부담						
희망 직업훈련						

- 직업훈련의 비용부담관련해서 1, 2차년도에는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나, 4, 5차년도에는 비용부담주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교육훈련을 받는데 직접 지불한 비용까지 조사하였다.

□ 자격증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표 V-18>과 같다.

- 자격증 관련 내용은 2차와 4, 5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2차년도에는 최대 9개까지, 4, 5차년도에는 최대 6개까지 자격증의 종류와 급수, 취득시기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2차년도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개인이 소지한 모든 자격증에 관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4차년도에는 1999년 1월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 5차년도 조사부터는 소지한 자격증의 유형이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또는 외국자격증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다.

<표 V-18> 자격증 관련 변수

	2차	4차	5차	6차	7차
자격증소지 여부					
자격증 개수	P02116- P02162	P04192- P04217	P05206- P05237	p06179- p06205	p07174- p07195
자격증 종류					

2.2.7 사회보험

□ 사회보험 관련 사항은 설문지상 가구용과 개인공통, 유형 설문지에 존재하며 자료 상에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에 있다.

- 가구용 설문지에서는 한 가구 당 최대 3명의 가구원에 한하여 사회보험수급자 유무, 사회보험 수급자 이름과 가구원 번호, 연간 총수급액을 묻고 있다.
- 개인공통 설문지에서는 사회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종류, 수급기간, 수급방식, 1회 수급액을 묻고 있다.
- 유형설문지에서는 직장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문항은 개인자료의 '주된 일자리'에 아래 표와 같은 변수형태로 입력되어 있다. 또한, 개인이 1개 이상의 임금 일자리를 갖고 있을 경우, 모든 임금 일자리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므로 동일한 내용이 직업력 자료에도 입력되어 있다.

□ <표 V-19>은 1-7차 사회보험 관련 변수이다. 사회보험 관련 사항은 1차년도에는 가구용 자료에만 있으며 2-7차에는 가구용과 개인용 자료에 모두 존재한다.

<표 V-19> 1-7차년도 사회보험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가구자료	V01378- V01439	V02628- V02635	V03816- V03823	V04883- V04892	V05741- V05750	v06650- v06659	v07704- v07715
주된 일자리	-	P02400- P02402	P03410- P03414	P04777- P04781	P05779- P05783	p06771- p06775	p07774- p07778
취업자 개인	-	P02163- P02184	P03126- P03158	P04218- P04260	P05238- P05280	p06233- p06275	p07218- p072595
직업력 자료	j401-j405						

2.2.8 대학입학시험 점수

- 5차년도 조사에서는 만30세 이하인 모든 개인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 시험(혹은 학력고사)를 본 적이 있는지 여부, 시험을 친 연도, 시험점수 등을 질문 하였다.
 - 시험점수는 학력고사(340점 만점), 200점 만점 수능, 300점 만점 수능,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응답항목은 모두 1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 6차년도 조사에서는 현재 대학 혹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응답자들에 대하여 학업성취도(GPA)를 질문하였다.
 - 1학년일 경우에는 입학시 수능성적을 4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13개의 범주항목으로 조사하였다.
 - 2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지난 해’의 평균학점을 ‘총점__중 평균 __학점’으로 질문 하였다.

<표 V-20> 5차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관련 변수

		취업자 공통 신규 조사자
5 차 조 사	대학 시험 경험 여부	p05325
	최근 시험 연도	p05326
	시험 종류	p05327
	시험 점수	p05328-p05330
6 차 조 사	대학재학자의 학년	p06317
	수능점수(1학년)	p06318
	총점 및 평점(2학년이상)	p06319, p06321

2.2.9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의 측정

□ 한국노동패널의 직무만족도 측정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사항은 “이상호, 노동패널의 직무만족도 측정, 노동리뷰 2006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klips [테크니컬 리포트](#))을 참고하기 바란다.

①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

□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측정은 1차년도 조사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직무만족도 측정문항이다.

- 설문문의 개발은 미네소타대학교의 직업심리연구소(Vocational Psychology Research) 미네소타만족지수((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와 Smith, Kendall & Hulin(1969)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하여 이중 가장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축약형(reduced form)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V-21> 1-7차년도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 변수

1차년도			응답항목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응답 항목	임금	비임금							
(1) 임금 및 보수	p01069	p01171	(1) 임금 또는 소득	p02045	p03075	p04082	p05082	p06100	p07089
(2) 취업의 안정성	p01070	p01172	(2) 취업의 안정성	p02046	p03076	p04083	p05083	p06101	p07090
(3) 하고있는 일의 내용	p01071	p01173	(3) 하고있는 일의 내용	p02047	p03077	p04084	p05084	p06102	p07091
(4) 근로환경	p01072	p01174	(4) 근로환경	p02048	p03078	p04085	p05085	p06103	p07092
(5) 인사고과의 공정성	p01073	-	(5) 근로시간	p02049	p03079	p04086	p05086	p06104	p07096
(6) 개인의 발전가능성	p01074	p01175	(6) 개인의 발전가능성	p02050	p03080	p04087	p05087	p06105	p07094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p01075	-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p02051	p03081	p04088	p05088	p06106	p07095
(8) 복지후생	p01076	-	(8) 인사고과의 공정성 (비임금제외)	p02052	p03082	p04089	p05089	p06107	p07097
* 근로시간	-	p01176	(9) 복지후생 (비임금제외)	p02063	p03083	p04090	p05090	p06108	p07093

- 이 중에서 ①~⑦까지의 항목은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⑧, ⑨번 항목은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조사되었다.
- 단, 1차년도에 경우 임금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제외한 8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를 제외한 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② 전반적 직무만족도(global measure)

-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단일항목으로 이루어진 측정이며, 두 번째는 5개의 항목들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의 측정이다.
- 우선 단일항목으로 측정되는 ‘전반적 직무만족도’ 설문은 3차년도부터 조사되어 왔다. 측정항목은 ‘(1) 매우 만족스럽다’에서 ‘(5) 매우 불만족스럽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V-22>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설문 항목	3차	4차	5차	6차	7차
___님께서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p03084	p04091	p05091	p06109	p07098

-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설문은 5차년도부터 조사되고 있다. 문항의 개발은 Brayfield & Rothe (1951)의 척도에서 5개 문항을 선별한 것으로, 아래 표의 질문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아주 그렇다’까지 역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V-23>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응답 항목	5차	6차	7차
①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p05097	p06095	p07084
②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p05098	p06096	p07085
③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p05099	p06097	p07086
④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이를 보람을 느끼면서 한다.	p05100	p06098	p07087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p05101	p06099	p07088

2.2.10 조직몰입도(organizational commitment)의 측정

□ 조직몰입도에 대한 측정 역시 5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설문지 개발은 Porter et al. (1974)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s)에 기초하여 우수한 문항들을 선별한 것이다. 응답항목은 ‘(1) 매우만족’부터 (5)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V-24> 조직몰입도의 측정 변수

응답 항목	5차	6차	7차
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다닐만한 좋은 직장이다.	p05092	p06100	p07079
② 나는 이 직장에 들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p05093	p06101	p07080
③ 직장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p05094	p06102	p07081
④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p05095	p06103	p07082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다.	p05096	p06104	p07083

2.2.11 기타 변수

□ 앞에서 언급된 변수 외에 매년 특별한 주제(건강상태, 계층소속감, 사회연결망, 생활만족도 등)에 관한 여러 문항이 조사되었다.

□ <표 V-25>은 1-7차년도 기타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의 년도별 차이점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강상태 변수는 2, 3차 가구용 자료에 담겨 있으며, 4차년도에는 ‘건강과 은퇴’ 부가 조사가 실시되면서 삭제되었다.
- 6차년도 조사부터는 4차년도 부가조사 문항 중 현재의 건강상태, 육체적 제약이나 장애여부, 질병 현황 등을 선별하여 파악하고 있다.
- 생활만족도는 1차년도를 제외한 2-7차년도에 모두 조사되었으며, 2차와 3, 4차의 문항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 주관적 계층 소속감은 2, 3, 5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2차년도에는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계층소속감을 동일한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나, 3, 5차년도에는 이를 따로 분리하여 각각 조사하였다. 6차년도에는 제외되었다.
- 경제적 여건은 3, 4차년도에 네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6차년도에는 제외되었다.
- 사회 연결망은 3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표 V-25> 1-7차년도 기타 변수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건강상태	V02556- V02566	V03526- V03540	부가조사 참조		p06367- p06391	p07335- p07343
생활만족도	P02203- P02207	P03167- P03173	P04363- P04369	P05356- P05362	p06360- p06365	p07328- p07334
주관적 계층소속감	P02208	P03174- P03175	-	P05363- P05364	-	-
경제적 여건	-	P03176- P03179	P04370- P05473	P05365- P05368	-	-
사회적 연결망	-	P03180- P03195	-	-	-	-
차별과 위험인식	-	-	-	-	-	p07367- p07419

3. 신규자료

3.1 신규자료의 구조

□ 신규자료는 신규용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된다. 신규용 설문지는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으며 자료상에도 2차자료부터 포함된다. 신규용 자료는 만15세가 되어 처음 조사되거나 합가(合家)등의 이유로 추가된 가구원의 정보를 담고 있다. 신규자료의 내용은 개인자료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년 변동되는 개인 자료의 조사 내용이 반영된다.

□ 신규자료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 key변수와 가구원 정보
- 가 : 임금 첫 번째 일자리(주업)
- 나 : 비임금 첫 번째 일자리(주업)
- 다 : 임금 두 번째 일자리(부업)
- 라 : 비임금 두 번째 일자리(부업)
- 마 : 현재 경제활동
- 바 : 미취업 상태
- 사 : 모든 응답자
- 아 : 정규 교육, 직업 훈련
- 자 : 사회보험 및 기타

□ 개인 설문이 개인의 일자리별로 여러 개의 설문을 받도록 한 것과는 달리 신규용 설문은 개인당 최대 2개까지의 일자리에 대한 설문만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2 신규자료의 내용

□ 신규자료는 개인용 자료의 모든 내용을 반영한다. 단 신규용 자료는 처음 조사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변수를 포함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 15세 이후의 이전 일자리의 경력
- 부모님의 학력
- 만14세 무렵의 아버님(계시지 않았던 경우 어머님)의 경제활동상태
- 출생지와 만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 혼인력과 출산력

※ 7차년도 release자료부터 이용자들이 개인자료와 신규자료를 merge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신규자료 변수들 중 개인자료와 일치하는 것들은 개인자료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위의 다섯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자료(KLIPS02P~KLIPs07P)만 분석하더라도 신규조사 응답자 кей들까지 함께 분석 사례수에 포함된다.

□ 신규용 자료의 내용은 개인용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단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표 V-26>은 7차년도를 기준으로 신규자료의 내용과 개인자료의 내용을 연결한 것이다.

- 개인용 자료의 가구원 정보관련 변수들은 신규자료 해당 кей들에게도 적용된다.
- 신규용 자료의 ‘가’와 ‘나’의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개인용 자료의 주된 일자리의 변수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 신규용 자료의 ‘다’와 ‘라’의 두 번째 중요한 일자리의 내용은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 하나의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용 자료와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는 개인자료의 (공통)과 (취업)의 해당 변수와 동일한 항목으로 측정된 것이다.
- 현재의 미취업 상태는 개인 자료의 (공통)과 (미취업)의 해당 변수와 동일한 항목으로 측정된 것이다.
- 이전 일자리에 관한 내용은 신규자료에만 있는 것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항목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표 V-26> 개인자료에 포함된 신규자료의 변수들(7차년도 기준)

신규자료		개인자료
가구원정보	-	P07001-P07017
가. 가장 중요한 일자리	N07024-N07118	P07701-P07815
나. 가장 중요한 일자리	N07168-N07227	
다. 두 번째 중요한 일자리	N07230-N07331	신규/직업력 자료에만 존재
라. 두 번째 중요한 일자리	N07332-N07392	
마. 현재의 경제활동	N07392-N07399 N07400-N07422	P07022-P07028 P07079-P07101
바. 현재의 미취업 상태	N07423-N07453	P07420-P07450
사. 이전 일자리	N07454-N07528	신규/직업력 자료에만 존재
아.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	N07529-N07741 N07647-N07759	P07260-P07308 P07105-P07217
자. 기타사항 중 군복무경험	N07642-N07646	신규자료에만 존재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	N07802-N07810	
출생지 및 14세 성장지	N07811-N07815	
종교	N07816	
출산력	N07835-N07839	
형제자매 수 및 학력	N07840-N07846	

●User notes : 신규용 자료에는 14세 당시의 성장지, 14세 부모님의 직업, 군복무경험, 출생지, 형제자매 수 등 개인용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의 신규자료와 개인자료를 연결하여야 한다. 신규용 자료를 개인용 자료와 연결하는 방법은 개인용 자료를 기준으로 신규용 자료의 변수의 배열과 내용을 개인용 자료와 일치시켜 두 자료를 Case Merge 하면 된다.

FAQ Q3참조

4. 직업력 자료

4.1 직업력 자료의 구조

- KLIPS의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는 1차 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가졌던 직업을 기술한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와 1차 조사 이후로 조사된 개인의 모든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직업력 자료를 통해 개인이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래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 가구용 자료가 한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 개인용 자료가 한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면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직업을 자료 구성의 기본 단위로 한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 조사의 유형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되며 개인 자료의 주된 일자리 정보 또한 직업력 자료에 포함된다.
- 직업력 자료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는 조사된 개인의 모든 직업을 포함한다. 즉 원 가구원은 물론 비원가구원의 모든 일자리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직업력 자료의 변수는 key 변수,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ey 변수 : pid, hhid98, hmem98, hhid99, hmem99, hhid00, hmem00, hhid01, hmem01, hhid02, hmem02, hhid03, hmem03, hhid04, hmem04
 - 구성변수 : jobwave, jobseq, jobnum, jubnumc, jobcens, jobtype, jobclass, mainjob
 - 그 외의 주제별 변수 : key 변수와 구성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 직업력 자료의 구조를 [그림 V-1]을 통해 살펴보자. 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1과 가구원2는 각각 조사차수 1, 2에 두 개씩의 일자리를 가지므로 직업력 자료에 이들의 일자리 정보는 8개의 행을 차지하게 된다.

[그림 V-1] 직업력 자료의 구조



4.2 직업력 자료의 내용

□ 직업력 자료에서 key가 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jobwave

- '일자리 발견 차수'를 의미하며 해당 직업이 조사된 차수를 나타낸다.
- '0'은 1차년도 조사 당시의 회고적 일자리를 의미한다.
- 1부터 5까지는 각 일자리가 조사된 차수를 의미한다.

•jobseq

- '개인이 가진 일자리 순서'를 의미하며 동일한 일자리가 지속된다면 항상 동일한 jobseq를 갖는다.

•jobnum

- '일자리 번호'를 의미한다.
- 1차년도에 조사된 회고적 일자리는 발견된 순서대로 한자리의 값이 부여된다.
- 1차년도 조사 차수 바로 직전에 그만둔 일자리에 대해서는 '100'값이 부여된다.

- 회고적 일자리를 제외한 일자리는 세자리의 값을 가진다. 백단위는 조사 차수를 의미하며 십-일단위는 조사 시점에서 일자리가 발견된 순서대로의 일련번호이다.

•jubnumc

- '지난 조사 당시의 일자리 번호(jobnum)'를 의미한다.

•jobcens

- 이전 조사와 현 조사 시점의 일자리의 보유/미보유 여부를 의미한다.
- '0'은 회고적 일자리에 관한 자료이다.
- '1'은 이전 조사시 보유하고, 현재도 보유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 '2'는 이전 조사시 보유하고, 현재 미보유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 '3'은 이전 조사시 미보유했고, 현재 보유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 '4'는 이전 조사시 미보유했고, 현재 미보유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jobtype

- '일자리 형태(임금/비임금)'를 의미한다.
- '1'은 임금근로자, '2'는 비임금근로자, '0'은 모름/무응답 혹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jobclass

- '일자리 유형'을 의미한다.
- 해당 일자리가 유형 1 - 유형 8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의미한다. 유형 설문지는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으므로 1차년도에 조사된 일자리와 신규조사자에게서 추출된 일자리는 이 변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mainjob

- 해당 jobwave에서의 '주된 일자리 여부'를 의미한다.
- '1'은 주된 일자리를 의미하며, '0'은 기타 일자리를 의미한다.

□ 앞에서 살펴본 주요 변수 외에 직업력 자료를 구성하는 변수들과 그 내용은 <표 V-27>과 같으며 변수 사용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수에 따라 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되거나 혹은 비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변

수가 있는 반면 모든 취업자에게 해당되는 변수도 있다.

-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주당 평균 초과근무일수'의 경우 3차조사까지는 월평균 근무일수와 월평균 초과근무일수임에 유의해야 한다.
- '승진가능여부'(j163)는 2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 '주근무처'(j506)는 3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 '노조가입경로'(j510)와 '노조비가입 이유'(j511)는 3차, 4차에 조사되었다.
- 사회보험 세부 항목 중 '특수직역연금'(j402)과 산재보험(j405)은 3, 4차년도에 조사되었다.
- 전근관련 사항(j110-j119)은 2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 실업급여 신청여부, 액수, 수령기간 등(j611-j616)은 5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교대제 유무, 형태, 근로시간 변경 주기(j621-j623)는 5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월평균 임금 및 처음월평균임금의 세금액(j730, j731)은 7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표 V-27> 직업력 자료의 변수

내 용	7차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임금)	J001-J006
구직활동 관련(임금/비임금)	J007-J022
사업체명 및 위치 변경(임금/비임금)	J102-J109
전근관련 및 주근무처(임금)	J110-J119, J506
업종, 직종(임금/비임금) 및 직위(임금)	J120-J139, J617-J620
고용형태(임금)	J141-J145
종사상 지위(임금/비임금)	J146-J150
근로시간 형태(임금)	J151-J155
근로계약기간 및 승진 가능 여부(임금)	J156-J163
근로시간 및 초과수당 관련(임금)	J201-J212
임금(임금) 및 소득(비임금) 관련 사항	J301-J321, J322-J327
사회보험관련(임금)	J401-J405
기업 형태 및 규모(임금)	J501-J504
가족종사자의 수(비임금)	J505
노동조합 관련(임금)	J507-J511
퇴직 및 퇴직금 관련(임금)	J601-J608
실업급여 관련(임금)	J611-J616
교대제 관련(임금)	J621-J623
(처음)월평균임금의 세금액	J730-J731

●User notes :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가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취업시기는 1999년 5월 3일인데 퇴직시기는 1999년 3월 1일로 퇴직 시기가 취업시기보다 앞서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실사과정에서 발생한 응답자 혹은 면접원 오류로 확인된다.

□ 이상에 언급된 내용은 토대로 다음의 <예시>를 통해 직업력 자료의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 <예시>의 6개의 행이 동일한 pid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 jobseq(일자리의 번호)를 보면 3까지의 값을 가지므로 이 사람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3개의 일자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3번을 가지는 일자리들은 모두 동일한 일자리들이 다음 차수에도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jobwave(일자리 발견차수)를 첫 번째 행의 일자리는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일자리는 1차년도에 조사된 회고적 일자리를 의미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일자리는 '1'의 값을 갖으며 따라서 이 일자리는 1차년도에 조사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이 후에도 2, 3, 4, 5까지는 각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 조사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 jobnum(일자리 번호) 중 1'과 '100'의 값을 갖는 두 일자리는 1차년도에 조사된 회고적 일자리며, 특히 '100'은 1차년도 당시 가장 최근에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101'은 1차년도에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 '201'은 2차년도에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이다. 이런식으로 '301', '401', '501'까지 이 개인은 매년 한 개씩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jobnumc(지난 조사당시의 일자리번호)를 통해서 이 개인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 동일한 일자리를 계속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obnum '201'옆의 칼럼이 '101'이므로 이것은 현재 일자리 번호가 '201'번인 일자리가 지난조사 당시에는 '101'번이었던 일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jobseq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동일한 '3'값을 갖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 jobcens(일자리 지속 여부)는 위의 두 개의 일자리는 '0'의 값을 가지며, 세 번째 행

에서는 '3'값을 가지며 이후부터는 '1'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개의 일자리는 회고적 자료임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일자리는 이전조사시 미보유했고 1차년도 조사당시 가진 일자리임을 의미한다. 2차년도에는 이전조사시 보유하고 2차년도 조사당시에도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이므로 '1'값을 가지며, 이는 3-5차년도까지 반복된다.

- jobtype(일자리 형태)는 모두 '2'의 값을 가진 것을 보아 세 일자리 모두 비임금 형태의 일자리인 것을 알 수 있다.
- jobclass(일자리 유형)은 2차년도부터 '3'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일자리는 유형3, 즉 비임금근로 중 이전조사시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이다. 전년도까지의 값이 'missing'인 이유는 당연히 '유형설문지' 자체가 2차년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mainjob(주된 일자리 여부)는 1차년도부터 시작된 jobseq '3'의 일자리가 모두 주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예 시>

pid	jobwave	jobseq	jobnum	jobnumc	jobcens	jobtype	jobclass	mainjob
13801	0	1	1	.	0	2	.	0
13801	1	2	100	.	0	2	.	0
13801	1	3	101	.	3	2	.	1
13801	2	3	201	101	1	2	3	1
13801	3	3	301	201	1	2	3	1
13801	4	3	401	301	1	2	3	1
13801	5	3	501	401	1	2	3	1

5. 부가조사자료

5.1 3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층 자료

5.1.1 청년층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3차년도(2000년) 조사
- 조사대상 : 만15세 이상 - 3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1970년 5월 1일 이후부터 1985년 4월 30일까지 출생한 개인
- 조사목적 : 청년 실업 문제와 청년 유휴인력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규명과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됨.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청년층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5.1.2 청년층 자료의 내용

□ 청년층 자료의 내용은 <표V-28>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학력관련 변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4년제),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박사과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유형과 계열/전공, 학교 이름, 소재지, 졸업/그만둔 시기와 재학여부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졸업 당시의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자격증은 재학 중 혹은 졸업하면서 취득한 자격증 여부와 자격증 종류를 묻고 있다.
- 재학 중 직업훈련은 재학 중 취업을 위해 받은 훈련, 교육, 실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재학 중 취업(아르바이트)은 일한 내용과 일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직활동과 취업 경험은 졸업/중퇴/휴학 이후 구직활동방법과 기간, 취업제의 경험 유무와 취업 제의 거절 이유, 2개월 이상 취업 경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첫 일자리는 최종적인 학업 종료 이후 첫 일자리의 업종, 직종, 직위, 종사상 지위, 일자리 규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V-28> 3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3차
학력 및 졸업당시 건강상태	Y03101-Y03161
자격증	Y03162-Y03167
재학 중 직업훈련	Y03168-Y03181
재학 중 취업(아르바이트)	Y03201-Y03205
구직활동과 취업 경험	Y03206-Y03218
첫 일자리	Y03301-Y03344

●User notes : 청년용 자료에서 학력변수(Y03101-Y03105)는 최종학력을 응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
고, 현재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력을, 졸업이나 중퇴 한 경우 졸업이나 중퇴
한 최종 학력을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응답자에 따라서 최종 학력 이전의 모든 학업
스토리 혹은 부분적 학업 스토리를 기재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응답자가 기재할 수 있
는 최대치인 5개의 학력 변수가 생성되었다.

청년용 자료를 다른 개인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할 때는 pid를 key변수로 사용하면 된다. FAQ Q4참조.

5.2 4차년도 부가조사 - 건강과 은퇴 자료

5.2.1 건강과 은퇴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4차년도(2001) 조사
- 조사대상 : 건강 - 15세 이상 모든 개인 설문 조사 대상자
 은퇴·노후생활 - 만45세 이상 응답자
- 조사목적 :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은퇴 및 노후생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함.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건강과 은퇴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
 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5.2.2 건강과 은퇴 자료의 내용

□ 건강과 은퇴 자료의 내용은 <표 V-29>와 같다.

- 건강상태는 현재와 1년 전의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에 제한을 받았던 경험을 묻고 있다.
- 장애/장해는 장애/장해 여부와 종류, 장애/장해 판정 여부와 급수, 장애와 관련된 근로의 제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질병은 질병의 유무와 종류, 질병 시작 시기 등을 묻고 있다.
- 입원 경험과 건강진단은 입원 경험 및 입원 이유와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 의료기관 이용은 의료기관 이용경험과 이용 의료기관 형태 및 이용 의료 서비스 종류를 묻고 있다.
-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 건강관련 사항은 흡연과 음주, 운동 관련 사항을 묻고 있다.
- 피부양과 부양은 피부양 여부와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건강상의 문제와 근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하는데 제약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출산휴가 사용 여부 등을 묻고 있다.
- 은퇴와 노후 생활은 은퇴 상태와 은퇴 계획, 은퇴 시기, 은퇴자의 생활비 조달 방법 등을 묻고 있다.

<표 V-29> 4차년도 부가조사 -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4차
건강상태와 근로	A04021-A04024
장애/장해	A04025-A04059
질병	A04060-A04070
입원 경험과 건강진단	A04071-A04083
의료기관 이용	A04084-A04099
건강보험	A04100-A04114
건강관련 사항	A04115-A04124
피부양과 부양	A04125-A04138
건강상의 문제와 근로	A04139-A04154
은퇴와 노후 생활	A04155-A04188

5.3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5.3.1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6차년도(2003) 조사
- 조사대상 : 만 50세 이상(1953년 4월 30일 이전에 출생) 모든 개인
- 조사목적 :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령자들의 노후 대책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설계되었다.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가구정보와 중고령자 부가조사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5.3.2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은 <표V-30>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은퇴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은퇴자’를 정의하고 은퇴 연령 및 은퇴이유, 그리고 은퇴 계획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은퇴할 당시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특성은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은퇴한 후에 다시 재취업한 자리인지 아니면 여전히 주된 자리인지를 판별한다. 그 다음으로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산업, 직업, 재직기간,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형태, 사업체의 규모,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하였다.
- 개인의 생애주기 전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를 45세 전후로 보고 이 당시의 취업활동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종사상 지위와 산업, 직업에 대해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 고령자들의 소득원에 대해서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자산 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수급, 공적이전, 사적이전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미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가구자료에서 가구단위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자료에서도 개인단위의 근로소득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중고령자 자료의 소득 자료까지 분석에 적용할 경우 고령자의 소득원천에 대해 보다 상세한 파악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자의 경제생활은 가족내의 경제적 교류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므로 이를 파악하였다. 자녀의 수 및 가족내 어떤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혹은 반대로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누가 담당하는지, 혹은 했는지도 조사하였다. 친구 및 친지와의 교류 정도, 친목모임, 종교모임 등 노후 활동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난 2주 동안의 건강상태와 질병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표 V-30> 6차년도 부가조사 -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6차
은퇴여부, 은퇴년도, 은퇴이유, 은퇴계획연령	A06023-A06031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의 특성	A06032-A06056
만 45세 당시의 취업활동	A06057-A06065
현재의 소득원천, 연금	A06084-A06095
자녀의 수 및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A06096-A06132
부양의무 및 사회관계	A06133-A06149
건강 상태	A06150-A06153

5.4 7차년도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5.4.1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7차년도(2004) 조사
- 조사대상 : 모든 개인
- 조사목적 : 2004년부터 7월부터 실시되는 ‘법정근로시간단축’이 경제생활 및 여가 생활의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위해 설계되었다.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근로시간과 여가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5.4.2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근로시간과 여가 자료의 내용은 <표 V-30>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임금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정기휴일, 휴무(법정공휴일, 명절, 기타 휴가)에 대해 직장에서의 제공여부와 실제로 응답자가 쓴 날, 연월차 휴가 및 수당 여부, 하계휴가 및 생리휴가 사용 여부 및 회수
-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 근무시간의 규칙성 여부, 평일 근무 중 시간 배분, 주5일제의 효과, 휴일(법정공휴일 및 명절, 기타 휴무, 하계휴가)관련 사항
-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임금/비임금) : 근로소득, 휴가일수, 실근로시간, 취업기회 등의 증감 여부, 근무시간과 노동강도 증감 여부, 2002년 1월 이후 정규근로시간 단축 여부
- 여성의 출산휴가 : 출산 경험여부, 출산 당시 취업형태, 출산휴가 여부
- 일상의 시간배분 : 평소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조사함.
- 여가관련 사항 : 지난 주 여가활동여부/소요시간/경비 등, 여가 활동의 순위, 지난 1년간의 독서량, 신문 구독량, TV시청시간, 종교활동 참여수준

<표 V-31> 7차년도 부가조사 -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7차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A07002-A07103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A07104-A07176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	A07177-A07190
여성의 출산휴가	A07191-A07196
일상에서의 시간배분	A07197-A07229
여가활동	A07230-A07265

<부록 1> KLIPS 자료를 이용한 문헌 목록

◆ 기초분석보고서

1. 방하남, 안주엽, 장지연, 박은경, 호정화, 정혜원, 2000,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 활동(I)-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분석』, 연구보고서99-09, 한국노동연구원
2. 방하남, 안주엽, 장지연, 김우영, 김현경, 호정화, 2001,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 활동(II)-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자료분석』, 연구보고서01-08, 한국노동연구원
3. 방하남, 장지연, 황수경, 김기현, 김지경, 박시내, 2002,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I)』, 연구보고서02-04. 한국노동연구원
4. 방하남, 황수경, 김기현, 김지경, 박시내, 이상호 2003,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V)』, 연구보고서03-04. 한국노동연구원
5. 황수경, 김기현, 김지경, 이상호, 손희진, 2004, 『제5차(200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6. 남재량, 김지경, 성재민, 이상호, 최효미, 2005, 『제6차(200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7. 남재량, 성재민, 이상호, 최효미, 석상훈, 신선옥, 2006, 『제7차(200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Working Papers Series

1. 금재호, 1998, “고용관련 패널조사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노동패널연구』, 97-01.
2. 신동균, 1998,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패널연구』, 97-02.
3. 강석훈, 1998, “유럽의 패널조사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패널연구』, 97- 03.
4. 금재호, 1998, “캐나다의 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연구』, 97-04.
5. 금재호, 1998,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 『한국노동패널연구』, 97-05.
6. 금재호, 1998, “패널예비조사의 목적과 내용,” 『한국노동패널연구』, 97-06.

7. 황수경, 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1.
8. 황수경·양정승, 2002, “직업력 자료의 구성과 활용가능성,”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2.
9. 이병주Lee, M. J. 2002,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of Wage Determinants in the What Determines the Wage Structure in Korean Labor Market“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3.
10. 김주섭, 2002, “직업훈련참가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4.
11. 방하남, 2002, “Work-Life Profiles of Korean Workers: Life-Table Analysis,”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5.
12. 성지미·안주엽, 200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1.
13. 김재광, 2003, “한국노동패널 오차분석 및 표본추가,”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2.
14. 이명재·태윤희, 2003, “Dynamic Labor Participation Behavior of Korean Women,”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3.
15. 강석훈, 2003, “KLIPS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7.
16. 김우영, 2003, “우리나라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은 감소하고 있는가?: KHPS와 KLIPS를 이용한 외환위기 전후의 상용직 근로자의 직업안정성 비교분석”,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9
17. 강영호, 2003, “사회경제적 사망 불평등: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사망 추적 결과 (1998-2002)” 『한국노동패널연구』.
18. 유경준, 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한국노동패널연구』.
19. Kang-Shik Choi, Jinwook Jeong, 2004, “Technical Change and Wage Premium in a Small Open Economy: An Inter-Industry Analysis” 『한국노동패널연구』, 2001-01

◆ KLIPS Research Brief

1. 이상호, 2003, “한국노동패널(KLIPS) 5차년도 조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Research Brief No. 1
2. 박시내, 2003, “독거노인가구의 생활실태와 빈곤”, Research Brief No. 2
3. 김기현, 2003, “하향취업 실태 및 과잉교육 노동자의 특성”, Research Brief No. 3
4. 김지경, 2003,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Research Brief No. 4
5. 김지경, 2003, “자녀 연령별 사교육 이용 유형과 지출비용”, Research Brief No. 5
6. 성재민, 2003, “실업급여 수급과 미수급의 분석”, Research Brief No. 6
7. 이상호·최효미, 2004, “가구주의 취업형태와 빈곤의 구조”, Research Brief No. 7
8. 김지경, 2004,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 Research Brief No. 8
9. 이상호, 2004, “고령자의 재취업실태”, Research Brief No. 9
10. 김지경, 2004,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지출과 경제적 부담”, Research Brief No. 10
11. 최효미, 2005,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분석”, 『노동리뷰』 2월호
12. 성재민, 2005,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의 특징과 법정근로시간 단축”, 『노동리뷰』 4월호
13. 성재민, 2005,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그 영향”, 『노동리뷰』 5월호
14. 남재량, 2005, “고용불안의 실태와 원인”, 『노동리뷰』 7월호
15. 이상호, 2005, “교육훈련 기회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리뷰』 8월호
18. 최효미, 2005, “부업(Dual-job)계층의 특징과 실태”, 『노동리뷰』 12월호
19. 김기현, 2006, “업무내용과 대학(원) 전공의 불일치”, 『노동리뷰』 1월호
21. 성재민,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노동리뷰』 3월호

◆ KLIPS Technical Report

1. 최효미, 2005, “KLIPS에 나타난 혼인상태 측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리뷰』 10월호
2. 이상호, 2005, “한국노동패널(KLIPS)의 표본이탈 분석”, 『노동리뷰』 11월호
3. 성재민,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월호

4. 이상호, 2006, “서구 주요 패널의 조사전략 변화와 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
5. 이상호, 2006, “노동패널의 주관적 만족도 측정”, 『노동리뷰』 5월호

◆ 주제별 문헌 목록

<교육과 훈련>

- 강순희, 노홍성, 2000,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홍균, 김진영, 백승훈, 2000, "한국에서의 가계특성과 교육의 투자수익율",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이승신, 200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제2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장수명, 이번송, 2001, "인적자본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와 그 외부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강순희, 2002, "학교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 「전문대학 교육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김기현, 2002, “한국사회의 교육체계와 첫 일자리 진입”,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김안국, 2002. "교육훈련의 경제적 성과 -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방하남, 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36집 4호, 한국사회학회
- 장수명, 이번송, 2002,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 최효미, 2002, “직업훈련의 경제적 효과: 노동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Gary Sandefur and Hyunjoon Park, 2002, "Do the Effects of Education on Occupational Attainment Increase or Decrease as Modernization Occurs? Korean Men and Women in a Period of Rapid Economic and Educational Expan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Chicago,

August 2002 (titled as "Gender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Korea).

- Gary Sandefur and Hyunjoon Park, 2002, "Gender, Education, and Self-employment in Korea in the 1990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World Congress in Brisbane, Australia, July 7-13, 2002.
- 구인회, 김순규, 2003, "가족 배경이 청소년의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 김안국, 강순희, 2003,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자격의 취업·임금 효과",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 김주섭, 2003, "재학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 김지경, 2003, "미취학아동의 사교육 열풍? 제대로 이해해야", 교육정책포럼 제61호, 「현안문제진단」
- 방하남, 김기현, 2003, "한국 사회의 교육계층화 : 세대간 변화와 불평등의 추이",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 전광수, 2003, "교육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결정요인 분석 - 소득, 직업안정성 및 직무만족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박사논문
- 김기현, 2004,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Educational Continuation: From Middle School to Graduate School",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지경, 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박현준, 2004, "Gender, Education and Self-Employment in Korea in the 1990s",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양정호, 2004,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규재, 2004, "학력획득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장상수, 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 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 김지경, 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8호, 2004
- Kim, Ki Hun and Phang, Hanam. 2004. "Trends and Differentials in School Transitions in Korea and Japan",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Inequality and Stratification: Broadening the Comparative Scope" of Research Committee 28 (Social St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August 7-9, Rio de Janeiro, Brazil, 2004.
 - 김기현, 2004, "가족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8(5): 109-142
 - Kim, Ki Hun. 2004, "Expanded Opportunity, Persistent Inequality: Social Class and Gender Differentials in School Transition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L'enseignement superieur francais et la Coree" of Seoul ASE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sociation Coreenne des Etudes Politiques Francaises(ACEPF), Nov. 10, 2004, Korea Press Center, Seoul, Korea)
 - 김지경, 2004,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수연·시기자·최현주, 2005,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현주·이병훈, 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차”,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백선화·조성우, 2005,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 수준과 결정요인 연구”,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기현, 2006, “과잉교육과 전공불일치-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한준·한신갑, 2006, “대졸자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통해 본 대학간 불평등”,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장경호·이미정, 2006,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참여 실태분석-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중심으로”,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양정호, 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에 관한 연구”,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청년층 노동시장>

- 최경수, 1999,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착 과정에 있어서의 구조적 상태 의존성에 관한 연구, 「제 1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양심영, 2000, "고졸 청년층 취업형태의 전환요인",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안주엽·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진입 :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병희 외, 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 2003,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 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기현, 2003,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 제도적 배태를 중심으로",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 이병희, 2003, "청년층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Sang-soo Chang, 2003, "Patterns and Changes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Korea" Sunchon National University, the annual meeting of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RC28),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Tokyo, Japan, March 1-3.
- Park Hyunjoon, 2003,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s RC28 Meeting, New York University, August 22-24.
- 이정규, 2004, "사회적 네트워크와 구직 과정 및 성과",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박성재, 2004, "청년층의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친 영향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8

<취업과 구직활동>

- 금재호, 2000, "한국인의 구인·구직활동", 「고용보험동향」, 제5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 2000,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동현, 김상호, 2001, "직업탐색과 자발적 이직", 「200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이병훈, 2001, "직업탐색의 사회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정규, 2001, "학교-직업 이행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직업탐색의 효과",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최영섭, 2002, "입직과정에서의 희망직장 선택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 홍서연, 안주엽, 2002, "청년의 학교 졸업후 구직기간의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 오세규, 2003,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노동시장: 고용과 실업>

- 금재호, 조준모, 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0-12」, 한국노동연구원
- 박기성, 김용민, 2000, "노동시장에 나타난 출신지역간 차이",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방하남 編, 2000,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 노동패널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신광영, 이성균, 2000, "IMF 경제위기하에서의 계급과 실업",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강순희, 정윤형, 2001, "과거 실업경험은 현재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 상태의존성 (True state dependence)의 검증", 「200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금재호, 2001, "장기실업자의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정책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 조준모, 2001,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4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미성, 2001,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임금 불평등",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류기철, 2001,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성균, 2001,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지위변동",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금재호, 2002-12, A Case Study of Korea, Unemployment: the East Asian and European Experiences in Perspective - CAEC Taskforce Project, 단행본 출판
- 금재호, 조준모, 2002, "실업자의 재취업과 직장상실비용", 「경제학연구」제50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 김경모, 2002, "청년층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호, 2002, "정보통신기술혁명과 노동양식의 변화 :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론의 실증적 고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인수, 2002, "지역별 실업탈출 확률 및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 고선장, 2003, "가족기업의 무급가족종사원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금재호, 조준모, 2003-03, Job Instabil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International Labour Review*.
- 이성균, 2003, "지식정보산업 취업자의 인적특성",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 황수경, 이상호, 2003,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와 취업확률",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I」
- 강철희, 2004,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반복실업",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류재우, 2004, "이공계 인력의 경제적 지위 및 근래의 변화",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박기성·김용민·김성향, 2004, "출신지역간 임금격차의 변화",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안주엽, 2004, "주관적 건강상태와 노동시장성과의 상호관계",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한준, 2004, "한국과 일본의 생애과정과 직업경력-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직업경력 배열의 비교-",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용현, 2004, "주택과 도시인적자본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2004.8
- 이변송·김용현, 2004.6, "도시의 인적자본, R&D 및 기타 특성이 도시의 임금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도시 삶의 질 측정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52집 제2호, 한국경제학회
- 김교성, 2005,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사건사분석",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영면·나인강, 2005, "비정규직의 이직, 이직 사유 및 근속기간에 관한 연구",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남재량·최효미, 2005, "한국의 고용불안 실태에 관한 연구",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금지호, 2005,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증적 검증",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안주엽, 2005, "고등교육에 투자할 만 한가",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심욱기, 2006, "2002년 세율인하 정책을 이용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분석",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계층 및 노동, 경력이동>

- 안계춘, 조혜선, 1999, "학력 - 성 집단과 경력이동", 「제1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김기승, 2000, "마르크프 모형에 기초한 고용형태 전환분석",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황덕순, 2000, "도시취업자의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대내 유동성",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방하남, 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 한국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집 제3호, 한국사회학회
- 신광영, 2001, "성과 일자리 이동",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한준, 2001, "사회이동 경로의 배열분석",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한준, 2001,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남녀간의 직업배열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방하남 編, 2002, "한국의 직업이동 및 계층이동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유경준·김대일, 2002,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02-08」, 한국개발연구원
- 신광영, 2004, "계급, 성과 일자리 이동" 「한국사회학」
- 이윤석·신인철, 2004, "골드소프 계급 도식의 타당성 검토: 잠재적 계급 분석(Latent Class Modelling)을 중심으로",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차종천, 2006,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이동-패턴과 추세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병훈·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3~5차 노동패널자료의 비교분석",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혜원, 2006, "실직위험과 가구소비",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박경숙, 2006, "남녀 고령층의 취업률과 은퇴동학",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남재량, 2006, "청년 니트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소득과 빈곤>

- 강창희, 1999, "기업구조조정 대상의 인적 특성과 실업으로 인한 임금손실 분석",

- 「제1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김재호, 김승택, 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2001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학술세미나 발표문」
 - 김진욱, 박창원, 2001, "소득계층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남성일, 전재식, 2001, "재운이 부자를 만드는가? : 사주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경제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문」
 - 류재우, 2001, "근속급의 구조 및 근래의 변화", 「경제학연구」, 제50집 제2호. 한국경제학회
 - 전병유, 2001, "산업특수적 숙련과 임금",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재호, 김승택, 2002-05,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윤석범, 한국경제와 한국경제학 (단행본) - 세경사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송호근, 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 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36집 1호, 한국사회학회
 - 안종범, 김철희, 전승훈, 2002,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최바울, 2002,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과 빈곤".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철희, 2003, "저소득층의 특성 및 경제활동상대 변화에 관한 연구",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Ⅰ」
 - 김재호, 2003, "일과 빈곤(Working Poor In Korea)",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김진욱, 정의철, 2003, "소득계층의 변화요인 분석 :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박재규, 2003, "여성가구의 빈곤화와 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이승렬, 2003, "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 : 시론",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Ⅰ」
- 전승훈, 2003, "빈곤을 측정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노인가구의 필요소득 감소를 고려한 빈곤선 결정",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최바울, 김성환, 2003, "경제위기와 소득불평등 : 1997년 이후를 중심으로",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홍경준, 2003,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안정화 효과 분석",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김성환·전용석·최바울, 2004,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책",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태일,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학주, 2004, "저소득층의 근로경험과 가계부채",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상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 평가",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임세희, 2004, "빈곤탈출의 결정요인",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정이윤, 2004, "Gender-Based Difference in Poverty Exit: Female Headed Families vs. Male Headed Families",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 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학주, 2005, "양부모 대 한부모가계의 경제적 빈곤 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윤정향이병훈, 2005, "임금노동자의 사회복지 배제의 영향 요인 연구",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윤성호, 2005, “노동빈민의 사회적 배제가 빈곤경험에 미치는 영향”, 「제6차 한국 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강성호, 2005, “국민연금 적용소득의 축소신고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태일, 2005,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및 근로동기 효과 분석”,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임병인·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 자리를 중심으로”,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변금선,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교성·최영, 2006, “근로빈곤층의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학주, 2006,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Health and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s on Poverty”,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강성호·김문길, 2006, “공적(국민)연금제도의 사회후생효과 분석-사회후생함수활용에 의한 접근”,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전승훈·임병인·강성호, 2006, “개인연금 가입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자영업>

- 금재호, 조준모, 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우영, 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성지미, 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성지미, 안주엽, 2002,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 2003, "자영업에서의 탈출 : 새로운 기회인가?",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 안주엽, 성지미, 2003, "자영업의 지속기간 결정요인",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 성지미,안주엽, 2004, "가교일자리로서의 자영업선택",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성지미,안주엽, 2006, "위험감수도와 자영업선택",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오유진, 2006, "자영업주의 직업만족과 생활만족",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재호,김철희, 2006,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빈곤원인분석",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여성과 노동>

- 김순미, 이경희, 성지미, 2000,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보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자녀보육의 형태와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서병선, 임찬영, 2000, "직종선택과 성별 임금격차",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 금재호, 200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금재호, 2001, "여성인력과 생산성", 「제2회 한국생산성학회 정책 세미나」
- 성지미, 차은영, 2001, "세대간의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장지연, 2001,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정책연구 2001-03」,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김지경, 2001,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장지연, 호정화, 2001, "여성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 탈출과정", 「한국사회학」, 제35집 제4호, 한국사회학회
- 금재호, 2002,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승진과 임금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 금재호, 2002,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김지경, 2002,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수경, 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패턴과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발표문」
- 황수경, 2002, "자연·공학계열 졸업여성의 직업력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우영, 2003,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김지경, 2003,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김지경, 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권 3호.
- 김지경, 2003, "An Analysis of Career Discontinuation Related to Women's Childbirth, The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Vol10, No.4.
- 황수경, 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지경, 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3호.
- 김지경, 2004,,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진입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1호.
- 박재규, 200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성림, 2004, "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원인에 대한 연구: 자발적 미취업과 비자발적 미취업 여성의 차이",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황수경, 2004,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근로",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지경, 2004, "자녀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의 영향요인", 여성연구 2004년 2호(2004.12), 통권 제67호.
- 김지경·송은경, 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5호(2004년 10월), pp75-86.
- 이명재·태윤희, 2005, Analysis of Labour Participation Behaviour of Korean Women with Dynamic Probit and Conditional Logi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 1 (2005) 0305-9049

<고령자와 은퇴>

- 박경숙, 2000,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와 고연령층의 취업생활",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박경숙, 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제35집 제6호, 한국사회학회
- 박경숙, 2001,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과정의 다양성",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강영호, 2004, "사망률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사망 추적 결과(1998-2002)",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모선희, 강지현, 2003, "55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박경숙,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 은퇴 - 비취업의 경계에 대한 함의",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박경숙,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 안종범, 전승훈, 2003, "은퇴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장지연, 2003, "고령자의 임금과 취업형태",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손용진, 2004, "은퇴 및 비은퇴자들간의 의료사용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안종범·전승훈, 2004, "은퇴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지경, 2004,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2004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손용진, 2005, "은퇴여부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전승훈·안종범, 2005, "은퇴자가구의 소득대체율 추정방법 및 필요소득수준에 관한 연구",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성지미·안주엽, 2005,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과 삶에 대한 만족도",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신희균, 2006, "중고령자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비정규 노동시장>

- 이건, 1999, "비정규 노동시장의 구성분포 - 산업과 직업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금재호, 2000, "비정규직 함정(Trap)은 존재하는가?", 「노동동향분석」, 제13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한준, 2000,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Work History)과 생애과정(Life-Course)",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류재우, 김재홍, 2001, "근래의 상용직 비중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안주엽, 2001,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안주엽, 노용진, 박우성, 박찬임, 이주희, 허재준. 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

- 과제(1)", 「연구보고서 2001-05」, 한국노동연구원
- 박혁, 2002,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 조절이론적 관점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과정과 복지국가의 대응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이환, 2002,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 제36집 1호
 - 김유선, 2003,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선, 2003, "비정규직 결정요인",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 김유선, 2002, "노조가입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강창희, 2003,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재고찰 : 개인의 직장내 직위를 고려하여",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II」

<삶의 질과 직무 만족>

- 이현송, 1999,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과 결정요인", 「제 1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박우성, 노용진, 2000,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 결정요인",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방하남, 2000,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안주엽, 이윤신. 2000. "일자리 불일치와 일자리 만족도의 결정요인", 「동계학술발표대회」, 한국국제경제학회
- 박재규, 2001,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이현송, 2001,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 : 욕구이론과 비교이론의 대비",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Ahn, Joyup, Sook-jae Moon, Yun Shin Lee, 2001, "Mismatch and Job Satisfaction of

Korean Workers", 「A Joint Conference of the Asian Consumer and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2001 at China」

- 김상욱, 유홍준, 2002,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형태학적 결정요인 : 전국패널 자료를 활용한 GLM과 GEE 추정", 「한국사회학」, 제36집 1호, 한국사회학회
- 정광호, 김태일, 2003, "공공부문 조직과 민간부문 조직의 직무만족도의 비교분석",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 방하남·이상호, 2004, "좋은 일자리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 분석",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영면·나인강, 2004, "직장만족도와 이직 행위에 대한 패널 분석",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강성진, 2005, "한국인의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박재규·박순영, 2005, "노동자의 내부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 차이",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영면, 2006, "노동패널의 직무만족 측정과 개선에 관한 연구",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정대해, 2006, "The Relativity of Subjective Well-being and Reference Group",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건강과 노동>

- 김창엽, 이덕희. 2003, "건강상태와 노동시장 성과의 이중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I」
- 박현준, 2003, "Age and Gender Variations i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Self-rated Health in Korea",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I」
- 안주엽, 2003, "Health, Health Related Behaviors, and Their Effect on Labor Market Performance",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I」
- 이덕희, 김창엽, 2003, "경제위기 후 실업탈출에 건강상태가 미치는 영향",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 강영호, 2005,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인기 사망률의 차이”,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성옥, 2005, “민간보험 가입에서의 선택과 의료서비스 이용”,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승욱, 2005, “장애인집단과 근로환경과의 연관성”,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학주, 2006, “A Casual Analysis of the Health-Income Nexus”,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허순임, 2006,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혼인상태와 경제생활>

- 장윤화,이기영, 2005, "Household Debt and Marital Stability",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연주, 2005,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Marital Disruption”,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수진, 2005, “젠더시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패널조사 방법론>

- 강석훈, 1999, "한국노동패널 1차 웨이브에서 가중치 부여방법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강석훈, 2000, "KLIPS 2차 웨이브에서의 가중치 부여방안",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김대일, 남재량, 류근관, 2000, "한국노동패널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조사 표본 이탈자의 특성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지경, 2002, "한국노동패널", 「매월노동동향」, 2002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 200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3년 가중치", 「매월노동동향」, 2003년 8월호 통권 제 25호,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김지경, 2003, 한국노동패널 조사방법, 2003년 한국조사연구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사회조사 자료분석과 데이터마이닝 적용사례'
- 김규성·황영은·박진우, 2005, “패널조사에서 가중치 부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영원·김재광·이기재·조유미, 2005, “한국노동패널 표본의 대표성과 가중치 보정 방법”, 「제6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소비와 저축>

- 최영준·이현창, 2006, “가계소비행태변화의 원인과 정책과제-연령별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안종범·전승훈, 2006, “노후대비와 가계저축행위”,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인재, 2006, “세대간 증여의 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차년도 특별조사에 대한 연구>

- 안주엽, 2006, “차별인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손용진, 2006, “시간경과에 따른 종교의 역동성과 노인기의 생활만족도”,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손문금, 2006, “시간일기와 자기기입식 시간측정의 비교-성별 종사상지위별 유급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노동패널자료의 조사차수가 늘어나면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할 수 없었던 많은 실증연구들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패널자료 분석에 뛰어 들었던 많은 연구자들이 이내 분석을 포기하고 만다. 이유는 간단하다. 변수가 너무 많고 자료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7차 조사 자료에만 총 2,365개의 변수들이 개인용·가구용·신규용·부가조사용·직업력 자료에 들어가 있다. 이 변수들 중에서 분석모형에 사용할 변수들을 일일이 찾아내야 한다. 고생끝에 필요한 변수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적절한지 난감하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패널자료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느긋하게 자료를 이리저리 만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코드북과 데이터만 갖고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어렵다. **동일한 변수라도 각 연도별로 항목값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각각의 변수에 대해 설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노동패널을 처음 사용하는 연구자라면 자료를 만지기 전에 아래의 절차를 추천한다.

1. 먼저 유저가이드 1장 한국노동패널소개와 3장 자료의 주요 특성 부분을 읽어본다.
2. 자료를 열어보기 전에 먼저 설문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특히 관련 문항들의 전후구조에 유의한다.
3. 다음으로 설문지에 분석주제와 관련된 문항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한다.
4. 설문지에서 체크한 문항들이 실제로 코드북의 변수값과 일치하는지를 체크한다.
 - 이때 해당 주제와 관련한 내용이 유저가이드에 언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저가이드의 변수가이드와 주제별 가이드에는 연구자들이 놓치기 쉬운 데이터의 핵심 내용을 최소한으로 요약한 것이므로 참조가 될 것이다.
5. 데이터 기초분석을 통해 관련 변수들의 빈도값이 코드북에 나와있는 빈도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missing값의 처리에 주의한다.

◎ FAQ에 사용된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

1. 아래의 예제 프로그램들은 노동패널 7차년도 Release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주의할 점은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경로(SAS의 경우 library name의 경로)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를 기본으로 가정했으며, **SAS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library name을 "ki"로 지정**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2. 아래의 예제 프로그램들은 단지 '예제'일 뿐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즉, 해당주제와 분석목적에 따라 노동패널팀 필자들과는 얼마든지 다른 정의와 구분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 면에서도 얼마든지 훨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Q 1

노동패널자료를 좀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을까?

연구자라면 누구나 자료에 대한 욕심을 갖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료를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정보들에 더욱 접근하고 싶어한다. 노동패널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왜 7차년도 자료가 아직까지 안나오는지 아우성이다(지금도 2006년 6월 중순이다). 노동패널팀에서는 이제 겨우 7차년도 자료를 release하려고 하는데 말이다.

우선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연구자들을 위해 우선 노동패널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래는 7차년도 자료가 release 되기까지의 과정이다.

- ① 조사설계 : 2004년 1~3월
- ② 현장실사 : 2004년 4~9월
- ③ 원자료 생성 및 1차 클리닝(실사업체) : 2004년 10월 ~2005년 1월
- ④ 원자료 가공 및 2차 클리닝(노동연구원 패널팀) : 2005년 2~7월
- ⑤ 학술대회용 자료 공개 : 2005년 8월
- ⑥ 자료 분석을 통한 feed back →에러의 심화체크: 2005년 9월 ~ 2006년 2월
- ⑦ 자료 CD, 유저가이드, 코드북 제작 : 2006년 3~5월
- ⑧ release버전 자료 공개 : 2006년 6월

이상과 같이 약 2년 6개월의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년도의 조사 및 데이터 발간 작업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준비 과정을 앞당기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양해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술대회에 연구계획서를 신청하는 것 뿐이다.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접수는 매년 6월 경에 공고가 나가서 8월 초까지 접수를 받으며, 일정한 통과절차를 거치면 학술대회용 CD를 제공받게 된다.

Q 2

SAS나 SPSS 파일을 다른 통계패키지 파일로 바꾸고자 할 때

노동패널 자료는 SAS 8.0, SPSS 11.0 이상의 버전에서 만들어졌다. 만일 SPSS 사용 자라면 낮은 버전의 패키지를 사용하더라도 자료를 불러오거나 다른 패키지로 전환할 때 별도의 주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SAS의 경우 각 버전마다 데이터파일의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에 변환해야 한다. 만일 이런 문제가 없는데도 자료를 불러올 수 없다면 자료에 에러가 발생한 것이므로 다시 자료를 수령해야 한다.

엑셀을 이용한 자료의 분석은 제약이 매우 크다. 엑셀로 전환가능한 최대 변수의 갯수는 255개인데, 노동패널자료의 변수 갯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료 전체를 엑셀로 바꾸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SAS나 SPSS에서 필요한 변수들만을 "Keep"한 후 이를 엑셀로 변환해주는 수밖에 없다.

SAS나 SPSS이외에 다른 통계패키지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우선 데이터를 ASCII파일이나 data파일로 바꾼 후, 다시 해당 패키지 파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많은 통계패키지들이 SAS와 SPSS파일을 변환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3

신규자료를 꼭 써야하는 이유, 그리고 개인자료와 신규자료 합치기
SAS Set 명령문, SPSS Add문 사용

※ 7차년도 release 자료부터는 신규자료에 수록된 관측치들이 개인자료(klips02p-klips07p)에도 동시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아래의 설명과 예제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패널자료를 사용하면서 Case merge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예컨대, 가구자료를 패널화하는 경우) 아래의 예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노동패널자료는 개인자료 외에도 신규자료가 존재한다. 신규자료는 새로이 조사가구에 결혼 등의 이유로 들어오게 된 가구원, 15세 이상이 되어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응답하게 된 가구원 등이 응답대상이다. 이들은 개인설문(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유형설문)에는 응답하지 않고 신규설문에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응답된 결과를 수록한 데이터가 바로 신규자료이다. 이들 상당수가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람들이므로 모집단을 유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단위의 분석을 실시할 때 해당변수와 일치하는 내용을 신규자료로부터 추출한다면 분석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 케이스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신규조사를 통해 새로 진입하는 개인들의 상당수가 원표본에 속하는 가구원 중에서 새로 15세가 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제외할 경우 모집단 중 일부를 체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신규자료를 개인자료와 병합(Merge)하는 것은 자료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제거하는 데에도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일반적인 분석상황에서 반드시 신규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붙여 함께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
*=====;  
* SAS- Set문의 사용 ;  
*=====;
```

```
data a1; set kli.klips07p(keep = pid p07001 p07027);
```

```
if p07017 in (1,2,3); *신규조사 응답자는 관측치에서 삭제;  
rename p07027 = employ; * 현재의 취업상태;
```

```
data a2; set kli.klips07n(keep = pid n07023);  
rename n07023 = employ;
```

```
data key; set a1 a2;  
proc freq table employ; run
```

```
*=====.  
* SPSS - Add문의 사용 .  
*=====.
```

```
get file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k\lips07p.sav'  
/keep pid p07027.
```

```
rename variables (p07027 = employ).  
save out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Wa1.sav'.
```

```
get file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k\lips07n.sav'  
/keep pid n07023.
```

```
rename variables (n07023 = employ).  
save out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Wa2.sav'.
```

*두 데이터 합치기(케이스 머지) : 데이터 경로를 정확히 써 주세요.

```
get file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Wa1.sav'.
```

```
ADD FILES /FILE=*
```

```
 /FILE='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Wa2.sav'.
```

```
FREQUENCIES VARIABLES=employ.
```

Q 4

개인자료와 부가자료 합치기
기준 변수 PID를 이용한 Merge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신규)에 있는 핵심 변수들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어떤 연구자가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45세 당시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지위가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비교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만45세 당시의 일자리 정보는 중고령자 자료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직업력 자료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변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병합해야 한다.

```
*=====;  
* SAS - Merge문의 사용 ;  
*=====;
```

```
data a1; set kli.klips06a(keep = pid a06058) ; *a06058 :만 45세당시의 종사상지위;  
flag = 1; *부가조사에 응답한 모든 개인에 1값을 부여;  
proc sort; by pid; run;
```

```
data a2(keep = pid j150); set kli.klips07w;  
if jobwave = 6 and mainjob = 1; *6차년도 주된 일자리 정보만 남기고 삭제;  
proc sort; by pid; run;
```

```
data a3; merge a1 a2; by pid;  
if flag = 1; *부가조사에 응답한 케이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  
run;
```

```
*=====.  
* SPSS - Match문의 사용 .  
*=====.
```

```
get file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klips06a.sav'  
/keep pid a06058.  
compute flag = 1.  
sort cases by pid.  
save out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Wa1.sav'.
```

```
get file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klips07w.sav'  
/keep pid j150.  
select if (jobwave = 6 and mainjob = 1);
```

```
sort cases by pid.  
save out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Wa2.sav'.  
MATCH FILES /FILE=*  
  /TABLE='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Wa1.sav'  
  /BY pid.  
  
CROSSTABS /TABLES=a06058 BY j150 .  
EXECUTE.
```

위의 프로그램은 SAS의 merge문과 SPSS의 Match문을 이용하여 variable merge를 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살펴보았던 Case Merge와는 달리 반드시 기준변수로 자료를 '정렬(sorting)'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Q 5

**가구자료와 개인자료 합치기
기준 변수 HHID**를 이용한 Merge**

노동패널자료에서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병합해서 사용해야할 경우가 많다. 예컨대,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총소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구성한다고 하자. 그리고 설명변수를 가구총소득, 자산, 부채, 총가구원수, 가구주의 성별, 연령,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등의 변수들로 구성한다.

이 때 다른 모든 변수들은 가구자료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는 개인자료에서 별도로 구성한 다음 가구자료로 붙여야 한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된다.

- ① 먼저 개인자료와 신규자료를 케이스 Merge한다.
- ② FAQ 24의 절차에 따라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를 구성한다.
- ③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만을 "keep"한다. 개인자료의 경우 'p07002 = 10'인 경우가 가구주에 해당한다.
- ④ 7차년도 개인자료와 7차년도 가구자료를 각각 hhid04을 기준으로 정렬("sort")한다.
- ⑤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의 병합은 앞서 FAQ Q4에서 다룬 '기준변수'를 이용한 Variable Merge를 이용하면 된다.

만일 6차년도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Merge한다면 -> hhid03

만일 5차년도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Merge한다면 -> hhid02

이런 식으로 기준변수를 정하여 Merge하면 된다.

Q 6

직업력자료에 개인의 성별, 연령 붙이기

개인단위의 일자리 정보를 모두 수록한 자료가 바로 직업력 자료이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직업력 자료에는 개인의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정보가 자료에 붙어있지 않은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다.

직업력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단위로 케이스가 만들어진 데이터 셋이다. 즉 한 개인이 1차 조사부터 지금까지 총 20개의 일자리를 가졌었거나 가졌다면 20개의 ‘행’이 생성된다. 더구나, 그 개인이 15세이후부터 1차조사 시점 직전까지 5개의 일자리를 가졌었다면, 20개의 일자리에 5개를 더하여 총 25개의 일자리 ‘행’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직업력 자료의 크기가 이미 방대하기 때문에 직업력 자료에는 가급적 변수를 최소화하였다. 즉, 개인의 인적정보는 연구자가 개인(신규)자료에서 붙여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직업력 자료에 개인의 인적정보를 붙이는 작업은 앞서 Q4에서 배웠던 ‘기준변수를 이용한 데이터 merge’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

```
*=====;  
* SAS - Merge문의 사용 ;  
*=====;
```

```
data a1; set kli.klips07p(keep = pid p07001 p07007);  
  rename p07001=sex p07007=age;  
proc sort; by pid;
```

```
data a2; set kli.klips07w;  
  if jobwave = 7 ;  
proc sort; by pid;
```

```
data work; merge a1 a2 ; by pid;  
  if jobwave = 7 ; run ;
```

```
*=====.  
*   SPSS   .  
*=====.
```

```
get file = "c:\Wdata\Wklips07p.sav"  
/keep pid p07001 p07007  
/rename (p07001=sex) (p07007=age).  
save out = "c:\Wdata\Wk07p.sav".
```

```
get file = "c:\Wdata\Wklips07w.sav".  
FILTER OFF.  
USE ALL.  
SELECT IF(jobwave = 7).  
EXECUTE .  
sort cases by pid.  
MATCH FILES /FILE=*  
  /TABLE='C:\WDATA\Wk07p.sav'  
  /BY pid.  
EXECUTE.
```

Q 7

원가구와 분가가구의 차이

노동패널조사는 가구패널조사로 1차년도 당시에 조사된 가구 5,000개 가구를 원가구로 해서 매해 추적 조사한다. 따라서, 노동패널의 모든 가구는 「원가구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1번가구부터 5000번 가구까지의 「원가구번호」를 갖게 된다. 7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hhid변수가 이 가구의 「원가구번호」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가·합가·소멸 등의 이유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결혼이나 분가 등의 이유로 원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에 대해서는 5001번부터 새로운 가구번호가 부여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분가가구라 하더라도, 1차년도 당시에 조사된 가구(즉 원가구)에 있던 가구원(즉 원가구원)이 분가하였을 경우에만 분가가구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가가구 내에 다른 가구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가구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가구가 소멸된 것을 간주하고 있다. 즉, 원가구일 경우에는 원가구번호인 hhid와 당해연도 가구번호인 hhid04(7차)은 같은 번호를 갖게 되지만, 분가가구의 경우에는 hhid와 hhid04은 다른 가구번호를 갖게 된다.

참고로 각년도별 분가가구번호를 살펴보면, 5000번 이내는 1차(1998) 원가구의 번호이며, 5001~5258번은 2차(1999)에 분가한 가구, 5259~5444번은 3차(2000)에 분가한 가구, 5445~5742번은 4차(2001), 5743~5982번은 5차(2002), 5983~6261번은 6차(2003)에 분가한 가구의 번호이다.

Q 8

hhid~hhid04 중에서 어떤 것을 가구 id로 사용해야 할까?
SAS 및 SPSS문 활용 예 : 가구데이터의 연도간 merge

위의 Q7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패널의 가구번호는 크게 당해연도 가구번호와 원가구번호로 구성된다. 노동패널 가구용 데이터에는 가구번호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는 노동패널 조사에 “한번이라도 응답한 적이 있는 모든 가구”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7차년도 가구용 데이터에는 hhid, hhid99, hhid00, hhid01, hhid02, hhid03, hhid04과 같이 7개의 가구번호가 있다. 이들은 각각 원가구번호(hhid), 2차가구번호(hhid99), 3차가구번호(hhid00), 4차가구번호(hhid01), 5차가구번호(hhid02), 6차가구번호(hhid03), 7차가구번호(hhid04)를 의미한다. 원가구번호는 Q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년도 조사당시의 가구번호를 의미하며, 2~7차 가구번호는 각 해마다 조사된 가구번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가구일 경우 해당년도의 가구번호가 missing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892번이었던 가구가 3차년도에 5150번 가구로 분가한 후, 5차년도에는 조사에 실패했다면, 이 가구의 가구번호는 hhid-892, hhid99-missing, hhid00-5150, hhid01-5150, hhid02-missing, hhid03-5150, hhid04-5150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일 연구자가 동일한 가구끼리 연도간 merge를 할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구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가구의 변동과 같은 특정상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원가구번호가 아닌 당해연도 가구번호를 기준으로 merge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예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 SAS - 가구용 데이터의 년도간 merge ;
=====;

```

※ library name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것;

```

DATA klips06h; set klips06h;
  hid=hhid03;
proc sort by hid; run;

```

```

DATA klips07h; set klips07h;
  hid=hhid04;
proc sort by hid; run;

```

```

DATA KLIPS_H; merge klips06h klips07h; by hid; run;

```

```

=====
* SPSS - 가구용 데이터의 년도간 merge .
=====

```

```

get file = "c:\wdata\klips06h.sav".
compute hid = hhid03.
sort cases by hid.
save out = "c:\wdata\klips06h.sav".

```

```

get file = "c:\wdata\klips07h.sav".
compute hid = hhid04.
sort cases by hid.
save out = "c:\wdata\klips07h.sav".

```

*머지 -> "add variables" -> key를 hid로 해서 "both files provide cases" 방식으로 머지.

```

get file = "c:\wdata\klips07h.sav".
MATCH FILES /FILE=*
  /FILE='C:\WDATA\klips06h1.sav'
  /RENAME (hhid hhid00 hhid01 hhid02 hhid03 hhid99 hwave01 hwave02 hwave03 hwave04 hwave05
hwave06 hwaveent sample98 version = d0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d13 d14)
  /BY hid
  /DROP= d0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d13 d14.
EXECUTE.

```

Q 9

15세 이상 가구원 수, 15세 미만 가구원수 구하기

가구자료를 이용한 분석모형을 구성할 때 가구원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 예컨대, 소득불평등 지표를 구성할 때 가구원수는 ‘조정계수’로 사용된다. 총가구원수는 가구자료에 변수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경제활동가능인구인 15세 이상 가구원수 같은 변수들이 중요할 수 있다. 여성노동시장 참가여부 모형을 구성할 때 5세미만 자녀수, 혹은 3세미만 자녀수 등이 중요한 도구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원 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성해야 한다. 6차년도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15세만 가구원수를 구해보자.

```
*=====;  
* SAS - 가구원수 만들기 ;  
*=====;
```

```
data a1; set kli.klips07h;  
  
if hwave07 = 1;  
  array p[15] tnum1-tnum15; *15세 이상 가구원수 더미;  
  array y[15] v07256-v07270; *가구원의 만나이;  
  
do i = 1 to 15 ;  
  if y[i] >= 15 then p[i] = 1;  
end;  
  
tnum = sum(of tnum1-tnum15); *15세이상 가구원수;  
num = v07100-tnum; *15세미만 가구원수;  
  
proc means; var v07100 tnum num; run;
```

```
*=====.  
* SPSS- Repeat문의 사용 .  
*=====.
```

*6차년도 가구용자료를 불러온 상태에서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if (v07256 >= 15) a1 = 1.
```

```

if (v07257 >= 15) a2 = 1.
if (v07258 >= 15) a3 = 1.
if (v07259 >= 15) a4 = 1.
if (v07260 >= 15) a5 = 1.
if (v07261 >= 15) a6 = 1.
if (v07262 >= 15) a7 = 1.
if (v07263 >= 15) a8 = 1.
if (v07264 >= 15) a9 = 1.
if (v07265 >= 15) a10 = 1.
if (v07266 >= 15) a11 = 1.
if (v07267 >= 15) a12 = 1.
if (v07268 >= 15) a13 = 1.
if (v07269 >= 15) a14 = 1.
if (v07270 >= 15) a15 = 1.
compute tnum = sum(a1 to a15).
compute num = v07100-tnum.
DESCRIPTIVES
  VARIABLES=tnum num
  /STATISTICS=MEAN STDDEV MIN MAX .

```

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총 7차년도 응답가구인 총 4,762케이스의 평균값이 아래와 같이 나올 것이다. 7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 평균 가구원 수는 3.3명이며, 15세 이상 가구원수는 2.7명이다. 또한, 15세미만 가구원수는 0.6명으로 나타난다.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가구원수	3.2	1.3	1	10
15세이상가구원수	2.6	1.2	1	8
15세미만가구원수	0.6	0.9	0	4

Q 10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 추출하기
SAS Array function, SPSS Repeat function 이용

가구자료를 이용하는 분석모형에서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핵심적인 변수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가구자료는 이들 정보에 대해 1가구 내 최대 15명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째 가구원의 정보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경우, SAS 사용자는 Array문을, SPSS 사용자는 Repeat문을 사용하여 쉽게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을 구성할 수 있다.

```
*=====;  
* SAS- Array문의 사용 ;  
*=====;
```

```
data a1; set kli.klips07h;  
  
if hwave07 = 1;  
  array x[15] v07181-v07195; *가구주와의 관계;  
  array y[15] v07166-v07180; *가구원의 성별;  
  array z[15] v07256-v07270; *가구원의 만나이;  
  
do i = 1 to 15;  
  if x[i] = 10 then hsex = y[i];  
  if x[i] = 10 then hage = z[i];  
end;  
  
proc freq; table hsex;  
proc means; var hage;  
run;
```

```
*=====.  
* SPSS- Repeat문의 사용 .  
*=====.
```

*7차년도 가구용자료를 불러온 상태에서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do repeat  
  
head = v07181 v07182 v07183 v07184 v07185 v07186 v07187 v07188 v07189 v07190 v07191 v07192 v07193 v07194  
v07195 /
```

```
sex = v07166 v07167 v07168 v07169 v07170 v07171 v07172 v07173 v07174 v07175 v07176 v07177 v07178 v07179  
v07180 /  
age = v07256 v07257 v07258 v07259 v07260 v07261 v07262 v07263 v07264 v07265 v07266 v07267 v07268 v07269  
v07270 .
```

```
if (head = 10) hsex = sex.  
if (head = 10) hage = age.  
end repeat.
```

Q 11**가구자료에서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추출
SAS set 명령문, SPSS Trans function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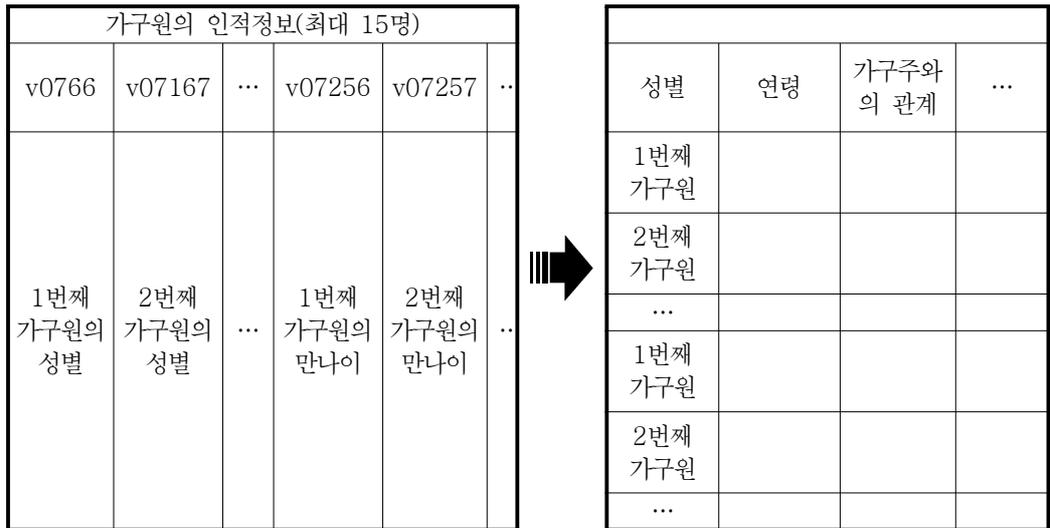
가구자료에 수록된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 등의 정보들은 노동패널탐에서 자체 가공하여 개인자료에 “(가구정보)”라는 라벨이 붙은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자료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가구자료에서 가구원의 인적 특성 정보들을 별도로 추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연구상황에 따라 개인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 특성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범용 통계패키지들은 행단위의 연단보다는 열단위(변수단위)의 연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료의 적절한 조작이 필요하다.

가구자료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1가구에 소속된 가구원일 경우 1개 case내에 붙어 있다. 예컨대, 1가구에 소속된 가구원이 10명이라면 1부터 15번째 가구원의 성별변수들 사이에 흩어져서 각각의 값이 들어가 있다.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가로형태로 붙어있는 성별변수를 개인 케이스별로 잘라내어 다시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케이스는 조사된 개인수에 따라 늘어나겠지만, 성별 변수는 원래 15개에서 1개로 줄일 수 있다.

<가구자료의 가구원 정보>



아래 프로그램은 매우 길어보지만 사실 우리가 앞서 FAQ Q3에서 배웠던 Case Merge를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

- ① 7차년도 가구자료로부터 1부터 15번째 가구원들의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변수를 추출하여 각각의 데이터로 만든다.
- ② 이렇게 생성된 15개의 데이터를 case merge하여 붙인다.
- ③ SPSS의 경우 기준변수를 이용한 trans 문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변환할 수 있다.

```
=====;
* SAS - SET 문의 사용 ;
=====;
```

```
data a1; set kli.klips07h;
  keep hhid04 v07121-v07135 /*pid*/ v07166-v07180 /*성별*/ v07181-v07195 /*가구주와의 관계*/
  v07256-v07270;/*만나이 */
  proc print; var hhid04 v07121-v07135 v07166-v07180;
  run;
```

```
data a1(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첫 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66 ^=.; rename v07121=PID v07166=sex v07181=rel v07256=age ;
data a2(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두 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67 ^=.; rename v07122=PID v07167=sex v07182=rel v07257=age ;
```

```

data a3(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세 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68 ^=.; rename v07123=PID v07168=sex v07183=rel v07258=age ;
data a4(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네 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69 ^=.; rename v07124=PID v07169=sex v07184=rel v07259=age ;
data a5(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다섯 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70 ^=.; rename v07125=PID v07170=sex v07185=rel v07260=age ;
data a6(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여섯 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71 ^=.; rename v07126=PID v07171=sex v07186=rel v07261=age ;
data a7(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일곱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72 ^=.; rename v07127=PID v07172=sex v07187=rel v07262=age ;
data a8(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여덟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73 ^=.; rename v07128=PID v07173=sex v07188=rel v07263=age ;
data a9(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아홉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74 ^=.; rename v07129=PID v07174=sex v07189=rel v07264=age ;
data a10(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열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75 ^=.; rename v07130=PID v07175=sex v07190=rel v07265=age ;
data a11(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열한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76 ^=.; rename v07131=PID v07176=sex v07191=rel v07266=age ;
data a12(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열두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77 ^=.; rename v07132=PID v07177=sex v07192=rel v07267=age ;
data a13(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열세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78 ^=.; rename v07133=PID v07178=sex v07193=rel v07268=age ;
data a14(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열네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79 ^=.; rename v07134=PID v07179=sex v07194=rel v07269=age ;
data a15(keep =hhid04 pid sex rel age); set ex4; *열다섯번째 가구원의 특성 추출;
  if v07180 ^=.; rename v07135=PID v07180=sex v07195=rel v07270=age ;

```

*Case Merge:

```

data allmember; SET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proc sort; by hhid04;
  proc print data =allmember(obs=50); run;
  proc means; var sex rel age;
  run;

```

```

=====
* SPSS - Trans 문의 사용 .
=====

```

```
get file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klips07h.sav'
```

```
/keep hhid04 v07121 to v07135 v07166 to v07180 v07181 to v07195 v07256 to v07270.
```

```
VARSTOCASES /ID = hhid04
```

```
/MAKE trans1 FROM v07121 v07122 v07123 v07124 v07125 v07126 v07127 v07128 v07129 v07130 v07131 v07132 v07133
v07134 v07135
```

```
/MAKE trans2 FROM v07166 v07167 v07168 v07169 v07170 v07171 v07172 v07173 v07174 v07175 v07176 v07177 v07178
```

v07179 v07180

```
/MAKE trans3 FROM v07181 v07182 v07183 v07184 v07185 v07186 v07187 v07188 v07189 v07190 v07191 v07192 v07193  
v07194 v07195
```

```
/MAKE trans4 FROM v07256 v07257 v07258 v07259 v07260 v07261 v07262 v07263 v07264 v07265 v07266 v07267 v07268  
v07269 v07270
```

```
/INDEX = Index1(15)
```

```
/KEEP = hhid04
```

```
/NULL = KEEP.
```

*이번 차수 조사된 가구와 가구원만 남기기.

```
FILTER OFF.
```

```
USE ALL.
```

```
SELECT IF(trans2 > 0).
```

```
EXECUTE .
```

*변수명 전환.

```
rename variable (trans1 = pid) (trans2 = sex) (trans3=rel) (trans4=age).
```

```
save out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allmember.sav'.
```

*필요없는 변수 제거 및 최종 데이터 저장.

```
get file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allmember.sav'
```

```
/drop hhid index1.
```

```
save out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allmember.sav'.
```

Q 12

사교육 자녀번호와 엄마번호 사용하기

SAS와 SPSS 활용 예 : 가구원정보와 자녀(엄마)번호 연결하기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는 사교육에 관한 변수들을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변수를 가구원 정보와 연결하여 사용하면,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가구원 정보와 사교육에 응답한 자녀번호(혹은 엄마번호)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가구 데이터에 사교육관련 자녀(혹은 엄마) 번호 변수의 경우에는 가구번호를 제외한 개인번호만이 제공되므로, 가구번호와 조합하여 새로운 자녀(혹은 엄마) 번호를 생성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자녀(혹은 엄마)번호를 가구번호와 조합한 후라도 「가구원 pid」는 다르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가구원 pid」는 개인의 고유번호로 해가 바뀌어도 동일한 개인번호를 계속 가져가지만, 자녀(혹은 엄마)번호는 조사당시 가구원이 당해연도 가구데이터 상에 있었던 위치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이다. 즉 가구 데이터의 경우 가구원의 정보가 15개까지 ‘행’으로 붙어있으므로, 자녀(혹은 엄마)번호가 “3”이라고 하면, 가구원 정보 중 “세번째”위치(예:v06168 성별3)한 개인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자. 우선, 지금 갖고 있는 노동패널 7차년도 가구자료(KLIPS07h)를 컴퓨터 화면에 펼치기 바란다. 데이터에서 7차년도 가구번호가 5150인 가구를 살펴보자.

FAQ Q7에서 보았듯이, 이 가구는 원가구번호가 892이며, 3차년도에 분가한 가구이다. 그런데, 3차년도 분가 당시 원가구 892번 가구에서 총 4명의 가구원이 함께 분가하였다. 분가한 가구원의 가구원 pid는 순서대로 89201, 89203, 89204, 89205 였다(※PID는 절대 변하지 않음을 명심하자). 이때, 5150가구의 가구원 성별변수를 살펴보면, 성별1(v07166)은 89201번의 성별이, 성별2(v07167)는 89203번의 성별이, 성별3(v07168)은 89204번, 성별4(v07169)는 89205번 가구원의 성별을 나타낸다(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FAQ Q11을 참조하기 바람).

자, 이제 5150번 가구의 자녀번호와 엄마번호에 대해 살펴보자. 5150번 가구의 첫째 자녀는 세 번째 가구원(pid 89204번)이고, 엄마는 두 번째 가구원(pid 89203번)이다. 따라서 자녀번호-1에는 “3”이라는 숫자가, 엄마번호-1에는 “2”라는 숫자가 부여된다. 새롭게 생성되는 자녀번호를 chpid이라고 한다면, chpid=515003번이 될 것이다(동일한 방법으로 엄마번호 mompid=515002가 됨).

위에서 보았듯이, chpid나 mompid는 가구원pid와는 다른 값이므로 merge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 추출정보에도 새로운 pid를 부여해주어야만 자녀(혹은 엄마) 번호와 정확하게 merge할 수 있다. 가구원 추출정보에 새로운 pid를 부여하는 것은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가구원에 hmem01과 같은 변수를 부여하고 “1”이라는 값을 준 후, 가구번호와 조합하여 사용하면 된다. 아래의 예제를 실행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될 것이다.

```
=====;
* SAS - 자녀(엄마)번호와 가구원정보 merge ;
=====;

/*6차년도 사교육 관련변수 keep*/
data A1; set kli.klips07h
(keep= hwave07 hhid04 v07609 v07610 v07611 v07612 v07622 v07623 v07633 v07634 v07644 v07645 v07655 v07656);
if v06609=1;

/*자녀번호-1 번호만들기*/
data B1; set A1;
if v07611 ^=. ;
chpid = hhid04*100+v07611;
proc sort; by chpid;

data C1; set B1;
keep hhid04 chpid hwave07 v07609 v07610 v07611;
proc sort; by chpid;
```

/*자녀번호-2 번호만들기*/

이 과정은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 - C2
이렇게 만들어진 DATA SET을 종으로 붙임
DATA CH; set C1 C;
proc sort; by dnpid; run;

/*당해년도 가구원 번호 생성*/

data P; set kli.klips07h;
KEEP hhid04 v07121-v07135 v07166-v07180 ;run ;

DATA P1; SET P;

IF v07166 ^=.;

hmem04=1 /*개인번호7차*/

RENAME v07121=P1D /*개인고유번호*/

v07166=P06001; /*성별*/

dnpid=hhid04*100+hmem04;

proc sort; by dnpid;

이후 모든 가구원에 대해서 추출한 후 앞에서처럼 SET함.

/*자녀번호와 가구원추출정보 merge*/

data CH; merge CH P1; by dnpid;

if hwave07=. then delete; run;

=====
* SPSS - Trans 문의 사용 .
=====

get file = 'C:\W6차년도release자료\W6차년도자료\kcli06h.sav'

/keep hhid03 v06121 to v06135 v06166 to v06180 v06181 to v06195 v06256 to v06270.

VARSTOCASES /ID = hhid

/MAKE trans1 FROM v06121 v06122 v06123 v06124 v06125 v06126 v06127 v06128 v06129 v06130 v06131 v06132 v06133
v06134 v06135

/MAKE trans2 FROM v06166 v06167 v06168 v06169 v06170 v06171 v06172 v06173 v06174 v06175 v06176 v06177 v06178

```
v06179 v06180
/MAKE trans3 FROM v06181 v06182 v06183 v06184 v06185 v06186 v06187 v06188 v06189 v06190 v06191 v06192 v06193
v06194 v06195
/MAKE trans4 FROM v06256 v06257 v06258 v06259 v06260 v06261 v06262 v06263 v06264 v06265 v06266 v06267 v06268
v06269 v06270
/INDEX = Index1(15)
/KEEP = hhid03
/NULL = KEEP.
```

*이번 차수 조사된 가구와 가구원만 남기기.

```
FILTER OFF.
USE ALL.
SELECT IF(trans2 > 0).
EXECUTE .
```

*변수명 전환.

```
rename variable (trans1 = pid) (trans2 = sex) (trans3=rel) (trans4=age).
save out = 'C:\W6차년도release자료\W6차년도자료\allmember.sav'.
```

*필요없는 변수 제거 및 최종 데이터 저장.

```
get file = 'C:\W6차년도release자료\W6차년도자료\allmember.sav'
/drop hhid index1.
save out = 'C:\W6차년도release자료\W6차년도자료\allmember.sav'.
```

Q 13

사교육 이용기관의 변동사항 : 연도별 차이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의 사교육에 관한 변수들을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특히 사교육 이용기관은 해마다 사회적 변화를 적당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항목이 변경·추가되어 왔으므로,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사교육 이용기관과 관련된 변수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사교육기관의 항목은 그 숫자도 많은데다가 연도별로 계속 항목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또 어린이방(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놀이방과 사설놀이방, 5차부터 사라진 탁아소와 유아원 등의 항목간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아래의 항목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관련항목 : V. 주제별 가이드, <표 5-9> 참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주요 특징	사교육관련 문항이 유무	○	×	○	○	○	○	○	
	'탁아모' 관련 문항이 유무	○	×	○	○	×	×	×	
이용 기관	탁아소	○	×	○	○	×	×	×	
	어린이방 (어린이집)	국공립(국립사립구립등) 어린이집	○	×	○	○	○	○	○
		민간 어린이집					○	○	○
	놀이방 (혹은 사설놀이방)	○	×	○	○	○	○	○	
	유아원	○	×	○	○	×	×	×	
	직장보육시설	○	×	○	○	○	○	○	
	시간제유치원(:정규시간이외에보육을 맡아주는 경우1)	○	×	○	○	○	○	○	
	종일제유치원(:정규시간이외에보육을 맡아주는 경우1)							○	
	정규유치원(: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경우)	○	×	○	○	○	○	○	
	(보육/교육기관) 기타	×	×	○	○	○	○	○	
	학원	보습학원	○	×	○	○	○	○	○
		예체능학원	○						
	개인·그룹과외	×	×	○	○	○	○	○	
	학습지	×	×	○	○	○	○	○	
	방과후교내보충학습	×	×	○	○	○	○	○	
	방과후교실	×	×	○	○	○	○	○	
	동거하고있는 가족/친지	○	×	○	○	×	×	○	
	비동거하고있는 가족/친지	○	×	○	○	×	×	○	
	동거하는 타인	○	×	○	○	×	×	○	
	비동거하는타인	○	×	○	○	×	×	○	
(탁아모 관련) 기타	○	×	○	○	×	×	×		
어학연수	×	×	×	×	×	×	○		
인터넷(온라인 교육)유료강좌	×	×	×	×	×	×	○		
항목수		14	0	18	18	12	12	19	

주: 1차에는 놀이방으로 조사되었으나, 5차부터는 놀이방이 삭제되고 사설놀이방으로 변경

Q 14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방법 SAS문 활용 예 : 가구 총소득 구성하기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에서 조사되는 가구소득 항목은 ① 근로소득 ② 금융소득 ③ 부동산소득 ④ 사회보험 수혜금 ⑤ 이전소득 ⑥ 기타소득 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용 자료에 있는 소득들은 이미 가구 단위로 합산이 되어 있는 값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구용 자료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한 값을 의미한다. 만일 연구자가 가구원 각각의 소득을 알고 싶다면, 개인용 자료에서 가구원 각각의 근로소득을 추출하여야 한다.

만일 가구의 총소득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6가지 항목별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다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은 다시 세분하여 질문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예컨대 금융소득의 경우 ㉠ 은행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 주식/채권 매매차익 ㉣ 배당금 ㉤ 기타 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가구의 금융소득은 이들을 모두 합한 값이 된다.

```
*=====;  
* SAS - 가구 총소득 구성하기 ;  
*=====;
```

```
data a1; set kli.klips07h;  
* income;  
/* 결측치의 처리 */  
array x[ 25] v07691 v07693-v07697 v07699-v07703 v07717-v07721 v07730-v07733 v07707 v07709 v07711 v07713  
v07715;  
  
do i = 1 to 25;  
  if x[i]=999999 then x[i]=.;  
end;  
  
* 항목별 소득총계;  
inc_e = v07691;          *earned income;
```

```

inc_m = sum(of v07698-v07697);      *monetary income;
inc_p = sum(of v07699-v07703);      *immovable property income;
inc_i = sum(of v07707 v07709 v07711 v07713 v07715); *social insurance;
inc_t = sum(of v07717-v07721);      *transfer income;
inc_o = sum(of v07730-v07733);      *other income;

```

* 소득유무;

```

inc_ey = v07690;   inc_my = v07692;   inc_py = v07698;
inc_iy = v07704;   inc_ty = v07716;   inc_oy = v07729;

```

*소득이 0원인 경우 처리;

```

if inc_my =1 & inc_m = . then inc_m = 0;
if inc_py =1 & inc_p = . then inc_p = 0;
if inc_iy =1 & inc_i = . then inc_i = 0;
if inc_ty =1 & inc_t = . then inc_t = 0;
if inc_oy =1 & inc_o = . then inc_o = 0;

```

*annual total income;

```

inc=sum(of inc_e inc_m inc_p inc_i inc_t inc_o);
if inc = . then inc = 0;

```

```

=====
*   SPSS - 가구 총소득 구성하기   .
=====

```

*가구데이터를 불러 온 후 실행.

*income;

*결측치의 처리.

RECODE

```

v06633 v06635 to v06639 v06642 to v06646 v06661 to v06665 v06674 to v06677 v06651 v06653 v06655 v06657
v06659 (999999=SYSMIS) .

```

EXECUTE .

*항목별 소득총계.

```

compute inc_e = v06633.          /*earned income.

```

```
compute inc_m = sum(v06635 to v06639).      /*monetary income.
compute inc_p = sum(v06642 to v06646).      /*immovable property income.
compute inc_i = sum(v06651 v06653 v06655 v06657 v06659). /*social insurance.
compute inc_t = sum(v06661 to v06665).      /*transfer income.
compute inc_o = sum(v06674 to v06677).      /*other income.
```

*소득유무;

```
compute inc_ey = v06632.
compute inc_my = v06634.
compute inc_py = v06641.
compute inc_iy = v06648.
compute inc_ty = v06660.
compute inc_oy = v06673.
```

*annual total income.

```
compute inc =sum(inc_e inc_m inc_p inc_i inc_t inc_o).
```

Q 15

연평균가구소득과 지난 한달간 소득의 차이점

노동패널 가구용 조사에서는 지난해 연평균 가구소득과 지난 한달간 소득을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연평균가구소득’과 ‘지난한달간 소득’은 말 그대로 가구 전체의 소득을 의미하며 단지 시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소득항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일까. 예컨대 어떤 가구가 2005년에 분가하였다고 하자. 혹은 지난해 가구내 모든 구성원들이 실직상태였다가 올해부터 일을 시작한 가구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가구들은 지난해 소득에는 없었으나, 지난 한달 간 소득은 존재하는 가구들이다. 반대로 지난해에는 정상적인 가구소득이 관찰되었지만 두 달 전에 실직한 가구원이 있다면, 지난해 연평균가구소득을 월평균으로 바꾼 값이 지난 한 달간 소득에 비해 클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분석상의 시의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노동패널조사는 연단위로 행해지는 조사이며,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연구자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난해 연평균가구소득만’을 질문할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한다하더라도 2년 전의 연평균가구소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 2006년도 release data 이용시 → 7차년도 가구용 자료 이용 가능(2004년에 조사한 데이터) → 2003년도 한해 동안의 연평균 가구의 근로소득이 파악됨). 그러나, ‘지난한달간 소득’은 소득 추정기간이 짧아, 지난한달 동안만 가구소득이 유난히 높았을(혹은 낮았을) 경우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평균가구소득이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보다 세부적 항목 단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반면, 지난한달간 소득의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 총액만이 파악 가능하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지난한해 연평균 가구소득]이나 [지난한달간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1~7차년도 가구소득 관련변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문 **V. 주제별 가이드, 1.2.2 가구소득**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Q 16

생활비 항목에 대한 설명

생활비는 지난 한해 동안의 가구전체가 지출한 생활비 총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가구자료에서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와 같이 생활하는데 드는 돈만을 의미하므로, 가구 전체의 소비수준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즉, 혼수 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의 액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액 등은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관련 설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생활비 항목은 1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고, 매해 항목이 수정되어 왔으며 7차년도에는 총 17개 항목에 대해 조사되었다(본문 V. 주제별 가이드; 1.2.3 가구소비; <표 V-4> 1~7차년도 가구소비 관련 변수 참조).

또한 생활비의 항목별 액수 뿐 아니라 전체 월평균 생활비 액수 또한 묻고 있으므로, 생활비 총액만 필요할 경우 '생활비 총액' 변수(7차년도 : v07747)만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생활비 항목별 액수의 총합'과 '생활비 총액'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사과정에서 면접원들에게 두 항목이 대략적인 일치는 권고하지만 이를 강제적 지침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편향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Q 17

금융자산과 부채 변수 구성하는 방법 SAS 및 SPSS문 활용 예 : 자산과 부채액 구성하기

1. 금융 자산

금융자산과 금융소득을 혼동하는 연구자들이 종종 있다. 우선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란 금융기관 혹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같이 가지고 있는 돈의 총액을 의미하는 반면, ‘금융소득’은 이러한 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예: 이자소득, 배당금)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가구용 설문에서는 금융자산의 소유여부를 각 항목별로 질문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 총액을 질문한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가구의 ‘금융자산’ 전체 액수를 필요로 한다면 각 항목에 대한 총액을 모두 합산해서 사용해야 한다(※ 주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

2. 부동산 자산

‘가구부채’는 ‘금융자산’과 유사한 구조로 조사되고 있다. 즉 항목별로 부채유무를 질문한 후, [예]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상환해야할 잔액을 묻는다. 따라서, 현재 가구에 남아있는 부채의 총액은 각 항목의 잔액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다만, 부채항목에는 이외에도 ‘현재까지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액수를 각각의 항목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잔액’ 및 ‘원금과 이자상환금’을 합산할 경우 처음 돈을 빌릴 당시의 부채액도 구할 수 있다.

```
*=====;  
* SAS - 가구 자산과 부채 구성하기 ;  
*=====;
```

```
data a1; set kli.klips07h;
```

```
*금융자산;
```

```
array af[6] v07804 v07806 v07808 v07810 v07812 v07814;
```

```
do i = 1 to 6;
```

```
if af[i] = 999999 then af[i] = .;
```

```
end ;
```

```
if v07803=1 or v07805=1 or v07807=1 or v07809=1 or v07811=1 or v07813=1 then fin_y=1 ;
```

```
fin1 = v07804; * 은행예금 액수;
```

```
fin2 = v07806; * 주식, 채권, 신탁 액수;
```

```
fin3 = v07808; * 저축성보험 액수;
```

```
fin4 = v07810; * 아직 타지 않은 계 액수;
```

```
fin5 = v07812; *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돈 액수;
```

```
fin6 = v07814; * 기타 금융자산 액수;
```

```
fin = sum(of fin1-fin6); * 금융자산 총액 ;
```

```
* 부채;
```

```
array a[6] v07818 v07821 v07824 v07827 v07830 v07833;
```

```
do i = 1 to 6;
```

```
if a[i] = 999999 then a[i] = .;
```

```
end ;
```

```
if v07817=1 or v07820=1 or v07823=1 or v07826=1 or v07829=1 or v07832=1 then deb_y=1 ;
```

```
* 부채 총액;
```

```
deb = sum (of v07818 v07821 v07824 v07827 v07830 v07833);
```

```
* 항목별 부채액수;
```

```
deb1 = v07818;
```

```
deb2 = v07821;
```

```
deb3 = v07824;
```

deb4 = v07827;

deb5 = v07830;

deb6 = v07833;

```
=====.  
* SPSS - 가구 자산과 부채 구성하기 .  
=====.
```

*가구자료를 불러온 후 실행.

*금융자산.

```
RECODE  
  v06744 v06746 v06748 v06750 v06752 v06754 (999999=SYSMIS) .  
EXECUTE .  
if (v06743=1 or v06745=1 or v06747=1 or v06749=1 or v06751=1 or v06753=1) fin_y=1.  
compute fin1 = v06744. /* 은행예금 액수.  
compute fin2 = v06746. /* 주식, 채권, 신탁 액수.  
compute fin3 = v06748. /* 저축성보험 액수.  
compute fin4 = v06750. /* 아직 타지 않은 계 액수.  
compute fin5 = v06752. /*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돈 액수.  
compute fin6 = v06754. /* 기타 금융자산 액수.  
compute fin = sum(fin1 to fin6). /* 금융자산 총액.
```

*부채.

```
RECODE  
  v06758 v06761 v06764 v06767 v06770 v06773 (999999=SYSMIS) .  
EXECUTE .  
if (v06757=1 or v06760=1 or v06763=1 or v06766=1 or v06769=1 or v06772=1) deb_y=1.  
* 부채 총액.  
deb = sum (v06758 v06761 v06764 v06767 v06770 v06773).  
* 항목별 부채액수.  
compute deb1 = v06758.  
compute deb2 = v06761.  
compute deb3 = v06764.  
compute deb4 = v06767.  
compute deb5 = v06770.  
compute deb6 = v06773.
```

Q 18**부동산 자산의 시가 관련 문항의 구조**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는 ① ‘현재 집을 제외한 부동산’ ②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 ③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 임차’에 대해서 묻고 있다(※ 현재 ‘본인의 가족만 살고 있는 집’이나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의 보증금’은 주거관련 문항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설문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각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후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종류와 시가 총액을 질문한다. 그런데, 응답자가 부동산의 시가 총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범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범주화 된 문항에 응답하는 응답자가 많으므로, 시가총액을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에서 모두 제외시키면, 실제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속형 부동산 시가총액을 범주화하던지, 범주형 부동산 시가를 연속형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Q 19**2, 3차년도 가구자료의 주택종류와 평수에 결측치가 많은 이유**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에서 입주형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거주시기는 전년도 조사이후에 이사하였거나 이사하지는 않았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1차년도 조사 이후에 주거사항이 변화가 없는 가구라면, 2차~3차 가구자료에서 주택종류와 평수가 missing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2차~3차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앞서 FAQ Q8에서 살펴보았던 「기준변수를 이용한 가구자료간 데이터 'Merge」를 참조하기 바란다.

Q 20

지니계수 구하기

최근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활용도가 빈번한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구하는 예제를 살펴보자.

가구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 소득’(혹은 가구 소비)과 관련된 변수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Q14 가구소득 구성하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
*=====;  
* SAS - 지니 계수 구하기 ;  
*=====;  
*여기서 income변수는 앞서 Q14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구총소득 변수임;
```

```
data a1; set Kli.klips07h(keep = income);
```

```
k=1;  
proc sort; by decending income;  
proc means noprint; var income;  
output out = in1 sum=sincome n = n1;
```

```
data in1; set in1; k=1;
```

```
data b1; merge a1 in1; by k;  
isi = _n_*incom/sincome;  
proc means noprint; var isi;  
output out = gini sum = ssi N=n1;
```

```
data gini; set gini;  
gini = 1-1/n1-2*ssi/n1;  
proc print; var gini;  
run;
```

Q 21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구하기

빈곤율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사용된다. 빈곤율을 산출하는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사용한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의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절대빈곤율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 수별 기초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를 빈곤선 이하의 가구로 정하여 계산한다. 또한 절대빈곤율 계산에서의 차상위계층이란 빈곤선의 120%의 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한편 상대빈곤율은 가구총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의미하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70%에 속하는 계층을 말한다

아래는 SAS를 이용한 빈곤율 산출프로그램 예제이다. SPSS 프로그램은 생략한다.

```
*=====;  
* (SAS문) 빈곤가구 구하기 ;  
*=====;
```

* 절대빈곤가구;

```
data p1; set kli.klips07h; *여기서 inc변수는 Q14에서 만들어진 가구총소득 변수임;  
if inc=0 then inc=.;  
if inc=. then delete;
```

```
incm = inc/12 ;
```

```
if wave = 7 then do ;
```

* 7차년도의 경우 2003년도 소득이므로, 2003년 기초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함;

```

    if f_num = 1 & 0 < incm < 35.6 then pov = 1;      *빈곤층;
else if f_num = 2 & incm < 58.9 then pov = 1 ;
else if f_num = 3 & incm < 81.0 then pov = 1 ;
else if f_num = 4 & incm < 101.9 then pov = 1 ;
else if f_num = 5 & incm < 115.9 then pov = 1 ;
else if f_num = 6 & incm < 130.8 then pov = 1 ;

else if f_num = 1 & 35.6<=incm < (35.6*1.2) then pov = 2;  *차상위;
else if f_num = 2 & 58.9<=incm < (58.9*1.2) then pov = 2;
else if f_num = 3 & 81.0<=incm < (81.0*1.2) then pov = 2;
else if f_num = 4 & 101.9<=incm < (101.9*1.2) then pov = 2;
else if f_num = 5 & 115.9<=incm < (115.9*1.2) then pov = 2;
else if f_num = 6 & 130.8<=incm < (130.8*1.2) then pov = 2;

else pov = 0;
end ;
proc sort; by hhid; run;

```

* 상대 빈곤 가구;

```

data a2; set kli.klips07h;
if inc=0 then inc=.;
if inc=. then delete;
incr= inc/sqrt(fnumb);
proc sort by hhid; run;
proc means median; where wave=7; var incr; run; * 중위소득액 구하기;

```

```

data p2; set emp.hwave;
if inc=0 then inc=.;
if inc=. then delete;
inc= inc/sqrt(fnumb);

```

```

if wave = 7 then do ;
    if inc < (중위소득액*0.5) then r_po = 1 ; *빈곤;
else if inc < (중위소득액*0.7) then r_po = 2 ; *차상위;
else if inc < (중위소득액*1.5) then r_po =3 ; *중산층;
else r_po = 4 ; *상위;
end ;
proc sort by hhid; run;

```

Q 22**개인의 인적특성(성별, 연령, 학력) 변수들이 필요할 때**

개인의 학력,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등 인적특성 정보는 가구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구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이와 같은 인적특성 항목들은 개인, 신규, 부가자료에도 붙여서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때에는 개인의 인적특성 변수를 가구자료로부터 추출하여 붙이기 위해 고생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개인 및 신규 설문지는 15세 이상인 가구원들에게만 배포되므로, 15세 미만 학령기 아동의 인적 특성과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자료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추출하여야 한다(FAQ Q11을 이용하기 바란다). 가구자료의 개인정보 관련변수는 7차년도 가구자료 기준으로 v07106부터 v07555까지이다.

Q 23

종사상 지위, 임금/비임금 근로 구분의 기준

1. 종사상 지위의 구분

노동패널자료에서 종사상 지위 즉, 상용·임시·일용·자영업자/고용주·가족종사자를 구분하는 조사항목은 유형설문에 있다. 유형마다 문항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유형 1, 2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상용·임시·일용·일용직 여부가 바뀌었는지를 묻는다.

유형 3, 4도 지난 조사와 비교해 종사상 지위가 바뀌었는지를 묻는다.

유형 5, 6은 현재 종사상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유형 7, 8도 현재 종사상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유형 1~4는 지난 조사로부터 이어져온 일자리이므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변했는지”만을 질문하면 충분하다. 유형 5~8은 새로 시작한 일자리이므로 현재 종사상 지위를 질문해야 한다. 분석을 위해 종사상 지위 변수가 필요할 때에는 “p07736 : (주된일자리)종사상지위-현재(또는 최종)” 변수를 이용하면 된다. 직업력을 이용할 경우 “j150 : 종사상의 지위-현재(또는 최종)”을 이용하면 된다. 유형 1~4에 응답한 경우 이전년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가져와 채워 놓았다.

2. 임금/비임금의 구분

임금/비임금 근로를 구분할 경우 유형설문을 통해 조사된 종사상 지위 변수 외에도 취업자 개인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는 “p07027 : (공통)취업형태”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변수는 “문4 그렇다면 ____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데, 취업자 개인 설문을 통해 조사되는 취업형태 변수와 유형설문을 통해 조사되는 종사상 지위 변수가 일치하는 응답을 주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다룰 때 가

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응답의 비일관성” 문제이다.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경계가 불분명한 일자리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이 그대로 설문조사에 투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클리닝 과정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KLIPS 관리자들과의 권고는 임금/비임금 근로를 구별할 때에는 취업형태(p07027) 변수 말고 종사상 지위(p07736) 변수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자리 관련 변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여 결측치(missing value)를 줄이는 방법이다.

Q 24

경제활동상태 변수 만들기

경제활동상태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주제별 가이드 페이지 ____ 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예제를 통해 경제활동상태를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아래 예제는 7차년도 개인자료를 이용한 경제활동상태의 구성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개인의 종사상지위와 경제활동상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종사상 지위는 유형설문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취업/미취업 여부, 그리고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공통과 미취업자공통 설문을 통해 구성된다(FAQ Q23을 참조하라).

이 경우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는 기본적으로 취업자 및 미취업자 공통 설문변수를 기준으로 만들것을 권고한다.

```
*=====;  
* SAS를 이용한 경제활동상태의 구성;  
*=====;
```

```
data a1(keep = pid hhid04 empst econst ); set k1i.klips07p;
```

```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
```

```
    if p07736 ^= .          then empst = p07736; *임금근로자 1=상용, 2=임시, 3=일용;  
    else if p07736 = 4 & p07721 = 1 then empst = 4   *고용주;  
    else if p07736 = 4          then empst = 5   *자영업자;  
    else if p07736 = 5 & p07028=1 then empst = 6   *가족종사자(주당18시간 이상);
```

```
*경제활동상태;
```

```
    if p07021 = 1          then econst = 1;   *취업자  
    else if p07420 = 1 & p07422 = 1 then econst = 2; *ILO기준 실업자;  
    else                    econst = 3;   *비경제활동인구;
```

```
proc freq table empst econst; run
```

=====.
* SPSS를 이용한 경제활동상태의 구성 .
=====.

get file = 'C:\W7차년도release자료\W7차년도자료\klips07p.sav'.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compute empst = p07736. /*임금근로자 1=상용, 2=임시, 3=일용.  
if (p07736 = 4) empst = 5. /*자영업자.  
if (p07736 = 4 and p07721 = 1 ) empst = 4. /*고용주.  
if (p07736 = 3 and p07028 = 1) empst = 6. /*가족종사자(주당 18시간 이상).
```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

```
compute econst = 3. /*비경제활동인구.  
if (p07021 = 1) econst = 1. /*취업자.  
if (p07420 = 1 and p07422 = 1) econst = 2. /*ILO 기준 실업자.
```

Q 25

노동패널자료의 정규/비정규직 비중은 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보다 낮을까?

노동패널자료의 신뢰성을 문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패널자료의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낮다는 불평을 한다. 사실 이런 불평이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1999년 이후 50%를 넘어선 반면, 노동패널자료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고작해야 22~23%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패널조사에서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도 측정하고 있다. 즉,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 해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역시 22~23% 정도만이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무리 조사표본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경황조사」보다 절반이상 낮은 수준의 수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패널조사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실업률, 산업별 및 직종별 취업자 비율,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 거의 대부분의 핵심변수들은 기준통계자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독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노동패널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패널팀에서 제시하는 해답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상 지위

노동패널의 종사상 지위 구분은 순수하게 근로계약만을 기준으로 (임시직은 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반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종사상 지위를 정하고 있다. 우선, 노동패널과 같이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1차적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여부를 구분한다. 그러

나, 상용직이라고 응답했다 하더라도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의 규범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지 여부, 퇴직금 및 상여금 수령여부, 부가급여의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중 차별적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시·일용직으로 다시 재분류한다.

이러한 조사상의 차이로 인해 노동패널과 경찰조사는 동일한 이름의 ‘종사상 지위’를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표본의 차이, 조사원의 전문성 등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2.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측정

종사상 지위 이외에도 3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조사연도에는 이른바 ‘자기 선언적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 측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선언적 규정이란 앞서 종사상 지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설문지 상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를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만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 문항에도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문항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났다(노동패널 홈페이지 : 리서치브리프 No1.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조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참조).

3.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측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패널은 5차년도 조사부터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을 도입하였다. 즉, 통계청의 비정규직 측정을 위한 부가조사문항을 반영하여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시근로자(Contingent work)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독립도급, 가내근로 등 대안적 고용형태(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통계청의 부가조사 분석결과와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4. 노동패널 비정규직 측정의 특징

따라서, 종사상 지위가 통계청 조사와 그 비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나 이는 조사 설계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용어 기준에 의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동패널에서는 퇴직금, 부가급여 등 일자리 특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한다. 따라서, 이들 요인을 통제할 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통계청 조사와 거의 비슷한 종사상 지위 비중이 산출될 수 있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양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보다 풍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새로운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해보았다. 아래 표를 보면 우선, 종사상 지위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비정규직 비율은 21.9%로 나타났다. 두 번째, 상용직 전일제 근로자만을 정규직으로 보았을 때에는 비정규직이 23.8%로 증가하였다. 세 번째, 상용직 전일제 중에서 퇴직금을 적용받지 않거나 부가급부상의 차별적인 적용을 받을 경우를 정규직에서 제외할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42.4%로 증가하였다. 네 번째, 세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고용형태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4.8%까지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비율이 통계청의 경황조사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대략적인 수준에서의 비교는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기준		빈도	비율
기준1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경우	893	21.9
기준2	기준1+ 상용직이면서 시간제라고 응답한 경우	972	23.8
기준3	기준2+ 퇴직금 비적용 및 주요 부가급부 차별적용	1822	42.4
기준4	기준3+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 호출, 기간제 근로자	2253	54.8
전체		4083	100.0

주 : 신규자료 제외. 6차년도 자료를 이용했으므로, 7차년도 release자료와 약간의 빈도차이가 있을 수 있음.

퇴직금 비 제공자 :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중 비율임.

부가급부 : 유급휴가 및 병가 차별적용, 여성의 경우 생리 및 출산휴가 차별적용.

Q 26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변수에 결측치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이는 노동패널의 근로시간 변수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이다. 주로 “p07739 : (주된일자리)주당 평균 근무시간(임금)” 변수만을 이용하였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노동패널에서는 **유형설문**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조사한다. 유형설문에서의 근로시간 관련 항목은 임금근로자일 경우와 비임금근로자일 경우 각각 질문 형태가 다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 ①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 ②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했는지
- ③ 정해져 있을 경우 정규근로시간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이나 되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임금근로자일 경우 한 문항으로 간단하게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 질문한다.

아래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변수 생성방법 예제이다.

```
*=====;  
*   SAS                               ;  
*=====;  
  
data a1; set kli.klips07p;  
  array x[*] p07739 p07741 p07744;  
  do i = 1 to 3;  
    if x[i] = 999 then x[i] = .;  
  end;
```

```
if (p07738 = 2) then worktime = p07739;
else if (p07738 = 1 and p07743 = 1) then worktime = p07741;
else if (p07738 = 1 and p07743 = 2) then worktime = sum(p07741,p07744);
run;
```

```
*=====
*   SPSS
*=====
```

RECODE

```
p07739 p07741 p07744 (999=SYSMIS) .
```

EXECUTE .

```
if (p07738 = 2) worktime = p07739.
```

```
if (p07738 = 1 and p07743 = 1) worktime = p07741.
```

```
if (p07738 = 1 and p07743 = 2) worktime = sum(p07741,p07744).
```

Q 27

임금 및 소득 변수의 평균값 추이가 들락날락하고, 너무 큰 값이 나올 때

임금, 소득 변수의 평균값을 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무응답의 처리이다. 노동패널의 임금 및 소득 변수는 모두 6자리로 top-coding을 하며, 무응답일 경우 '999999'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무응답을 결측치로 바꿔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값이 커지거나 추이가 안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노동패널팀에서 일괄적으로 무응답을 결측치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자의 입장에서 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무응답과 결측값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문제이므로 999999를 결측치로 재처리해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100억에 달하는 월평균임금을 보고한 사람들은 없었으므로, top-coding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임금, 소득 관련 변수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기초통계량을 구하여 코드북에 기재된 빈곤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무응답 값을 처리하기를 권장한다.

Q 28

개인자료에 부업 관련 정보를 붙이고자 할 때

개인자료에는 주업과 관련된 정보만 들어 있다. 따라서 부업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직업력을 이용해 부업 관련 정보를 찾아낸 후 이를 개인자료에 다시 붙여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차년도에 조사된 개인의 부업을 찾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직업력에서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자리가 이들 개인의 부업이 된다.

- ① 조사년도를 의미하는 jobwave변수가 7,
- ② 주업을 의미하는 mainjob이 0,
- ③ 일자리의 현재 지속여부를 알 수 있는 jobclass가 1, 3, 5, 7.(1, 3, 5, 7만 남기는 이유는 이들 일자리가 조사시점 현재 지속 중인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걸러진 데이터를 개인자료와 pid를 기준으로 붙이면 된다.

Q 29

부모님의 학력,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가구자료를 이용해 부모님의 학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복잡한 작업일 뿐 아니라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 학력을 찾을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신 1차년도 조사에서 모든 응답개인들에게 부모의 학력과 14세 당시 부모의 직업에 대해 질문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정보는 1차년도 개인자료와 매 회의 신규자료에 들어있다. 다만, 이 경우 설문이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을 기준으로 묻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어머니의 직업은 14세 당시 아버지가 없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4차년도 신규조사자부터 질문했으므로 불완전한 정보이다.

예제를 통해 6차년도 개인자료에 부모의 학력과 14세 당시 부모의 직업 관련 변수를 붙이는 방법을 예시하겠다.

```
*=====;  
* SAS - 부모의 학력 및 14세당시 부모직업;  
*=====;
```

*먼저 1차년도 개인자료에서 아버지의 학력변수를 빼낸다;

```
DATA A1; set klips01p (keep=pid p01507 p01508 )  
rename p01507 = psch1  
       p01508 = psch2 ;  
if pid > 0 then year = 1998;  
proc sort; by pid; run;
```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신규자료의 아버지의 학력 변수도 가져와야 완전한 데이터가 구축된다;

```
DATA A2; set klips02n (keep=pid n02411 n02412);  
rename n02411 = psch1  
       n02412 = psch2 ;  
if pid > 0 then year = 1999;  
proc sort; by pid ; run;
```

```
DATA A3; set klips03n (keep=pid n03779 n03780);  
rename n03779 = psch1  
       n03780 = psch2 ;  
if pid > 0 then year = 2000 ;
```

```
proc sort; by pid ; run;
```

```
DATA A4; set klips04n (keep=pid n04852 n04853);  
rename n04852 = psch1  
       n04853 = psch2 ;  
if pid > 0 then year = 2001;  
proc sort; by pid ; run;
```

```
DATA A5; set klips05n (keep=pid n05878 n05879);  
rename n05878 = psch1  
       n05879 = psch2 ;  
if pid > 0 then year = 2002;  
proc sort; by pid ; run;
```

```
DATA A6; set klips06n (keep=pid n06803 n06804);  
rename n06803 = psch1  
       n06804 = psch2 ;  
if pid > 0 then year = 2003;  
proc sort; by pid ; run;
```

```
DATA A7; set klips07n (keep=pid n07802 n07803);  
rename n07802 = psch1  
       n07803 = psch2 ;  
if pid > 0 then year = 2004;  
proc sort; by pid ; run;
```

*모두 하나의 데이터로 붙이기;

```
DATA pschool; SET A1 A2 A3 A4 A5 A6 A7; run;
```

*"잘 모르겠음"을 미싱처리;

```
DATA B1; set pschool;  
if 8<= psch1 <= 9 then psch1=.;  
if 6<= psch2 <= 9 then psch2=.;  
proc sort; by pid run;
```

*신규/개인 불완전 구분으로 인한 중복 케이스 삭제;

```
DATA B2 B3; SET B1; by pid;
```

```
if first.pid then output B2; else output B3; run;
```

```
DATA pschool; SET B2;
```

```
proc sort; by pid run; * B2만 사용한다;
```

* 7차 개인/신규 데이터 구성하기;

```
DATA P1; set klips07p;  
proc sort; by pid ; run;
```

```
DATA P2; set k1ips07n;
proc sort; by pid; run;
```

```
DATA P3; set P1 p2;      * 개인과 신규자료를 붙일 때는 변수명을 일치시켜줘야한다;
proc sort; by pid; run; * 이와 관련해서는 [FAQ 3]을 참조하기 바람;
```

```
*7차년도 개인/신규 데이터에 아버지 학력 붙이기;
DATA FNL; merge pschool P3; by pid; run;
```

```
*=====
* SPSS - 부모의 학력 및 14세 당시 부모직업.
*=====
```

*먼저 1차년도 개인자료에서 아버지의 학력변수를 빼낸다.

```
get file = "C:\WDATA\k1ips01p.sav"
/keep pid p01507 p01508
/rename (p01507 = psch1) (p01508 = psch2) .
if (pid > 0) year = 1998.
save out = "C:\WDATA\pschool1.sav".
```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신규자료의 아버지의 학력 변수도 가져와야 완전한 데이터가 구축된다.

```
get file = "C:\WDATA\k1ips02n.sav"
/keep pid n02411 n02412
/rename (n02411 = psch1) (n02412 = psch2) .
if (pid > 0) year = 1999.
save out = "C:\WDATA\pschool2.sav".
get file = "C:\WDATA\k1ips03n.sav"
/keep pid n03779 n03780
/rename (n03779 = psch1) (n03780 = psch2) .
if (pid > 0) year = 2000.
save out = "C:\WDATA\pschool3.sav".
get file = "C:\WDATA\k1ips04n.sav"
/keep pid n04852 n04853
/rename (n04852 = psch1) (n04853 = psch2) .
if (pid > 0) year = 2001.
save out = "C:\WDATA\pschool4.sav".
get file = "C:\WDATA\k1ips05n.sav"
/keep pid n05878 n05879
/rename (n05878 = psch1) (n05879 = psch2) .
if (pid > 0) year = 2002.
save out = "C:\WDATA\pschool5.sav".
get file = "C:\WDATA\k1ips06n.sav"
/keep pid n06803 n06804
/rename (n06803 = psch1) (n06804 = psch2) .
if (pid > 0) year = 2003.
save out = "C:\WDATA\pschool6.sav".
get file = "C:\WDATA\k1ips07n.sav"
```

```
/keep pid n07802 n07803
/replace (n07802 = psch1) (n07803 = psch2) .
if (pid > 0) year = 2004.
save out = "C:\WDATA\pschool7.sav".
```

```
*모두 하나의 데이터로 붙이기.
get file = "C:\WDATA\pschool1.sav".
ADD FILES /FILE=*
  /FILE='C:\WDATA\pschool2.sav'.
ADD FILES /FILE=*
  /FILE='C:\WDATA\pschool3.sav'.
ADD FILES /FILE=*
  /FILE='C:\WDATA\pschool4.sav'.
ADD FILES /FILE=*
  /FILE='C:\WDATA\pschool5.sav'.
ADD FILES /FILE=*
  /FILE='C:\WDATA\pschool6.sav'.
ADD FILES /FILE=*
  /FILE='C:\WDATA\pschool7.sav'.
sort cases by pid.
save out = "C:\WDATA\pschool.sav".
```

```
*"잘 모르겠음"을 미성처리.
get file = "C:\WDATA\pschool.sav".
RECODE
  psch1 (8 thru 9=SYSMIS) .
EXECUTE .
RECODE
  psch2 (6 thru 9=SYSMIS) .
EXECUTE .
```

```
*신규/개인 불완전 구분으로 인한 중복 케이스 삭제.
AGGREGATE
  /OUTFILE='C:\WDATA\pschool_a.sav'
  /BREAK=pid
  /psch1 = MAX(psch1) /psch2 = MAX(psch2).
```

```
*6차년도 개인데이터에 아버지 학력 붙이기.
get file = "C:\WDATA\klips07p.sav".
sort cases by pid.
MATCH FILES /FILE=*
  /TABLE='C:\WDATA\pschool_a.sav'
  /BY pid.
EXECUTE.
```

찾아보기

(ㄱ)		대리응답 비중	7
가구가중치	24	대우패널	9
가구소득	66	대체가구접촉수	20
가구소비	69	대체성공가구비율	20
가구용 설문	27	대체성공가구수	20
가구원 기본정보	64	대학입학시험	88
가구자료	30	동부	19
가구주와의 관계	48	동시생태효과(cohort effect)	3
가구추계자료	24	(ㄴ)	
가족종사자	52	만나이	48
가중치	20	면접원 교육	8
개인가중치	24	면접원 오류	100
개인용 설문	27	면접타계식	6
개인자료	30	모집단	18
개인효과(individual effects)	3	목표표본가구	19
건강과 은퇴 자료	103	무응답(nonresponse)조정	2
건강상태	92	무응답조정가중치	23
경제활동상태	53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8
경제활동인구	53	미취업자	52
계속응답 가구	11	(ㄷ)	
계속응답 가구원	12	보육기관	74
계층 소속감	92	보정(imputation)	23
고용구조특별조사	18	부가조사	30
교육년수	51	부가조사자료	30
군부	19	부동산	71
근로시간 형태	56	부채	72
금융자산	71	분가가구	13
(ㄷ)		비경제활동인구	54
대리응답	6		

비성공 가구	15	자녀교육	74
비원표본 가구	13	자산	71
비표본가구원	23	전반적 직무만족도	90
(사)		전일제	56
사교육	74	전화조사	6
사회보험	87	정규/비정규 여부	55
사회적 연결망	92	조사 기간	8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2	조사구	18
상태간 변이과정	3	조사내용	31
상태간 변이과정(transition between states)	3	조사내용 변경사항	39
생활만족도	92	조사대상	5
성별	47	조사방법	5
세후소득	67	조사설계(survey design)	3
스케일 조정	24	조사추적 원칙	5
시간제	56	조직몰입도	91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	3	중단면 가중치	51
신규자료	30	중단면가중치	20
신규조사자	14	중사상 지위	54
실업자	54	주거지	73
(오)		주택종류	73
연령	48	중고령자 부가조사	105
예비조사(pilot survey)	4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98
오픈 코드(open code)	6	직업력(work history)	9
요인별 직무만족도	89	직업력자료	30
원표본가구	11	직업훈련 코드	61
원표본가구원유지율	9	직접조사	6
유치조사	6	(옷)	
유형설문	29	청년층 자료	102
유효표본가구	9	총접촉가구수	20
읍면부	19	최초성공가구비율	20
응답확률추정치(fitted probability)	2	최초성공가구수	20
이수여부	50	최초접촉가구수	20
입주형태	73	취업/미취업 상태	52
(ㅈ)		취업자	52
자격증	86	(ㅋ)	
		키(key)변수	4

(E)		(B)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	3	BHPS	9
특정연령효과(age specific effect)	3		
		(D)	
(F)		Duncan	23
표본설계방법	18		
표본유지율	8	(E)	
표본추출과정	18	ED	22
표본추출확률	21		
표본탈락(panel attrition)	2	(G)	
표본틀	18	GSOEP	9
(H)		(I)	
학과 코드	61	imputation	23
학교	50		
학년	50	(J)	
학력	50	jobcens	8
학업성취도(GPA)	88	jobclass	9
한국리서치	8	jobnum	9
한국표준산업분류	57	jobseq	9
한국표준직업분류	57	jobtype	9
합가	14	jobwave	9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	2	jubnumc	9
혼인상태	49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	6	(K)	
횡단면가중치	20	key 변수	6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	3	KLIPS	9
(1)		(M)	
1차 원가구원 여부	5	mainjob	98
(2)		(P)	
2단계화집락계통추출법	18	PID	46
		PSID	9
(9)			
97고특	18		

◆ 執筆陣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상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User's Guide

·발행연월일	2006년 6월 16일 인쇄 2006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최영기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 150-01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 대표 (02) 785-0141 Fax (02) 786-1862
·조판·인쇄	이환기획 (02) 2254-4301
·등록일자	1988년 9월 13일
·등록번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